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철학박사 학위논문

데이빗슨의 무법칙적 일원론 옹호

-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과 부수현상론 문제를 중심으로 -

2019 년 8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서양철학전공

임 예 인

국 문 초 록

본 논문의 목적은, 데이빗슨의 무법칙적 일원론이 정신 인과에 관한 유효한 분석 이론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무법칙적 일원론은 정신 인과에 관한 유효한 분석 이론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견 결정적으로 보이는 비판들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이 답하려는 질문은 다음과 같이 재기술했다. 무법칙적 일원론은 현재 직면한 주요 비판들로부터 옹호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무엇보다도 이 주요 비판들이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무법칙적 일원론에 제기된 주요 비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무법칙적 일원론의 주요 전제 중 하나인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이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지가 분명치 않다. 둘째, 무법칙적 일원론은 정신적인 것에 관한 부수현상론으로 보인다. 첫 번째 비판은 무법칙적 일원론의 토대가 불안정하다는 비판이고, 두 번째 비판은 무법칙적 일원론이 정신적인 것의 인과적 유효성을 지켜내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요컨대, 무법칙적 일원론은 토대와 유효성 모두에 관하여 비판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법칙적 일원론은 이 두 비판으로부터 옹호될 수 있는가? 본 논문에서는 무법칙적 일원론이 이 두 비판으로부터 옹호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두 비판은 모두 무법칙적 일원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으며, 따라서 이 오해를 바로잡는다면 두 비판은 더 이상 무법칙적 일원론에 대한 유효한 비판이 될 수 없다. 물론 데이빗슨의 논의가 난해한 탓에, 그 논의를 정확하게 해석하여 재구성하는 일은 간단치 않다. 게다가 무법칙적 일원론의 핵심 개념들이 데이빗슨의 심리 철학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아, 무법칙적 일원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데이빗슨의 행위 철학과 해석 이론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데이빗슨의 심리 철학, 행위 철학, 해석 이론을 아우르는 이해를 바탕으로 무법칙적 일원론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비판들이 기인한 그

오해를 불식시킴으로써, 두 비판으로부터 무법칙적 일원론을 옹호할 것이다.

주요한 두 비판으로부터 무법칙적 일원론을 옹호하기 위하여, 본고의 작업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II에서는 무법칙적 일원론이 전제하고 있는 기본 개념들과, 무법칙적 일원론의 핵심 논증과 테제를 간략하게 설명한다. 무법칙적 일원론이 전제하는 형이상학을 모두 옹호하는 것은 이 논문의 목적이 아니므로, II에서는 이들에 관한 정당화나 옹호가 아니라 그 소개를 목표로 할 것이다.

이후 III에서는 토대에 관한 비판인, 데이빗슨에게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이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답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III의 1에서 기존의 주요 해석들을 확인하고 분석한 뒤, 2에서는 데이빗슨의 무법칙성 논의에 관한 나의 해석이 제안된다. 여기에서,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이 어떻게 확보되는가는, 데이빗슨의 해석 이론의 핵심 개념인 자비의 원리를 통해서만 비로소 이해 가능한 문제임이 밝혀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IV에서는 유효성에 관한 비판인, 무법칙적 일원론은 정신적인 것에 관한 부수현상론이라는 비판과 관련하여 논의가 진행된다. 이를 위하여 IV의 1에서는 초기의 부수현상론 비판인 형이상학적 부수현상론이라는 비판과 그에 대한 데이빗슨의 직접적 대응이 성공적인지를 분석하고, 데이빗슨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설명적 부수현상론이라는 비판은 여전히 유효한 비판일 수 있음이 논의된다. 이어서 IV의 2에서는 무법칙적 일원론이 설명적 부수현상론이라는 비판에 어떻게 대응 가능한지 논의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행위 철학과 해석 이론을 포함하는 데이빗슨의 철학 이론 전체를 조망할 때 비로소 데이빗슨의 무법칙적 일원론에 대한 보다 완전하고 발전된 이해가 가능함이 밝혀질 것이다.

주요어 : 정신 인과, 심신 이론, 심물 동일성, 무법칙적 일원론, 부수현상론,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 데이빗슨

학 번 : 2011-30860

목 차

I. 서론	1
II. 예비 작업	4
1. 기본 개념	5
(1) 인과와 사건	5
(2) 정신적 사건과 물리적 사건	9
(3) 사건 개별자와 사건 유형	12
2. 무법칙적 일원론	15
(1) 세 전제	15
(2) 개별자 동일성 테제	20
(3) 형이상학적 쟁점들	21
III.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	25
1. 기존 해석과 그 난점	26
(1) 구성적 원리의 손상: 김재권	27
(2) 합리성 개념의 수정 가능성: 맥도웰	37
(3) 합리성의 법칙화 불가능성: 차일드	46
2.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	55
(1) 심심 무법칙성	55
(2) 심물 무법칙성	61
i) 엄격 법칙: 지시의 고정성	61

ii) 정신적 영역의 구성적 원리로서의 합리성	64
iii) 심물 무법칙성	71
(3)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	76
IV. 부수현상론 문제	78
1. 부수현상론이라는 비판	79
(1) 형이상학적 부수현상론이라는 비판	79
(2) 데이빗슨의 대응	86
(3) 설명적 부수현상론이라는 비판	95
2. 설명적 부수현상론 비판으로부터의 옹호	102
(1) 인과적 설명	103
(2) 물리적 인과 폐쇄성의 원리	111
(3) 관심과 정신적 설명: 비판으로부터의 옹호	117
V. 결론	130
참고문헌	132
ABSTRACT	140

I. 서론

무법칙적 일원론은 정신 인과에 관한 한 이론으로, 정신적 사건과 물리적 사건이 동일하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무법칙적 **일원론**이며, 동시에 정신적 사건과 물리적 사건 사이에는 어떠한 엄격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무법칙적** 일원론이다. 무법칙적 일원론은 심물 엄격 법칙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이를 통해 심물 환원은 불가능함을 주장한다. 따라서 무법칙적 일원론에 따르면 심신 유형 동일성은 가능하지 않으며, 무법칙적 일원론은 심신 유형 동일성이 아니라 심물 무법칙성으로부터 심신 동일성을 도출하는 이론이다. 바로 이 점에서 무법칙적 일원론은 심물 법칙에 의거하여 환원적 동일성을 주장하는 기존의 일원론과 확연히 구분된다. 무법칙적 일원론의 이러한 전략은, 정신적 영역은 무법칙적 체계라는 우리의 일상적 직관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유물론이 주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게다가 무법칙적 일원론의 동일성 논증은 선형적이라는 점에서, 이 이론에서는 그 동일성 주장을 뒷받침할 어떠한 경험적 근거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독특하고 흥미로운 특성 덕에, 무법칙적 일원론은 처음 발표¹⁾된 이래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무법칙적 일원론이 정신 인과의 주요한 이론으로서 더 이상 주목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 이유로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무법칙적 일원론의 핵심 전제 중 하나인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이 어떻게 확보되는지가 분명치 않다. 둘째, 무법칙적 일원론은 정신적인 것에 관한 일종의 부수현상론으로 보인다. 첫째는 무법칙적 일원론의 토대에 관한 비판으로, 둘째는 무법칙적 일원론의 유효성에 관한 비판으로 이어지는데, 이 두 비판은 현재 무법칙적 일원론이 직면한 가장 결정적인 비판인 셈이다. 만약 이 비판들이 성공적이라면, 무법칙적 일원

1) 무법칙적 일원론은 데이빗슨의 논문인 ‘정신적 사건들(Davidson, 1970a)’에서 처음 주장되었다.

론은 그 토대도 불안정하고 유효하지도 않은 이론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이 두 비판은 성공적이지 않다. 그것은 이 비판들이, 상당 부분 무법칙적 일원론에 대한 오해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의 목표는 무법칙적 일원론을 보다 정확하게 해석하여, 이 두 비판이 전제하고 있는 무법칙적 일원론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음으로써, 무법칙적 일원론을 옹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무법칙적 일원론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데이빗슨의 행위 철학과 해석 이론까지도 폭넓게 고려해야 함이 밝혀질 것이다. 물론 이 비판들로부터 옹호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무법칙적 일원론이 완전무결한 이론임이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무법칙적 일원론이 전제하고 있는 다양한 형이상학적 입장이 있고, 이러한 입장들 각각이 마주하고 있는 여러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주요한 두 비판으로부터 무법칙적 일원론을 옹호하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 무법칙적 일원론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존의 오해를 불식할 수 필요가 있다. 둘째, 정신 인과에 관한 일상적 직관을 탁월히 반영하는 심신 이론인 무법칙적 일원론이 정신 인과에 관한 유효한 이론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무법칙적 일원론이 정신 인과의 이론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다면, 현재의 비환원적 유물론 진영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들²⁾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한 두 비판으로부터 무법칙적 일원론을 옹호하기 위하여, 본고는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먼저 II에서는 무법칙적 일원론이 전제하고 있는 기본 개념들과, 무법칙적 일원론의 핵심 논증과 테제를 간략하게 설명한다.

2) 최근 비환원적 유물론이 처한 주요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인과에 관한 과잉 결정의 문제이다. 이 문제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Bennett(2003, 2008), Marcus(2005), Gibbons(2006), Kroedel(2008), Won(2014), Zhong(2011, 2012), List and Menzies(2009), Christensen and Kallestrup(2012))이 있으나, 아직까지 성공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한 상황(Won, 2014)이라 할 수 있다. 사건 개별자와 사건 기술을 엄밀히 구분함으로써 과잉 결정의 문제에 직면하지 않는 무법칙적 일원론은, 최근의 비환원적 유물론 진영에, 심신 인과에 관한 흥미로운 모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무법칙적 일원론이 전제하는 형이상학을 모두 옹호하는 것은 이 논문의 목적이 아니므로, II에서는 이들에 관한 정당화나 옹호가 아니라 그 소개를 목표로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II의 1에서는 무법칙적 일원론이 전제하고 있는 기본 개념들을 소개하고, 2에서는 무법칙적 일원론의 핵심 논증과 테제를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다. 이후 III에서는 데이빗슨에게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이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답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III의 1에서 기존의 주요 해석들을 확인하고 분석한 뒤, 2에서는 데이빗슨의 무법칙성 논의에 관한 나의 해석이 제안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이 어떻게 확보되는가는, 데이빗슨의 해석 이론의 핵심 개념인 자비의 원리를 통해서만 비로소 이해 가능한 문제임이 밝혀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IV에서는 무법칙적 일원론은 정신적인 것에 관한 부수현상론이라는 비판과 관련하여 논의가 진행된다. 이를 위하여 IV의 1에서는 초기의 부수현상론 비판인 형이상학적 부수현상론이라는 비판과 그에 대한 데이빗슨의 직접적 대응이 성공적인지를 분석하고, 데이빗슨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설명적 부수현상론이라는 비판은 여전히 유효한 비판일 수 있음이 논의된다. 이어서 IV의 2에서는 무법칙적 일원론이 설명적 부수현상론이라는 비판에 어떻게 대응 가능한지 논의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행위 철학과 해석 이론을 포함하는 데이빗슨의 철학 이론 전체를 조망할 때 비로소 데이빗슨의 무법칙적 일원론에 대한 보다 완전하고 발전된 이해가 가능함이 밝혀질 것이다.

II. 예비 작업

무법칙적 일원론이 직면한 비판에 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무법칙적 일원론이 어떠한 이론인지, 무법칙적 일원론의 토대가 되는 기본 개념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II에서는 무법칙적 일원론의 기본 개념들을 설명하고, 이어 무법칙적 일원론의 핵심 논증과 테제를 간략히 설명하겠다.

1에서는 무법칙적 일원론의 기반이 되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소개한다. 무법칙적 일원론은 인과의 두 향이 사건이라는 사건 인과론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1)에서는 사건 인과론에 관해 간략히 설명한다. 이어서, 무법칙적 일원론은 정신적 사건과 물리적 사건 사이의 동일성을 주장하는 이론이므로, (2)에서는 데이빗슨이 정신적 사건과 물리적 사건을 각각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사건 개별자와 사건 유형에 대한 엄밀한 구분은 무법칙적 일원론을 도출하기 위한 핵심 전제 중 하나이므로, (3)에서는 사건 개별자와 사건 유형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살펴볼도록 한다.

2에서는 무법칙적 일원론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 (1)에서는 데이빗슨이 받아들이는 정신 인과에 관한 세 전제인 인과의 상호작용 원리, 인과의 법칙적 성격 원리,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이 각각 어떤 것인지 살펴본다. 이어서 (2)에서는 이 세 전제로부터 무법칙적 일원론이 어떻게 도출되는지 그 논증적 구조를 밝힌다. 그리고 (3)에서는 무법칙적 일원론과 관련된 형이상학적 쟁점들에 관하여 간략하게 확인하도록 하겠다.

II의 목적은 무법칙적 일원론에 관한 본격적 논의에 앞서 논의에 필요한 기본 개념과 논증을 간략히 소개하는 것으로, 무법칙적 일원론에 전제된 기본 형이상학을 정당화하거나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II의 논의는 III과 IV를 위한 일종의 예비 작업인 것이다.

1. 기본 개념

무법칙적 일원론은 정신 인과에 관한 이론으로, 물리적 사건과 인과 관계를 맺는 정신적 사건은 어떤 물리적 사건과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이론을 이해하려면, 최소한 세 가지 개념을 확보해야 한다. 첫째, 사건 인과, 둘째, 정신적 사건, 셋째, 물리적 사건. 따라서 1장에서는 이 세 개념이 각각 어떤 것인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무법칙적 일원론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사건 개별자와 사건 유형이 엄밀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 개념으로서 이 구분 또한 반드시 다뤄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1)에서는 사건 인과론에 관해 간략히 설명한다. 그리고 (2)에서는 데이빗슨이 정신적 사건과 물리적 사건을 각각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3)에서는 사건 개별자와 사건 유형이 각각 무엇이고 이들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1) 인과와 사건

인과 관계는 일종의 이항관계로, 인과 관계를 맺는 두 항에 대해 우리는 하나가 다른 하나를 야기했다고 말한다. 이때 상대방을 야기하는 항을 원인이라고 하고, 다른 항에 의해 야기되는 항을 결과라고 한다. 따라서 인과 관계에 놓여 있는 두 항 a 와 b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로 기술하는 것이 가능하다.

- ① a 와 b 는 인과 관계에 놓여 있다.
- ② a 는 b 를 야기했다.
- ③ a 는 b 의 원인이다.

인과 관계에 관한 기술, 특히 ②와 ③과 같은 표현들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며, 대부분 그 진위 여부를 직관적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물론 때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나, 대개 우리는 원인과 원인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일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과 관계가 무엇인지, 인과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난해한 문제이다. 이 때문에 인과 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과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인과 관계에 관한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인과 관계를 구성하는 두 항이 어떤 범주의 것인가 하는 문제다. 개체, 혹은 개별자가 원인이 된다고 볼 수도 있고,³⁾ 사건이 인과 관계를 구성하는 항이 된다고 볼 수도 있다.⁴⁾ 데이빗슨은 인과 관계를 구성하는 항은 바로 사건⁵⁾이라고 보았다. 즉, 데이빗슨은 일종의 사건 인과론을 채택하고 있는 것인데, 사건 인과론에 따르면 일상적 인과 진술인 ‘그 태풍이 그 수해를 야기했다’는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④ 두 사건 c 와 e 가 있어서, c 는 그 태풍의 발생이고 e 는 그 수해의 발생이며, c 는 e 의 원인이다.

여기서 잠시, 인과의 항을 이루는 이 사건이 무엇인가⁶⁾에 대해 간략히 짚고 넘어가도록 한다. 데이빗슨에 따르면 사건은 특정한 시공간에서 발생하는 개별자로, 반복 불가능한 존재다.⁷⁾ 예를 들어, 6·25의 발생, 케네디의 죽음, 평창 올림픽이 개막함 등이 사건에 속한다. 이 사건들은 비구조적인

3) 대표적으로 Chisholm(1964), Taylor(1966), O'Connor(2000) 등을 보라.

4) 사건 인과론을 채택하는 대표적인 학자로 Lewis(1973b, 1986b)가 있다. Loux(2006)에 따르면 사건 인과론은 인과 형이상학자들의 주로 택하는 입장이다.

5) 사건 인과론을 옹호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형이상학적 주제 중의 하나이나, 본고의 목표는 아니다. 사건 인과론에 관해서는 Davidson(1967a)을 보라.

6) 물론 사건은 그 자체로 다양한 쟁점을 가지는 현대철학의 핵심 주제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장의 목적은 데이빗슨의 형이상학을 소개하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데이빗슨의 사건론에 관해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한다.

7) 구체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데이빗슨(Davidson, 1970a, 1970b)을 참고하라.

존재자로, 속성을 예화하거나 가질 수 있는 존재자가 아니다. 따라서 동일한 속성을 예화하는가⁸⁾와 같은 조건은, 데이빗슨에게 사건 동일성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그렇다면 비구조적 존재자로서 사건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인과 관계이다. 서로 다른 두 사건은 “원인과 결과가 동일할 때,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동일한”⁹⁾ 사건이다.

인과 분석에 대하여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는 바로 인과 관계와 인과 기술의 구분이다. 데이빗슨에 따르면, “우리는 원인과 원인을 기술하기 위해 우리가 마주치는 면을 확실히 구분해야”¹⁰⁾ 한다. 다시 말해, 원인 그 자체와 원인에 대한 기술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과 관계는 단일 사건들 사이의 형이상학적 관계다. 따라서 두 사건 *c*와 *e*가 인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이는 이 두 사건이 어떻게 기술되는지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관계인 것이다. 반면, 이 단일 사건들 사이의 관계를 문장으로 포착할 때, 우리는 이 단일 사건을 기술해야 하고, 이 기술은 사건의 특정한 측면을 드러낸다.¹¹⁾ 예컨대, ④의 사건 *c*는 ‘그 태풍의 발생’이라고 기술될 수도 있고, ‘그 거센 태풍의 발생’이라고 기술될 수도 있으며, 혹은 ‘풍속이 이러저러한 기상 변화의 발생’이라고 기술될 수도 있다. 각각의 기술은 해당 사건의 특정한 측면을 조망하는 것이다.

사건 기술의 이러한 특성은 데이빗슨의 다음 지적으로 이어진다.

8) 이는 사건동일성에 대한 김재권(Kim, 1966)의 제안이다.

9) Davidson, 1969, p.179(국역본 p.308*)

여기에서 인용에 관한 간단한 원칙을 정립하도록 하겠다. 본 논문에서 다루려는 주요 논문들은 이미 국내에 번역본이 출판되어 있으므로, 국역본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 인용은 원칙적으로 기존 번역을 따르도록 한다. 그리고 국역본의 번역을 따를 경우, 원문의 쪽수와 국역본의 쪽수를 함께 기입한다. 한편으로 국역본과 다르게 본고에서 따로 번역한 경우, 혹은 국역본의 표현을 다소 수정한 경우에는 원문의 쪽수와 국역본의 쪽수를 함께 기입하되, 국역본의 쪽수 옆에 ‘*’를 표시하여 국역본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10) Davidson, 1967a, p.155(국역본 p.273)

11) 사건과 기술에 대해서는 Davidson(1967b, 1969, 1970b)를 보라.

“둘째,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한 진술이 제대로 말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과, 더 나아가 질문, 즉 그 관계가 인과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법칙이나 다른 인과적 지식으로부터 연역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추론할 수 있게끔 그 사건들이 기술되어 있는지를 묻는 것을 확고히 구분해야 한다.”¹²⁾

두 사건이 인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사건들을 어떻게 기술하더라도, 각 기술이 각 사건을 제대로 지칭하는 한, 두 사건이 인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참이다. 그러나 어떤 인과 진술의 진리치를 따지는 문제와, 우리가 그 인과 진술을 통해 해당 사건 사이의 인과 관계를 추론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서로 다른 문제다. 예컨대, ④의 사건 c 가 ‘그 태풍의 발생’이라고 기술될 수도 있고, ‘진행 속도가 $18km/h$ 인 그 저기압의 발생’이라고 기술될 수도 있다고 하자. 그러면 ④의 인과 관계는 다음의 두 가지 방식으로 기술 가능하다.

- ⑤ 그 태풍의 발생이 그 수해의 발생을 야기했다.
- ⑥ 진행 속도가 $18km/h$ 인 그 저기압의 발생이 그 수해의 발생을 야기했다.

이때, ⑤와 ⑥은 모두 c 와 e 사이에 성립하는 인과 관계를 기술한 인과 문장으로, 참인 진술이다. 그러나 ⑤는 이 인과 관계를 쉽게 추론할 수 있도록 하는 진술인 반면, ⑥은 그렇지 않다. 즉, ⑤와 ⑥은 모두 참인 인과 문장이지만, ⑤가 그 인과 관계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기술되어 있는 문장인 것이다. 데이빗슨이 주목한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어떤 인과 문장이 참인가라는 질문과, 그 인과 문장이 해당 인과 관계를 잘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는 서로 다른 문제이며, 따라서 인과 문장의 진리치

12) Davidson, 1967a, p.155(국역본 p.273)

는 각 사건들이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가가 아니라 그 사건 기술들이 어떤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인과에 관한 데이빗슨 이론의 주요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데이빗슨은 사건 인과론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는 인과 관계를 맺는 두 항을 사건으로 보는 입장이다. 둘째, 데이빗슨은 인과 관계와 인과 문장을 엄밀하게 구분한다. 따라서 어떤 인과 문장이 인과 관계를 참되게 기술하고 있는가의 문제와 인과 문장이 인과 관계가 잘 드러나도록 기술되어 있는가의 문제는 엄격하게 구분된다.

(2) 정신적 사건과 물리적 사건

무법칙적 일원론은 정신적 사건과 물리적 사건 사이의 동일성을 주장하는 이론이다. 그러므로 무법칙적 일원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사건과 물리적 사건이 각각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데이빗슨이 정신적 사건과 물리적 사건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다.

먼저 물리적 사건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보자.

사건 e 는 물리적 사건이다.

iff

사건 e 는 오직 물리적 용어만을 본질적으로 가지는 기술이나 열린 문장에 의해 골라진다.¹³⁾

이 정의에 따르면 어떤 기술이나 열린 문장이 본질적으로 가지는 용어가

13) 이는 다음을 정의의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물리적 사건은, 본질적 용어로는 오직 물리적 용어만을 가지는 기술이나 열린 문장에 의해 골라지는 사건이다.”(Davidson, 1970a, p.211(국역본 p.353*))

물리적 용어밖에 없을 때, 그 기술이나 열린 문장으로 골라지는 그 사건이 바로 물리적 사건이 된다. 이 정의로부터 우리는 데이빗슨이 물리적 세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 물리적 사건은 오직 물리적 용어만을 사용하여 기술될 수 있고, 물리적 세계는 물리적 사건들로 이루어진 세계이므로, 물리적 세계 또한 물리적 용어만을 사용하여 기술될 수 있다. 즉, 물리적 세계는 하나의 닫힌 세계이고, 물리학은 하나의 닫힌 학문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신적 사건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이제 우리는 다음 두 경우 중 하나일 때 한 사건이 정신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그 사건이 정신적인 기술을 가질 때 그리고 오직 그때만. 둘째, 그 사건에 대해서만 참인 정신적 열린 문장이 있을 때.”¹⁴⁾

이 정의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은 ‘정신적 기술’ 혹은 ‘정신적 열린 문장’이다. 이들은 일종의 기술이나 열린 문장으로, 적어도 하나의 정신적 동사를 본질적으로 포함하는 것이라 정의된다.¹⁵⁾ 그렇다면 이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동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정신적 동사’를 정의하기 위한 데이빗슨의 첫 번째 시도는, 명제적 태도를 표현하는 동사를 정신적 동사로 보는 것이다. 예컨대, 믿음, 앎, 의도함, 감지함 등의 지향적 태도를 표현하는 동사를 정신적 동사로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문제에 직면한다. 이들이 외연적인 맥락에서 사용될 때, 명제적 태도를 표현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감지하다(perceive)’가 외연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경비 시스템이 수상한 침입을 감지했다’와 같은 문장에서 ‘감지했다’는 경비 시스

14) Davidson, 1970a, p.211(국역본 p.353)

15) “‘*M*인 사건’이란 형태의 기술이나 “사건 *x*는 *M*이다”라는 형태의 열린 문장이 **정신적 기술**이나 **정신적 열린 문장**이라고 불리는 경우는 ‘*M*’을 대신하는 표현이 적어도 하나의 정신적 동사를 본질적으로 포함하고 있을 때 그리고 오직 그때뿐이라고 하자.” (Davidson, 1970a, p.211(국역본 p.352))

템의 명제적 태도를 표현하는 동사가 아니며, 경비 시스템이 정신적 면모를 가졌음을 함축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정신적 동사’를 제대로 정의하려면 이와 같은 상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데이빗슨은 ‘정신적 동사’를 “심리적 동사들이 명백히 비외연적인(nonextensional) 문맥을 만들어낼 때 사용되는 경우, 그럴 때의 심리적 동사들”¹⁶⁾로 정의한다. 외연적인 맥락을 제외함으로써 이 정의는 앞의 사례와 같은 예외를 제거할 수 있고, 정신적 동사를 명제적 태도를 드러내는 동사들¹⁷⁾에 한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제 정신적 사건을 명확히 정의할 수 있다. 명제적 태도를 표현하는 동사가 본질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이나 열린 문장에 의해 골라지는 사건이 바로 정신적 사건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건 e 는 정신적 사건이다.

iff

사건 e 는 명제적 태도를 표현하는 동사를 본질적으로 포함하는 기술이나 열린 문장에 의해 골라진다.

여기서 우리는 물리적 사건 정의와 비대칭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다. 물리적 사건은 오직 물리적 용어만을 사용하는 표현에 의해 기술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신적 사건에 대한 기술은 정신적 동사를 본질적으로 포함하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정신적 사건에 대한 기술에는 정신적이지 않은 용어가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정신적 사건으로 이루어진 정신적 체계가 정신적이지 않은 용어에 의해 기술될 가능성을 연다. 요컨대, 정신적 영역

16) Davidson, 1970a, p.211(국역본 p.352*)

17) 정신적 사건이라고 할 때 데이빗슨이 고통, 감각질 등이 아니라 **명제적 태도**에 주목하고 있음은, 데이빗슨 본인이 여러 번 강조하고 있다. (Davidson(1970a(p.211), 1974a(pp.229-230))) 알로위츠(Yalowitz, 2012) 또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알로위츠의 인용에 관해 미리 말해둘 것이 있다. 이 논문은 스탠포드 철학백과사전에 수록된 글로, 웹 상에 게재되어 페이지를 특정할 수 없다. 이런 까닭에 알로위츠(Yalowitz, 2012)를 인용할 때는 쪽수는 제외한 원문 정보만을 각주에 기입하겠다.

은 물리적 영역과 달리 닫힌 체계를 구성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데이빗슨의 정신적, 물리적 사건 논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어떤 사건이 정신적 사건인지 물리적 사건인지 분류하는 일은 그 사건이 어떻게 기술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둘째, 물리적 사건은 오직 물리적 용어만을 본질적으로 포함하는 기술이나 열린 문장에 의해 골라지는 사건이며, 이러한 정의는 물리적 체계가 닫힌 체계임을 잘 보여준다. 셋째, 정신적 사건은 정신적 동사를 본질적으로 포함하는 기술이나 열린 문장에 의해 골라지는 사건이며, 이러한 정의는 정신적 체계가 닫힌 체계라고 왜 할 수 없는지를 잘 보여준다.

(3) 사건 개별자와 사건 유형

(1)에서는 인과 관계와 인과 문장이 구분되어야 함을 논의했다. 이를 보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말하자면, 사건 개별자와 사건 유형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데이빗슨은 여러 곳¹⁸⁾에서 사건 개별자와 사건 유형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은 무법칙적 일원론을 증명하는 데 핵심적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 주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어떤 개별 사건 e 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 사건은 ‘철수가 공을 던짐’이라고 기술될 수도 있고, ‘철수가 공을 세계 던짐’이라고 기술될 수도 있으며, ‘철수가 팔을 휘두름’이라고 기술될 수도 있다. 각각의 기술은 이 사건 e 의 특정한 면모를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은 단순히 사건 e 의 특정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뿐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떤 특정한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만든다.¹⁹⁾ 예컨대, 사건 e 를 ‘철수가 공을 던짐’이라고 기술할 때,

18) Davidson(1963, 1967a, 1967b, 1970a, 1973a)

19) “이유를 댄으로써 어떤 행위를 설명할 때 우리는 그 행위를 재기술하고 있다; 행위를

*e*는 누군가가 공을 던짐이라는 사건 유형, 철수가 공을 던짐이라는 사건 유형 등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e*를 ‘철수가 팔을 휘두름’이라고 기술할 때, *e*는 누군가가 팔을 휘두름이라는 사건 유형 등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로부터 우리는 한 사건 개별자는 다양하게 기술될 수 있으며, 따라서 다양한 유형에 속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 사건 유형은 다양한 사건 개별자를 포섭할 수 있다. 예컨대, 누군가가 공을 던짐이라는 사건 유형에는 철수가 공을 던진 사건, 영희가 공을 던진 사건, 민수가 공을 던진 사건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러한 점을 통해, 사건 개별자와 사건 유형은 서로 다른 것임을 알 수 있고, 이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건의 종류와 구체적 날짜가 정해진 개별적 사건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²⁰⁾

사건 개별자와 사건 유형을 구분하는 것과 관련하여 데이빗슨이 주목하는 또 한 가지는, 바로 개별 사건 사이의 관계와 법칙적 관계를 구분하는 것이다.

“인과의 동일성은 어떻게 기술되든 개별 사건들 사이의 관계다. 그러나 법칙은 언어적이다. 따라서 사건은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기술되는 한에서만 법칙의 한 예가 되고 그리하여 법칙에 비추어 설명되거나 예측될 수 있다.”²¹⁾

인과나 동일성은 개별 사건들 사이의 관계로, 이 관계들은 개별 사건이 어떻게 기술되는가와 무관하게 성립한다. 반면 법칙은 사건 유형 사이의 관계다. 따라서 법칙에 포섭되려면 사건 개별자는 해당 법칙의 관계항인 사건 유형에 속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개별 사건은 언어로 기술되어야 비로소 어떤 사건 유형에 속하는지 확인 가능하므로, 개별 사건이 이렇게 특정한 방식으로 기술되었을 때만 해당 법칙에 포섭되는 것인지 아닌지

재기술하는 것은 어떤 유형 속에 그 행위의 자리를 잡아주는 것이며, 행위는 이런 식으로 설명된다.” (Davidson, 1963, p.10(국역본 p.60), 강조는 필자)

20) Davidson, 1973a, p.253(국역본 p.410*)

21) Davidson, 1970a, p.215(국역본 p.359)

확인된다. 그러한 까닭에, 개별 사건이 적절한 방식으로 기술되었을 때만 법칙을 통해 설명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법칙은 언어적이다.

사건 개별자와 사건 유형에 관한 데이빗슨의 요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 사건과 사건 유형은 구분되어야 한다. 개별 사건은 다양한 사건 유형에 속할 수 있으며, 또 다양한 개별 사건이 한 사건 유형에 속하는 것도 가능하다. 둘째, 인과나 동일성과 같이 개별 사건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와, 법칙과 같이 사건 유형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는 구분되어야 한다. 개별 사건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는 그 사건이 어떻게 기술되는가와 무관하게 성립하지만, 사건 유형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는 그 사건이 어떻게 기술되어 어떤 사건 유형에 속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자는 형이상학적 문제인 데 반하여 후자의 관계는 언어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무법칙적 일원론

1장에서 무법칙적 일원론에 전제되어 있는 기본 개념들을 확인하였으므로, 이제 무법칙적 일원론이 어떤 이론인가에 대해 소개하도록 한다. 데이빗슨은 정신 인과에 관한 우리의 세 가지 일상적 직관들이 일견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건 개별자와 사건 유형의 엄밀한 구분을 통해 이 직관들을 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그렇게 보면 세 직관들로부터 개별자 동일성이 도출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무법칙적 일원론을 이해하려면 이 세 가지 직관들이 각각 무엇인지, 그리고 이 직관들이 어떻게 일관적일 수 있으며, 이들로부터 무법칙적 일원론이 어떻게 도출되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2장의 작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우선 (1)에서는 무법칙적 일원론이 받아들이고 있는 세 원리인 인과의 상호작용 원리, 인과의 법칙적 성격 원리,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이 각각 어떤 것인지 살펴본다. 이 세 원리는 정신 인과에 관한 우리의 일상적인 직관들이며, 일견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2)에서는 이 세 원리가 어떻게 일관적일 수 있으며, 이들로부터 어떻게 무법칙적 일원론이 도출되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에서는 무법칙적 일원론에 관하여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오해에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확인한다.

(1) 세 전제

데이빗슨은 정신 인과에 대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세 원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각각 인과의 상호작용 원리, 인과의 법칙적 성격 원리, 그리고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이다. 데이빗슨은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을 제외한 다른 원리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정당화를 시도

하지 않는데, 이는 무법칙적 일원론과 관련된 데이빗슨의 목표가 일상적 직관의 정당화가 아니라, 일견 모순처럼 보이는 이 원리들이 사실은 일관적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²²⁾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인과에 관한 이 세 원리가 어떤 것인지를 간략히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물론 마지막 원리인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에 대해서는 데이빗슨이 독자적인 논의를 펼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는 그 자체로 중요한 문제이므로,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에 대해서는 본고의 III에서 독자적으로 다뤄질 것이다. 여기서는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이 어떤 원리인지, 그리고 문제가 되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소개하는 것에 작업을 한정하도록 하겠다.

(i) 첫 번째 원리는 인과의 상호작용 원리²³⁾이다. 이 원리는 물리적 사건과 인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정신적 사건이 존재한다는 원리로, 인간 행위에 관한 일상적 설명을 잘 반영한다. 예컨대, 놀부는 금은보화를 얻으려는 의도로 제비 다리를 부러트렸고, 그 결과 제비의 다리가 부러졌다. 이 사태를 두고 우리는 놀부의 못된 심보가 제비 다리의 부러짐을 야기했다고 말한다.

데이빗슨이 이 원리를 정당화하는 논증을 독립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데이빗슨의 행위 철학²⁴⁾을 통해 이 원리는 다음처럼 설명 가능하다. 데이빗슨에 따르면 이유는 행위의 원인이므로, 행위는 어떤 정신적 사

22) “내가 그 모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결국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 모순은 세 가지 원칙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 같다.”(Davidson, 1970a, p.208(국역본 p.348))

“동일론에 대한 이 ‘증명’이 기껏해야 조건적이라는 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증명의 전제들 중 두 개가 입증된 것이 아니고, 또 세 번째 원리를 위한 논증도 결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밝혀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제들이 참이라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 전제들이 어떻게 해서 화해를 이룰 수 있을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전제들이 정신적인 것에 관한 동일론의 한 형태를 입증하는 데 기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는 흥미를 느낄 것이다.”(Davidson, 1970a, p.209(국역본 p.350))

23) “첫 번째 원리는, 물리적 사건과 인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정신적 사건들이 있기는 한다는 원리이다.”(Davidson, 1970a, p.208(국역본 p.348*))

24) Davidson(1963, 1971)

건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행위는 이 세상에 어떤 물리적 변화를 야기한다. 즉,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물리적 사건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인과 사슬에 의하여, 행위의 원인인 정신적 사건은 행위의 결과인 물리적 사건의 원인이라 할 수 있고, 이는 물리적 사건과 인과 관계에 있는 정신적 사건이 있음을 보여준다.

(ii) 두 번째 원리는 인과의 법칙적 성격 원리²⁵⁾로, 이는 인과 관계에 있는 두 사건 사이에는 법칙이 존재한다는 원리이다. 이 원리와 관련하여 다음의 세 가지를 분명히 지적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때의 법칙은 엄격한 결정론적 법칙²⁶⁾이다. 둘째, 인과 관계에 있는 두 사건이 법칙에 의해 포섭한다는 것은, 그러한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이지 우리가 이 법칙을 앎을 함축하는 것은 아니다.²⁷⁾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원리는 모든 참인 인과 문장이 법칙의 사례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 사건 개별자와 사건 유형은 구분되어야 하고, 따라서 어떤 인과 문장이 참인가 하는 문제와, 어떤 인과 문장이 법칙을 잘 드러내는 방식으로 기술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구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원리는, 인과 관계에 놓인 사건들은 법칙에 포섭되는 방식으로 기술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읽어야 한다.²⁸⁾

(iii) 세 번째 원리는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²⁹⁾이다. 이 원리는 정신적

25) “두 번째 원리는 인과가 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법칙이 있다는 것이다.”(Davidson 1970a, p.208(국역본 p.349*))

26)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는 사건들은 엄격한 결정론적 법칙 아래 놓여 있다.”(Davidson, 1970a, p.208(국역본 p.349))

27) 이 인과 개념에 관해서는 Davidson(1967a)를 보라.

28) “<인과의 법칙적 성격 원리>는 조심스럽게 읽어야 한다: 이 원리는 사건들이 원인과 결과로 연결될 때 그 사건들은 어떤 법칙의 사례가 되는 기술을 갖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참인 인과 단칭 진술이 모두 자신을 사례로 삼는 어떤 법칙을 갖는다고는 말하지 않는다.”(Davidson, 1970a, p.215(국역본 p.359*))

29) 데이빗슨은 ‘정신적 사건들’(Davidson, 1970a)에서는 세 번째 원리를 “정신적 사건을 예측하거나 설명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엄격한 결정론적인 법칙도 없다.”(Davidson, 1970a, p.208(국역본 p.349*))고 정의함으로써,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이 세 번째 원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의 또 다른 논문인 ‘철학의 일종인 심리학(1974a)’에서는 세

사건은 법칙적으로 예측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는 원리로, 정신적 술어는 엄격 법칙을 구성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데이빗슨은 이 원리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논증하는데, 첫째는 정신적 술어로만 이루어진 엄격 법칙은 없다는 것, 다시 말해 정신적 사건 유형은 다른 정신적 사건 유형과 법칙적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심심 무법칙성이고, 둘째는 정신적 술어는 다른 물리적 술어와는 엄격 법칙을 구성할 수 없다는 심물 무법칙성이다.

먼저, 심심 무법칙성은 다음과 같이 논증된다.

“거칠더라도 동질법칙적 법칙이 있는 곳에는, 같은 개념적 영역에서 개념들을 끌어오는, 그리고 더 손볼 데가 없을 만큼 엄밀성과 포괄성을 갖춘 법칙이 있다. …정신적인 개념들만으로는 그런 뼈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정신적인 것은 우리의 첫 원리에 의해 닫힌 체계를 이루지 않기 때문이다. 정신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지만 자신은 정신적인 것의 어떤 체계적인 부분도 아닌 것들이 너무도 많다.”³⁰⁾

이 인용문에서 데이빗슨은 정신적 개념들만으로는 엄격 법칙을 구성하지 못하는 이유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정신적인 것은 닫힌 체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과에 관한 첫 번째 원리인 상호작용 원리에 따르면 물리적 사건과 인과작용하는 정신적 사건이 존재하므로, 정신적 영역의 인과 관계는 정신적 영역 바깥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정신적 영역은 열린 체계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정신적 영역이 열린 체계라는 것이 어떻게 심심 무법칙성을 함축하는가**이다.³¹⁾ 이 문제가 해명되어야만 데이빗슨의 심심 무법칙성 논증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당한지를 판

번째 원리를 “어떤 엄격 심물 법칙도 없다(Davidson, 1974a, p.231(국역본 p.379*))”고 정의하여, 마치 심물 무법칙성이 세 번째 원리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이러한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데이빗슨 본인이 심심 무법칙성과 심물 무법칙성 각각을 개별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므로, 세 번째 원리를 심물 무법칙성으로 보는 것은 데이빗슨의 논의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세 번째 원리를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으로 간주할 것이다.

30) Davidson, 1970a, p224(국역본 p.371)

31) 구체적 논의는 본고의 III.2.(1)을 보라.

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과 관련하여 반드시 해명되어야 할 문제다.

둘째, 데이빗슨은 심물 무법칙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물리적 실재의 특징은, 물리적 변화는 물리적으로 기술된 다른 변화나 조건과 그 변화를 연결시키는 법칙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신적인 것의 특징은, 한 개별자가 정신적 현상들을 지녔다고 생각하려면 배경에 있는 그 개별자의 이유, 믿음, 의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각 영역이 각각 나름의 증거와 원천에 계속 충실하려 한다면, 그 영역들 사이에 단단한 연결은 있을 수 없다.”³²⁾

이 인용문에 따르면, 물리적 영역과 정신적 영역은 각각 서로 다른 학문적 증거와 원천을 가지고 있으며, 그 증거와 원천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영역을 상호연결하는 법칙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추론이 타당하려면 두 가지가 해명되어야 한다. 물리적 영역과 정신적 영역 각각의 증거와 원천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증거와 원천의 차이가 두 영역을 연결하는 법칙의 불가능성을 함축하는가? 이 두 물음이 답해져야만 데이빗슨의 심물 무법칙성 논증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당한지를 검토할 수 있다. 따라서 심물 무법칙성 논의를 위해서는 이 문제가 반드시 해명되어야 한다.

인과에 관한 세 원리인 인과의 상호작용 원리, 인과의 법칙적 성격 원리,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은, 정신 인과에 관한 우리의 일상적 직관을 잘 반영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에 대해 데이빗슨이 제시한 정당화를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명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이는 본고의 III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32) Davidson, 1970a, p.222(국역본 p.369)

(2) 개별자 동일성 테제

이제 데이빗슨이 앞의 세 원리로부터 개별자 동일성을 어떻게 도출³³⁾하는지 보자. 인과적 상호작용의 원리에 따르면, 물리적 사건과 인과 관계를 맺는 정신적 사건이 있다. 이 정신적 사건 c 가 원인이 되어 어떤 물리적 사건 e 가 발생했다고 하자. 이때 c 는 정신적 사건이므로 c 를 지시하는 정신적 기술 Mc , 그리고 e 는 물리적 사건이므로 e 를 지시하는 물리적 기술 Pe 가 존재할 것이다. 이제, 인과의 법칙적 성격 원리에 따르면 c 와 e 를 포섭하는 엄격 법칙이 존재한다. 법칙은 언어적이므로, 두 사건을 포섭하는 엄격 법칙이 있다는 말은, 두 사건 각각에 대한 어떤 기술들로 이루어진 엄격 법칙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c 와 e 는 각각 엄격 법칙에 포섭되는 사건 기술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에 의해, Mc 는 정신적 기술이므로 엄격 법칙을 구성할 수 없다. 엄격 법칙에 포섭될 수 있는, c 에 대한 물리적 기술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c 는 정신적 기술과 동시에 물리적 기술을 가지는 사건이며, 다시 말해 c 는 정신적 사건이면서 동시에 물리적 사건이다. 이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물리적 사건의 원인이 되는 정신적 사건은 동시에 물리적 사건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결론은 물리적 사건의 결과가 되는 정신적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물리적 사건과 인과 관계를 맺는 정신적 사건은 인과의 법칙적 성격 원리에 따라 법칙에 포섭되는 기술을 가져야 하며,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 원리에 따라 법칙에 포섭되는 기술은 반드시 물리적 기술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데이빗슨이 무법칙적 일원론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세 원리는, 우리가 정신 인과에 대해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원리들로서, 일견 모순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위 논증은 사건 개별자와 사건 기술을 엄밀

33) 세 원리로부터 개별자 동일성 테제를 도출하는 이 증명은 데이빗슨(Davidson, 1970a, pp.223-224)의 논증을 재구성한 것이다. 데이빗슨은 세 원리가 참이라고 가정할 때, 개별자 동일성 테제는 이 세 원리로부터 도출되는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Davidson, 1970a, p.209, pp.223-224)

하게 구분하고, 법칙이 언어적 차원의 것임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모순적으로 보이는 이 세 원리들이 일관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원리들을 일관적으로 해석할 때, 이 원리들은 물리적 사건과 인과 관계를 맺는 정신적 사건은, 동시에 물리적 사건이기도 하다는 것, 다시 말해 물리적 사건과 인과 관계에 놓인 정신적 사건은 어떤 물리적 사건과 동일하다는 것을 함축한다.

(3) 형이상학적 쟁점들

지금까지 우리는 무법칙적 일원론의 세 전제가 무엇이고, 그로부터 개별자 동일성이 어떻게 귀결되는지 확인했다. 그 논증의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무법칙적 일원론은 기존의 심신 동일론과 많은 차이가 있고, 그 논의 방식도 난해한 부분이 많아, 다소 불분명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불명료함은 이후의 논의에서 오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장에서는 무법칙적 일원론에 관하여 오해가 발생하기 쉬운 세 가지 쟁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i) 무법칙적 일원론이 모든 정신적 사건에 대한 이론이 아니다. 데이빗슨은 무법칙적 일원론의 한계를 스스로 명확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물리적 사건과 인과적으로 연결된 모든 정신적 사건은 또한 물리적 사건이다. 무법칙적 일원론이 완전히 보편적인 이론임을 입증하려면, 정신적 사건은 모두 어떤 물리적 사건의 원인이나 결과라는 것을 보이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나는 이를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다.”³⁴⁾

이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무법칙적 일원론의 대상이 되는 사

34) Davidson, 1970a, p.224(국역본 p.372)

건은 물리적 사건과 인과 관계를 맺는 정신적 사건이다. 요컨대, 무법칙적 일원론은 일종의 조건적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³⁵⁾ 따라서 나는 이 글에서 무법칙적 일원론이 대상으로 삼는 정신적 사건, 즉 물리적 사건과 인과 관계를 맺는 정신적 사건에 논의를 한정할 것이다. 다만, 이제부터 편의상 ‘정신적 사건’이라는 용어를 물리적 사건과 인과 관계를 맺는 정신적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이 조건이 제시되었으므로, 편의상 앞으로는 추가적인 조건을 기술하지 않고, 무법칙적 일원론은 모든 정신적 사건은 물리적 사건과 동일함을 주장하는 이론이라고 말하도록 하겠다.

(ii) 형이상학적 주장과 인식론적 주장은 섬세하게 구분되어야 한다.³⁶⁾ 무법칙적 일원론이 주장하는 것은 정신적 사건과 물리적 사건이 형이상학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즉, 무법칙적 일원론에 따르면 정신적 기술을 가지는 사건은 동시에 물리적 기술도 가진다. 그러나 정신적 기술을 가지는 사건이 물리적 기술을 가진다는 것이, 우리가 그 물리적 기술을 알아야 한다거나 알 수 있음을 함축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시험을 잘 보고 싶어서 책을 샀고, 그 결과로 책이 집으로 배송되었다고 하자. 이때 시험을 잘 보고 싶음이라는 정신적 사건은 책이 집으로 배송됨이라는 물리적 사건의 원인이다. 따라서 무법칙적 일원론에 따르면 시험을 잘 보고 싶음이라는 정신적 사건은 물리적 기술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물리적

35) 물론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데이빗슨은 모든 정신적 사건이 결국은 물리적 사건과 인과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정신적인 사건이, 아마도 다른 정신적 사건과의 인과 관계를 거쳐, 물리적 사건과 인과적으로 교류할 것이다.”(Davidson, 1970a, p.208(국역본 p.349))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데이빗슨 스스로도 이러한 생각을 정당화하기보다 무법칙적 일원론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도 데이빗슨이 제시한 한계를 받아들여기로 한다.

36) 이는 데이빗슨이 자신의 철학 전반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행위 철학과 관련해서는 Davidson(1963), 인과론과 관련해서는 Davidson(1967a)를 보라.

기술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그 물리적 기술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사실이 무법칙적 일원론이 틀렸음을 함축하지도 않는다. 무법칙적 일원론이 주장하는 것은, 정신적 사건은 반드시 물리적 기술을 가진다는 것뿐이지, 우리가 그 사건을 물리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특정 정신적 사건에 대한 물리적 기술을 모른다는 것은 무법칙적 일원론에 대한 반론으로 성립할 수 없다.

(iii) 마지막 쟁점은 무법칙적 일원론의 형이상학적 편향과 관련되어 있다. 데이빗슨은 무법칙적 일원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법칙적 일원론도 존재론적 편향(bias)을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그 편향은 모든 사건이 다 정신적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사건이 물리적이라는 것은 고집스럽게 지킨다는 점에서의 편향일 뿐이다.”³⁷⁾

여기서 무법칙적 일원론이 존재론적 편향을 보인다는 것은, 무법칙적 일원론이 일종의 유물론³⁸⁾이라는 의미이다. 즉, 모든 정신적 사건은 물리적 사건이지만, 모든 물리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무법칙적 일원론은 유물론이며, 데이빗슨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형이상학적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말한 것이다.

그런데 이때의 형이상학적 편향은 정신적 기술이나 물리적 기술 중 한 기술에 우선성을 부여해주는 것은 아니다. 정신적 기술이나 물리적 기술은 우연히 동일한 외연을 가질 뿐³⁹⁾이며, 둘 중 한 기술이 그 사건에 더 본

37) Davidson, 1970a, p.214(국역본 p.357)

38) “무법칙적 일원론은 모든 사건은 물리적이라고 주장하는 점에서 유물론을 닮았다. 그러나 보통 유물론의 핵심 입장으로 간주되는, 정신적 현상들이 순수하게 물리적으로만 설명될 수 있다는 주장은 거부한다.”(Davidson, 1970a, p.214(국역본 p.357*))

39) 혼데리치 또한 이 우연성을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정신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 사이의 연결은 우연적이다. 정신적인 사건이 물리적이기도 한 사건이라는 데에는 어떠한 법칙적 필연성도 없다.” (Honderich, 1982, p.64)

질적이거나 덜 본질적이라는 함축은 어디에서도 도출되지 않는다.⁴⁰⁾ 오히려 무법칙적 일원론 하에서 정신적 술어는 물리적 술어로 환원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리적 술어로 대체될 수 없는 정신적 술어만의 가치를 가지며, 이는 물리적 술어 또한 마찬가지다. 따라서 무법칙적 일원론에서 정신적 술어와 물리적 술어는 각각, 서로로 대체될 수 없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40) 따라서 정신적 기술은 그 사건과 우연적 관계를 맺고, 물리적 사건은 그렇지 않다는 김영정(1996)의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 김영정은 여러 곳에서 일관적으로, 정신적 기술에 대해서는 사건이 정신적 기술을 **우연적으로** 가진다고 말하고, 물리적 기술에 대해서는 사건이 물리적 기술을 가진다고 말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연적으로 어떤 정신적 기술을 가지는** 한 개별적 사건은 동시에 물리적 기술도 함께 가져야 한다. … 따라서, 하나의 정신적 사건(**정신적 기술을 우연히 갖는** 개별적 사건)이 어떤 다른 물리적 사건(물리적 기술을 갖는 개별적 사건)과 인과적 상호 작용을 하는 경우에 그 정신적 사건은 어떤 물리적 기술을 동시에 가져야만 한다.” (김영정, 1996, p.222, 강조는 필자)

“…그 생각은 어떤 개별적 사건의 **우연적인 정신적 기술**로서 하나의 물리적 기술과 동연적이어야 한다. …어떤 개별적 사건의 **우연적인 정신적 기술**로서의 이 아픔은 하나의 물리적 기술과 동연적이어야 한다.”(김영정, 1996, p.223, 강조는 필자)

“…그저 **우연적으로** 혹은 기껏해야 수반적으로 높은 곳에 있다는 생각과 관계맺는 어떤 물리적으로 기술된 사건이 아니라”(김영정, 1996, p.226, 강조는 필자)

그러나 이는 무법칙적 일원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본문에서 말했듯, 무법칙적 일원론이 형이상학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말은 단지 무법칙적 일원론이 일종의 유물론임을 의미한다. 이 말은 물리적 기술이 사건에 본질적이라거나, 물리적 기술이 정신적 기술에 우선함을 함축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모든 사건이 물리적 기술을 가진다는 것을 말할 뿐이다.

물론 물리적 기술만이 법칙에 포섭될 수 있으므로 물리적 기술이 정신적 기술보다 사건에 더 본질적이거나 더 우선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 가능하려면, 법칙에 포섭되는 것이 왜 사건에 더 본질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를 먼저 해명해야 한다. 이런 해명이 없다면, 이는 무법칙적 일원론에 대한 적절한 해석도 아닐 뿐더러, 그 자체로도 설득력 있는 이론이라 할 수 없다.

III.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

무법칙적 일원론에서 개별자 동일성을 도출하기 위한 핵심 전제 중 하나는 바로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이다. 따라서 만약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개별자 동일성 또한 확보될 수 없다. 이러한 까닭에 데이빗슨이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을 어떻게 논증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무법칙적 일원론을 이해하는 데에 주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데이빗슨의 논증이 난해하여,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이 어떻게 정당화되는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시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빗슨의 논증이 무엇인지는 아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제기된 해석들은 모두 무법칙적 일원론을 적확히 해석해내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요컨대,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이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가에 대한 적확한 해석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III은 데이빗슨에게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이 어떻게 확보되는가라는 물음에 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1에서는 기존의 주요 해석들을 살펴보고, 이 해석들이 어떠한 문제 상황에 처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 검토를 통하여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 논제의 핵심은 데이빗슨에게 합리성이라는 구성적 이상이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있음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하여 2장에서는 데이빗슨에게 정신적인 것의 구성적 이상으로서 합리성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데이빗슨의 논변이 어떤 것인지를 재구성하도록 하겠다. 이 과정에서, 데이빗슨에게 합리성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의 해석이론에 대한 조망이 필요함이 밝혀질 것이다.

1. 기존 해석과 그 난점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면서⁴¹⁾ 데이빗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합리성이라는 구성적 이상”⁴²⁾이 정신적 영역에 대한 우리의 이론을 매 순간 제어하고 있으며, 심물 무법칙성은 “우리가 인간을 합리적인 동물로 생각하는 한 피할 수 없다.”⁴³⁾ 이를 통해 우리는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에 관한 한 가지 단서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합리성’이 모종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 문제가 혼재되어 있다. 데이빗슨이 말하는 ‘합리성’이 도대체 무엇인가? 합리성의 어떤 특징이 물리적인 것과 어떻게 구별되는가? 이 특징은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을 어떻게 도출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답해졌을 때 비로소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이 명료하게 밝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해석들은 이에 명료한 답을 아직 제시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해석들을 검토하는 것은, 어느 지점에서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는지, 또 어느 지점이 어려움의 보고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작업이다. 따라서 1에서는 데이빗슨이 말하는 ‘합리성’이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 특히 심물 무법칙성에 어떻게 기여하는가에 관한 대표적인 세 해석⁴⁴⁾을 검토함으로써,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 논의를 재구성함에 있어 무엇이 핵심적인 문제인지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1)에서는 김재권이 제안한, 심물 법칙이 있으면 양 영역의 구성적 원리가 손상된다는 점에서 심물 법칙은 없다는 입장의 해석을, (2)에서는 실제적 합리성 개념은 언제나 수정 가능하므로 법칙으로 포섭될 수 없다는 맥도웰의 해석을 검토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에서는 실천적 합리성이나 이론적 합리성의 영역에서 내려지는 결정에 관한 연역

41) ‘정신적 사건들’(Davidson, 1970a)에서의 논의를 의미한다.

42) Davidson, 1970a, p.223(국역본 p.370)

43) Davidson, 1970a, p.223(국역본 p.370)

44)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에 관한 대표적 해석을 선정한 것은 알로위츠(Yalowitz, 2012)의 검토를 반영한 것이다.

적 추론을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합리성은 법칙화 불가능하다는 차일드의 제안을 검토할 것이다.

(1) 구성적 원리의 손상 : 김재권

데이빗슨의 심물 무법칙성 논의에 대한 가장 유명한 해석 중 하나는 김재권(1985)의 해석이다. 김재권은 데이빗슨의 기본 생각을 아는 것은 일반적 견해와는 달리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⁴⁵⁾ 심물 무법칙성 논증의 핵심적인 문제는 데이빗슨이 제시한 정신적 영역과 물리적 영역 사이의 차이가 심물 무법칙성으로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⁴⁶⁾ 결론을 선점하자면, 김재권의 최종 대답은 다음과 같다. 법칙의 양상적 힘 때문에, 법칙적 연결을 가정하면 각 영역의 구성적 원리가 상대 영역을 오염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오염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심물 법칙은 불가능하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 김재권은 두 세부 논증을 펼친다. 첫째, 심물 법칙을 가정하면 물리적 영역의 구성적 원리가 정신적 영역을 오염시키고, 둘째, 심물 법칙을 가정하면 정신적 영역의 구성적 원리가 물리적 영역을 오염시킨다. 여기서 이 두 논증을 각각 살펴본 뒤, 김재권의 제안이 데이빗슨에 대한 적절한 해석인지 따져볼 것이다.

첫 번째 논증⁴⁷⁾을 먼저 보자. 이 논증은 심물 법칙을 가정하면 물리적 영역의 구성적 원리가 정신적 영역을 오염시킴을 보여주는 논증이다. 철수

45) “데이빗슨의 논증은 진지하게 고려하고 명료하게 만들려고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데이빗슨의 논증은 극도로 불명료하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하지만 데이빗슨 생각의 기저에 있는 일반적 흐름을 밝히는 것, 혹은 그 논증의 동기가 되는 기본적인 생각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Kim, 1985, p.370)

46) “우선 우리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을 규정하는 특성들의 긴 목록을 가지고 있다. 또 반대로,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것의 특성들로 이루어진 긴 목록도 가지고 있다. …그 논증의 본질은, 이러한 차이가 주어졌을 때 왜 상호연결적 법칙이 불가능한지 반드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Kim, 1985, p.372)

47) 이 논증은 김재권(Kim, 1985, pp.378-379)의 논의를 재구성한 것이다.

가 어떤 문장 s 를 발화했고, 철수가 s 가 참이라고 믿거나 믿지 않는다고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하자. 그리고 그 상황에서 철수가 s 가 참이라고 믿는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합리성 원리에 따라** 우리는 철수에게 <문장 s 를 참이라고 믿음>이라는 정신적 상태를 귀속시킬 것이다.

그러나 심물 법칙을 가정하면 철수에게 어떠한 정신적 상태를 귀속시킬 것인가는 합리성 원리가 아닌 다른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편의를 위하여 <문장 s 를 참이라고 믿음>이라는 정신적 상태를 m_1 , <문장 s 를 참이라고 믿지 않음>이라는 정신적 상태를 m_2 라고, 각각에 해당하는 정신적 술어를 M_1 , M_2 라고 하자. 그리고 심물 법칙으로, 정신적 술어 M_1 , M_2 는 각각 물리적 술어 P_1 , P_2 와 법칙적 동연 관계를 맺는다고 하자. 물리적 술어 P_1 , P_2 은 각각 물리적 상태 p_1 , p_2 를 가리킨다. 그런데 특정한 물리적 조건들이 갖춰질 때, 누군가가 특정한 물리적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특정한 귀속 조건이 충족되면, 특정한 물리적 상태에 있는 것이다. p_1 의 귀속 조건을 C_1 , p_2 의 귀속 조건을 C_2 라고 하자. 이때, 일정한 물리적 조건들이 특정 상태의 귀속 조건이라는 것은 그 조건들과 특정 상태 사이에 단순히 외연적 일치가 발생한다는 것을 넘어, 그들이 법칙적 관계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1) 필연적으로, C_1 이면 P_1 이다.

그런데 우리는 M_1 과 P_1 이 법칙적 동연 관계를 맺고 있음을 가정했다. 따라서 다음이 성립한다.

(2) 필연적으로, M_1 인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P_1 이다.

이제 (1), (2)로부터 다음이 도출된다.

(3) 필연적으로, C_1 이면 M_1 이다.

동일하게, C_2 와 M_2 의 관계에 대해 다음을 구성할 수 있다.

(4) 필연적으로, C_2 면 P_2 이다.

(5) 필연적으로, M_2 인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P_2 다.

(6) 필연적으로, C_2 면 M_2 다.

이제 우리는 (3)과 (6)을 얻었다. 이들은 각각 물리적 귀속 조건과 정신적 상태를 연결해주는 법칙으로, 이 법칙에 의하면 철수가 C_1 과 C_2 중 어느 귀속 조건을 만족시켰는지만 확인하면 철수가 s 를 믿는다고 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합리성 원리와 무관하게 철수에게 정신적 상태를 귀속시키게 되는 것이다. 김재권은 이것이 정신적 영역의 구성적 원리인 합리성의 원리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침해라고 말한다.

“이런 방식으로, 이 정신적 상태들은 정신적인 것의 구성적 원리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는 것처럼, 그래서 ‘(정신적인 것의)증거의 고유한 원천에 충실’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 정신적 상태들은 더 이상 정신적 상태가 아니다. 왜냐하면, 합리성 극대화 규칙에 따르는 것이 지향적 상태의 본질이며, 이 규제가 없으면 내용이 있는 지향적 상태를 귀속시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이 데이빗슨의 주장이기 때문이다.”⁴⁸⁾

이 인용문에서 김재권은 이것이 왜 용납할 수 없는 침해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데이빗슨에 따르면 합리성 원리를 따르는 것이 지향적 상태들의 본질적 특성이므로, 어떤 상태가 더 이상 합리성 원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 상태를 지향적 상태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물리적 귀속 조건에

48) Kim, 1985, p.379

의해 귀속되는 지향적 상태는 더 이상 지향적 상태라고도 할 수 없고, 따라서 정신적 상태가 아니다. 이로부터 김재권은 다음과 같이 결론짓는다. 심물 법칙을 가정하는 것은 정신적 상태가 더 이상 정신적 상태로 남아있을 수 없을 정도의 허용할 수 없는 ‘오염’을 허용하므로, 심물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논증은 심물 법칙을 가정하는 것이 정신적 영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잘 보여줬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물론 김재권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법칙적 양상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이 비판은 다음과 같이 정식화된다. 김재권은 (1)과 (4)에 나타나는 양상성이 “논리적 필연성이며, 이 논리적 필연성은 법칙적 필연성을 함축한다”⁴⁹⁾고 말하고 있는데, 엄격 법칙인 (1)과 (4)에 논리적 필연성을 가정하는 것은 물리 법칙에 대한 잘못된 주장이다. 실제로 법칙적 양상성은 논리적 필연성이 아님은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⁵⁰⁾ 그러나 이는 (1)과 (4)가 어떠한 문장들인지를 적절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은 비판이다. (1)을 다시 보자.

(1) 필연적으로, C_1 이면 P_1 이다.

여기서 C_1 은 물리적 귀속 조건이고, P_1 은 물리적 술어다. 즉, (1)은 특정한 물리적 조건이 갖춰지면 특정한 물리적 술어를 적용하라는 주장이며, 따라서 일종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1)에서 C_1 과 P_1 은 일종의 개념적 관계에 놓여 있으며, 이렇게 본다면 (1)의 필연성을 논리적 필연성으로 보는 것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인다.

49) Kim, 1985, p.379

50) 데이빗슨이 법칙적 진술의 사례로 제시한 “에메랄드는 녹색이다”(Davidson, 1966, p.226)를 보라.

김재권이 제안한 두 번째 논증⁵¹⁾은 심물 법칙을 가정하면 합리성 원리가 물리적 영역의 구성성을 침해함을 보이는 논증이다. 영희의 나이가 10살 이상이라는 명제를 p , 영희의 나이가 8살 이상이라는 명제를 q 라고 하자. 데이빗슨이 정신적 영역의 구성적 원리로서 합리성을 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김재권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합리성 극대화 규칙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믿음 p 를 귀속시킬 때마다 그 사람에게 믿음 q 역시 귀속시킬 것을 요구한다.”⁵²⁾

“이 의존성의 근거는 합리성 극대화 원리이다. 사실 이 원리는 다음과 같은 보다 세부적인 원리, 누군가에게 이미 귀속된 믿음의 명백한 논리적 귀결 역시 그의 믿음으로 귀속시키라는 원리를 허가할 것이다.”⁵³⁾

이 인용문에 따르면 누군가의 믿음의 명백한 논리적 결과들은 모두 그에게 귀속해야 한다. 그런데 p 와 q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논리적 함축 관계가 성립한다.

$$(7) p \rightarrow q$$

따라서 누군가에게 p 라는 믿음을 귀속시킬 경우, 우리는 그가 q 도 믿는다고 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반사실문을 구성할 수 있다.

(8) 임의의 주체 S 에 대하여, S 가 p 를 믿는다. $\Box \rightarrow S$ 가 q 를 믿는다.⁵⁴⁾

그런데 이 두 믿음 p 와 q 가 각각 물리적 상태 B_1 , B_2 와 법칙적 동연관계

51) 이 논증은 김재권(Kim, 1985, pp.380-381)의 논증을 재구성한 것이다.

52) Kim, 1985, p.380

53) Kim, 1985, p.380

54) 가정법 문장과의 쉬운 구분을 위하여 반사실문 연산자('□→')는 Lewis(1973a)의 표기를 따른다.

를 맺는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심물 법칙이 성립한다.

- (9) 필연적으로, S 가 p 를 믿는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S 는 B_1 상태에 있다.
- (10) 필연적으로, S 가 q 를 믿는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S 는 B_2 상태에 있다.

이제, (8), (9), (10)으로부터 B_1 과 B_2 사이의 의존성이 도출된다.⁵⁵⁾

- (11) S 가 B_1 상태에 있다. $\square \rightarrow S$ 가 B_2 상태에 있다.

(8)는 믿음의 귀속에 관한 반사실문으로, 이 반사실문은 합리성의 원리에 근거한다. 반면 (11)는 물리적 상태에 관한 반사실문으로, 합리성이 아닌 물리적 영역의 구성적 원리에 근거해야 하는 것이다.⁵⁶⁾ 그러나 이 논증에서 (11)은 (8), (9), (10)로부터 도출된 것으로, (11)에서 나타나는 물리적 상태 사이의 의존 관계는 (8)의 근거가 되는 합리성의 원리에서 파생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재권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나 이는 터무니없는 결론이다. 순전히 물리적인 의존성을 믿음에 대한 합리성의 고려를 통해 근거 짓는 것은, 물리 이론의 완결성과 포괄성에 대한 용납 불가능한 침해로 봐야 할 것이다.”⁵⁷⁾

55) 이 도출에 관해서는 김재권의 다음 언급을 보라.

“반사실문이 포함된 추론은 까다롭다. 그러나 (5), (6), (7)이 모두 주어졌을 때 다음을 끌어낼 수 있음은 가정할 수 있다.” (Kim, 1985, p.380)

56) 김재권은 물리적 영역의 구성적 원리는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리적인 것의 본질적 특징은 무엇인가? 나는 그냥 합리성의 부재를 물리적인 것의 구성적 요소로 봐도 된다고 믿는다.” (Kim, 1985, p.377)

57) Kim, 1985, p.381

이 인용문에 따르면, 물리적 상태 사이의 의존 관계를 합리성의 원리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는 것은, 물리적 영역의 구성성 뿐 아니라 완결성과 포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요컨대 (9), (10)와 같은 심물 법칙이 가능하다면 물리이론에 관한 용납할 수 없는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김재권은 다음과 같이 결론내린다. 우리는 심물 법칙을 받아들일 수 없다.

엄격 심물 법칙을 가정했을 경우에 두 영역에 어떠한 침해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김재권의 논증은 심물 무법칙성을 확보하는 독자적 이론의 후보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논증을 데이빗슨의 무법칙성 논증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김재권은 합리성의 원리를 믿음의 내적 규제 원리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앞의 (8)을 다시 보자.

(8) 임의의 주제 S 에 대하여, S 가 p 를 믿는다. $\square \rightarrow S$ 가 q 를 믿는다.

김재권에 따르면 (8)은 합리성의 극대화 원리에 의해 지지된다.

“이 의존성의 근거는 합리성 극대화 원리이다. 사실 이 원리는 다음과 같은 보다 세부적인 원리, 누군가에게 이미 귀속된 믿음의 명백한 논리적 귀결 역시 그의 믿음으로 귀속시키라는 원리를 허가할 것이다.”⁵⁸⁾

이 인용문에 따르면, 합리성 극대화 원리는 믿음 귀속에 관한 상세한 원리들을 보장한다. 그리고 그 상세한 원리들은 (8)와 같은 반사실문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모종의 양상적 힘을 지닌 진술일 것이다. 실제 사례들에 의해서 확증되고 반사실문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이 양상적 힘을 법칙적

58) Kim, 1985, p.380

양상성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이제 (8)를 지지하는 원리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된다.

(12) 법칙적으로, S 가 p 를 믿는다면 S 는 q 를 믿는다.

그러나 (12)과 같은 법칙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첫째, 데이빗슨은 정신적 술어가 포함된 어떠한 형태의 엄격 법칙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믿음 귀속에 관한 이러한 법칙을 가정하는 것은 데이빗슨의 논의와 배치된다. 이에 대해 알로위츠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제 데이빗슨이 (1)⁵⁹의 예외없음 상태를 받아들일 것인지를 물을 때가 된 것 같다. 내 생각에 그 답은 ‘아니다’일 것이다. 사람의 믿음에 대해 연역적 완결성을 요구하는 데에는 당연히 명백한 어려움이 있다. 만약 누군가가 ‘ p ’임을 믿는다고 말해진다면, 그 사람은 ‘ p ’의 모든 논리적 귀결들을 믿을 것이라고 하는 데에도 명백한 어려움이 있다. …더 일반적으로,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핵심을 말하자면, 데이빗슨은 합리성의 기본 원리들에 대한 어떤 목록도 없다고 주장한다.”⁶⁰

이 인용문에서 알로위츠가 말하고 있듯, 데이빗슨은 정신적 상태들을 귀속시킬 구체적인 개별 원리들을 구성할 수 있는 목록은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12)과 같은 믿음 귀속에 관한 상세한 원리는 데이빗슨의 논의와 비일관적이다.

물론 김재권은 다음과 같이 반박할 수 있다. 첫째, 합리성 극대화 원리에서 보장하는 것은 기존 믿음의 모든 귀결도 믿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 믿음의 **명백한** 귀결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알로위츠의 비판은 다소 부당해 보인다. 특정 믿음 p 를 이미 가진 사람에게,

59) 이때 (1)은 알로위츠가 재구성한 김재권의 전제, “(p 가 q 를 논리적으로 함축할 때)만약 S 가 p 를 믿었다라면, S 는 q 또한 믿었을 것이다.”(Yalowitz, 1997, p.237)를 가리킨다.

60) Yalowitz, 1997, p.241

p 의 모든 귀결도 믿음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p 의 명백한 귀결을 받아들이는 것은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철수가 10살 이상이라고 믿고 있다면, 그는 당연히 철수가 8살 이상이라고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 의문은 일견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믿음 귀속에 관한 일반적 규칙들을 생각해보자. 만약 누군가가 p 와 $(p \rightarrow q)$ 를 믿는다면, 그 사람은 q 를 믿어야 한다. 또, 만약 누군가가 p 와 q 를 믿는다면, 그는 p 도 믿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p 와 q 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면, 누구도 p 와 q 를 동시에 믿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규칙들은 우리에게 기존 믿음의 논리적 함축들도 믿음으로 귀속시켜야 한다고 말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차일드가 지적하듯, 상황은 그렇게 단순치 않다.

“(a) “만약 당신이 $(p \rightarrow q)$ 와 p 를 믿는다면, 당신은 q 를 믿어야 한다.” …(a)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 $(p \rightarrow q)$ 와 p 를 믿는 실제 상황에 직면한 경우를 생각해보라. 다양한 대응이 가능하다. 그는 아마도 q 를 믿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동일하게, 그 사람이 만약 q 가 참이 아니라고 생각할만한 독립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 $(p \rightarrow q)$ 나 p 중 하나를 버릴 것이다. (a)와 같은 원리는, 그 자체로는,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사람들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결정해주지 않는다.”⁶¹⁾

이 인용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누군가가 p 와 $(p \rightarrow q)$ 를 믿는다고 해서, 그가 믿음 q 를 곧바로 귀속시킬 수는 없다. 정신적 영역의 전체주의적 면모 때문에, 그의 두 믿음 p 와 $(p \rightarrow q)$ 만으로는 다른 믿음도 그가 가지고 있다고 추론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 우선 그가 p 와 $(p \rightarrow q)$ 로부터 q 가 논리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하며, q 를

61) Child, 1993, p.219

믿지 않아야 할 다른 독립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도 확인해야 한다. 만약 논리적 도출에 관한 믿이 없는 사람이라면, p 와 $(p \rightarrow q)$ 를 모두 믿고 있더라도 q 를 믿지 않는 것이 가능하며, q 를 믿지 않아야 할 독립적인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p 와 $(p \rightarrow q)$ 중 하나 이상의 믿음을 버리는 쪽으로 결론내릴 수도 있다. 요컨대, 단순한 논리적 함축 관계만으로는 믿음 귀속 원리를 구성할 수는 없다. 누군가가 어떤 믿음을 가진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과 논리적 관계를 맺는 다른 믿음들, 그 믿음을 지지하거나 부정하는 다른 믿음이나 욕구들을 모두 고려해야만 하며, 이러한 믿음이나 욕망을 모두 고려하는 유한한 믿음 귀속 원리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물론 김재권은 다음과 같이 반박할 수도 있다. 이미 가진 믿음의 명백한 귀결마저도 귀속할 수 없는 경우가 가능하다는 것은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8)에서의 S 는 무작위적 인간이 아니라 합리적 인간을 의미한다. 요컨대, (8)을 보다 명료하게 기술하면 다음이 된다.

(13) 임의의 합리적 주체 S 에 대하여, S 가 p 를 믿는다. $\square \rightarrow S$ 가 q 를 믿는다.

여기서 ‘합리적’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 합리적이라거나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할 때의 그 합리성을 의미할 것이다. 그렇다면 (13)은 모든 인간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합리적 인간에 관한 주장이 된다. 요컨대, 이러한 입장이라면 김재권은 데이빗슨의 ‘합리성’을 합리적이지 못한 인간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의 합리성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이는 두 가지 의미에서 데이빗슨과 충돌한다. 첫째, 데이빗슨에게 ‘합리성’은 모든 인간을 해석하기 위한 원리로, 이때 ‘합리적’이지 않은 인간에 대해서 우리는 그가 정신적 영역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조차 없다. 데이빗슨에게 이 원리는 인간이 틀렸다고 비판을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원리다.⁶²⁾

62)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거나 뭔가 불합리하다고 우리가 의미 있게 비난할 수 있는 처지

따라서 김재권의 ‘합리성’은 데이빗슨의 ‘합리성’과 다른 의미라 할 수 있다. 둘째, 만약 이때의 ‘합리성’이 데이빗슨이 말한 바의 의미라면, (13)은 옳지 않다. 예를 들어, 철수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5시간이 걸린다고 믿는다고 하자. 그리고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이동 시간이 100시간 이하라는 것은 이동 시간이 5시간임의 명백한 귀결이다. 이때 철수는 다른 일상 생활은 무리 없이 진행하지만 고등교육을 받지 못해 100이 어떤 수인지를 모른다고 하면, 철수에게 이 귀결을 귀속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그러나 이 경우 철수는 특정한 믿음을 가졌다는 점에서 데이빗슨 식의 ‘합리적’인 사람이다. 따라서 (13)의 ‘합리적’을 데이빗슨의 의미대로 받아들였을 경우, (13)은 성립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김재권이 제안한 논증은 데이빗슨에 대한 성공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없음이 밝혀졌다. 심물 무법칙성에 대한 독립적인 논증으로서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나, 첫째, 심심 무법칙성에 관하여 데이빗슨과 비일관적인 지점이 분명히 존재하며, 둘째, 이 비일관성으로 인하여 데이빗슨이 심심 무법칙성을 어떻게 확보하는가를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재권의 실패로부터 데이빗슨의 논의를 이해하기 위해 우선 해명되어야 하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합리성이다. 앞의 논의로부터 합리성이 믿음의 단순한 내적 규제 원리는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합리성이 무엇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이 합리성 개념에 주목한 맥도웰의 해석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2) 합리성 개념의 수정 가능성 : 맥도웰

에 있을 수 있으려면 그런 믿음은 불가피하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태도와 행위에서 정합적이고 그럴 듯한 유형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만큼, 솔직히 우리는 그들을 사람으로 취급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Davidson, 1970a, p.221(국역본 p.368))

맥도웰은 합리성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해명해야 데이빗슨이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을 어떻게 논증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⁶³⁾ 합리성은 정신적인 영역에 대한 구성적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 구성적 힘이야말로 데이빗슨이 심물 무법칙성을 주장하는 핵심 근거라는 것이다.

합리성이 정신적 영역에서 구성적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정신적 영역을 구성하는 원리를 합리성이 제공한다는 말이며, 이는 사람의 행동이나 발화를 믿음이나 욕구 등을 통해 이해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데에 합리성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다. 김재권⁶⁴⁾이나 로어⁶⁵⁾는 이 합리성이 믿음 사이의 내적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일종의, 믿음에 한정된 내적 정합성 규제 원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맥도웰은 이는 데이빗슨에 대한 틀린 해석이라고 말하고 있다.⁶⁶⁾ 데이빗슨이 말하는 합리성은 단순한 내적 정합성 규제 원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맥도웰이 생각하는 합리성은 무엇인가? 합리성을 믿음 사이의 내적 정합성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보면, 합리성은 믿음 사이의 관계만을 고려 대상으로 삼게 된다. 이때 합리성의 세부 원리들은 개별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 믿음 사이의 관계만을 표현할 것이다. 예컨대, 이 원리는 다음과 같은 꼴을 가지게 될 것이다. 누군가가 p 와 $(p \rightarrow q)$ 라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는 q 라는 믿음도 가질 것이다. 여기서 p 와 q 가 각각 어떤 내용을 대변할 것인가는 이 원리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

맥도웰은 바로 이 점에서 믿음의 내적 정합성 규제 원리는 데이빗슨이 말하는 합리성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합리성은 누군가를 이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원리다.

63) “데이빗슨은 합리성의 구성적 역할이 ‘물리주의자’의 환원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보고 있다...” (Mcdowell, 1985, p.388)

64) Kim, 1985

65) Loar, 1981

66) “Loar가 정신에 관한 그의 그림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선험적 합리성 제약’이 ‘믿음에 대한 합리성의 내적 규제’로 제한된다는 점은 Loar가 얼마나 데이빗슨과 거리를 두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제한은, 말하자면, 우리를 합리적 정신의 내부를 규정짓는 구조에 한정하는 것이다.” (Mcdowell, 1985, p.388)

“여기에서, (예컨대) 의도적 행위에서 이성적 정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관한 요구사항들과 같은 것은 배제된다. …이것은 다음을 의미한다. 데이빗슨은 합리성의 구성적 역할이 ‘물리주의자’의 환원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보고 있는데, 로어는 그 장애물을 다루려고 하면서 이 장애물이 후자의 영역에서도 작동하고 있다는, 예컨대 명제적 태도가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 행동을 어떻게 야기해야만 하는가를 물을 때 드러나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데이빗슨의 제안을 무시하는 것이다.”⁶⁷⁾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행위할 때, 그는 스스로를 이러저러한 믿음과 욕구를 가지고 행위하는 자로 드러내고 있으며, 이 때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믿음이나 욕구가 행위를 어떻게 합리화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러한 합리화에는 해당 **믿음이나 욕구의 내용**이 필수적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합리성 개념에는 행위자의 믿음이나 욕망의 내용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

맥도웰의 이러한 해석은 데이빗슨의 합리성 개념을 잘 반영하는 것처럼 보인다. 합리성이라는 구성적 이상 하에서 사람을 해석한다는 것, 사람의 정신적 영역을 해석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데이빗슨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그의 태도와 그의 말에 동시에 내용을 주는 것이다. 그를 뜻이 통하는 사람으로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물론 모두 우리 자신의 관점에서) 그가 **일관적이고, 참된 것을 믿으며, 좋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이론에 도달하려고 한다.”⁶⁸⁾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데이빗슨에게 해석의 이상이 되는 합리성이란 단순히 일관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해석 대상의 믿

67) Mcdowell, 1985, p.388

68) Davidson, 1970a, p.222 (국역본 p.369) (강조는 필자)

음이 참이라는 것, 그리고 그의 욕구가 바람직한 것이라는 것임도 포함된다. 이러한 지점에서 맥도웰은 합리성이라는 데이빗슨의 인간 해석의 이상을 잘 해석했다고 할 수 있다.

맥도웰은 합리성에 대한 이 해석을 바탕으로, 누군가의 합리성 개념 (“one’s conception of rationality”⁶⁹⁾)을 아는 것, 이 합리성 개념이 밝혀지는 것이 왜 그 사람의 행위를 이해 가능하게 하는지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누군가의 합리성 개념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의 행위를 합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합리성 개념에 대한 이 관점은 합리성 개념의 수정가능성을 함축한다.

“초기의 어려움 이후에, 행위나 명제적 태도가 이해가능함을 아는 것은, 누군가의 합리성 개념의 함축된 부분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합리성 개념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확신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이해가능함의 새로운 방식의 자리를 만드는 것도 실제로 포함한다.”⁷⁰⁾

누군가의 행위나 명제적 태도가 이해되려면 그 사람의 합리성 개념 중 많은 부분이 밝혀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행위나 명제적 태도가 이해 가능한 대상임을 아는 것은, 그 행위나 명제적 태도가 칭찬이나 비판이 가능한 대상임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의 행위나 명제적 태도를 비난하는 것은 그의 믿음이나 욕구의 내용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요컨대, 누군가의 행위나 명제적 태도가 이해 가능한 대상이라는 것은, 그의 합리성 개념이 수정 가능한 대상임을 함축한다.

그런데 누군가의 합리성 개념을 비판할 수 있다는 것, 그의 합리성 개념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평가에 관한 모종의 기준이 있음을 의미한다. 맥도웰은 이상적 합리성 개념이 이 기준이 되어준다고 말한

69) Mcdowell, 1985, p.392

70) Mcdowell, 1985, p.392 (강조는 필자)

다.

“만약 우리가 그들⁷¹⁾을 초월하는 이상의 설명적 힘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왜 이해 가능한 것의 경계 너머에 일종의 위반 조항들이 있으리라는 생각에 의해 설명되는 그런 상태가 그들에게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⁷²⁾

요컨대, 누군가의 합리성 개념에 모종의 위반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리라는 생각, 그래서 그것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그 조항들이 위반된다고 말해줄 수 있는 이상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즉, 이상적 합리성 개념이 필요하다.

가치나 도덕, 진리에 대해 가장 탁월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런 사람의 믿음, 욕구, 가치 등에 관해 함축적 부분까지도 모두 명시적으로 드러내어 어떤 합리성 개념의 표준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리성 개념은 수정 가능하다. 인식적 한계 때문일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하는 변화 때문일 수도 있다. 중요한 점은, 인간이 실제로 예화하는 그 개별 합리성 개념은 언제나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 개별 합리성 개념은 이상적 합리성 개념이 아니다. 맥도웰은 실제의 합리성 개념이 이상적 합리성 개념이 아니며, 이상적 합리성 개념은 포착할 수 없다는 사실은 합리성 개념을 연역 법칙으로 설명하거나 예측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한다.

“실제와 이상의 이 다양한 차이가, 합리성 개념의 개별화에 귀속될 수 있는 어떤 구성적 힘도 연역적 추론으로 될 수 없도록 만드는 것 같다.”⁷³⁾

“연역적 합리성의 어떤 구체적인 사례도, 무엇이 무엇으로부터 일반적으로 도출되는지에 관한 불완전한 이해를 구체화할 것이라고 나는 이미 지적했다.

71) 개별적 합리성 개념을 가리킨다.

72) McDowell, 1985, p.391

73) McDowell, 1985, p.389

실제와 이상의 차이는, 합리성 개념의 이 사례를 통해 보여지는 어떤 구성적 힘도 연역적 추론 구조 그 자체로 확장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데이빗슨의 논증에 필요한 것이라고 내가 말해왔던 것이다.”⁷⁴⁾

이 인용문에서 맥도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개인이 가지는 개별적 합리성 개념은 수정 가능하다. 그리고 그 개별적 합리성 개념에 부여되는 구성적 힘 역시 수정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성적 힘을 연역적 추론에 포함되는 법칙의 구조를 갖춘 것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실제 합리성 개념은 언제나 수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엄격 법칙에 의해 포착될 수 없다.

알로위츠는 맥도웰의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우리가 합리성 개념을 바꾼다는 점에서, 그리고 어떻게 바뀌는가라는 점에서 심리적 상태는 미리 예측될 수 없고, 따라서 합리성은 엄격 법칙의 형식인 변치 않는 원리들에 의해 포착될 수 없다고 맥도웰은 주장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합리성은 법칙화될 수 없다. 맥도웰에 따르면, 이것이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⁷⁵⁾

이제 맥도웰의 해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맥도웰에 따르면 데이빗슨의 합리성 개념은 믿음의 단순한 논리적 형식 체계뿐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욕구, 가치 등의 전반적 태도를 모두 포함한다. 이 합리성 개념을 파악함으로써 인간의 행위는 이해가능하게 되는데, 이때 개별 인간의 합리성 개념은 언제나 수정 가능하다. 합리성 개념이 언제나 수정 가능하다는 것은, 합리성이 가변적이지 않은 원리에 의해서는 포착될 수 없음을 의미하며, 이는 합리성 개념이 엄격 법칙에 의해서는 포착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합리성 개념이 정신적인 영역을 구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정신적 영역 자체가 엄격 법칙에 의해 포착될 수 없다. 이로

74) Mcdowell, 1985, p.389

75) Yalowitz, 2012

부터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이 도출된다.

그러나 맥도웰의 해석에는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도, 합리성에 대한 맥도웰의 해석이 데이빗슨의 논의와 일관적이지 않다. 맥도웰은 합리성 개념이 개별 인간의 믿음, 욕망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며, 따라서 개별적으로 예화되고, 예화된 합리성 개념은 언제나 수정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두 가지 이유에서 데이빗슨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첫째, 데이빗슨에게 합리성은 개별 인간의 믿음, 욕망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별 인간의 정신적 체계의 총체가 아니다. 데이빗슨은 합리성이 정신적 영역의 구성적 이상이며, 이는 인간이 다른 인간을 이해가능한 대상으로 보기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원리라고 말한다.

“행동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구성 작용은 다른 사람들을 우리 자신과 거의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그 뿌리로 삼고 있다.”⁷⁶⁾

“...불일치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우리는 그것이 우리 자신과 일치하는 믿음과 동기의 유형을 가진다고 가정해야 할 것이다. 일관성과 합리성의 기준을 비롯한 이러한 조건들은 확실히 더 날카로워지고 더 객관적으로 될 수 있다.”⁷⁷⁾

“정신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 사이가 법칙적으로 느슨한 것은 우리가 인간을 합리적인 동물로 생각하는 한 피할 수 없다.”⁷⁸⁾

이 인용문들에서 정신적 영역의 구성 원리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타인의 행위나 발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해석자는 해석 대상이 이해 가능할

76) Davidson, 1974a, p.239(국역본 p.390)

77) Davidson, 1973a, p.259(국역본 p.418)

78) Davidson, 1970a, p.223(국역본 p.370)

정도로 일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가정해야 한다. 이는 해석자가 해석 대상과 자기 사이에 믿음이나 욕구에서의 일치가 어느 정도는 있으리라고 가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런 가정은 우리가 누군가의 행위를 이해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데이빗슨에게 합리성은 우리가 타인이 이해 가능할 정도로 일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가정해야 한다는 바로 그 원칙을 가리킨다. 따라서 합리성은 개별 믿음이나 욕구의 총체가 아니며, 맥도웰은 데이빗슨의 합리성 개념을 제대로 해석했다고 볼 수 없다.

둘째, 맥도웰은 합리성 개념이 수정된다고 말하지만 이는 데이빗슨의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다음 인용문을 보자.

“합리성이라는 구성적 이상이, 진화 중에 있음이 틀림없는 한 이론의 진화의 매 국면을 부분적으로 제어한다.”⁷⁹⁾

이 글에서 데이빗슨은 합리성은 정신적 영역의 구성적 이상이며, 변화하는 것은 합리성이 아니라 이론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이론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은 다음 구절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태도들에서 시작해서 그가 의미하는 것에 대한 이론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곧 그의 태도와 그의 말에 동시에 내용을 주는 것이다. …우리는 그가 일관적이고 참된 것을 믿으며, 좋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이론에 도달하려고 할 것이다.”⁸⁰⁾

여기서 데이빗슨은 발화 행위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누군가가 특정한 문장을 발화했을 때, 그의 발화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가 그 문장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 예컨대 그 문장을 참이라고 믿고 있다거나, 그 문장이 참인 것으로 믿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드러내기를 의도했다거나 하는 발화자의 태도와 발화자가 그 문장을

79) Davidson, 1970a, p.223(국역본 p.370 강조는 필자)

80) Davidson, 1970a, p.222(국역본 p.369)

통해 의미하는 바를 동시에 해석해내야 한다. 이 해석이 바로 이론이다. 이를 행위 일반으로 확장하면, 행위자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우리는 그 행위와 관련된 행위자의 태도나 믿음을 해석함으로써 그를 의도적 행위자로 이해한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수정된다. 요컨대, 정신적 영역에서 수정되는 것은 행위자의 개별 행위에 대한 해석이지 합리성 개념이 아니며,⁸¹⁾ 따라서 합리성 개념이 수정 가능하다는 맥도웰의 주장은 데이빗슨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 아니다.

물론 이 비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론할 수도 있다. 맥도웰에게 수정의 대상이 되는 합리성은 개별적 합리성이지, 이상적 합리성이 아니다. 맥도웰은 적어도 이상적 합리성에 한해서는 수정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이상적 합리성이 바로 데이빗슨의 합리성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은 맥도웰의 이상적 합리성과 데이빗슨의 구성적 이상으로서의 합리성의 중요한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 우선, 맥도웰에게 이상적 합리성이란, 모든 개별적 합리성을 “초월하는 이상의 설명적 힘”⁸²⁾을 가진 것으로, 믿음, 욕구, 가치 등에 관한 가장 이상적인 어떤 총체적 체계를 의미한다. 반면 데이빗슨의 합리성은, 타인의 정신적 체계를 구성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 자신과 거의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⁸³⁾는 것이며, 타인의 신체적 움직임을 이해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우리 자신과 일치하는 믿음과 동기의 유형을 가진다고 가정해야”⁸⁴⁾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데이빗슨에게 합리성은 **해석자가**, 해석 대상과 자기 자신 사이에 믿음, 욕구, 가치 등에 대한 광범위한 일치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과 관련되며, 맥도웰의 이상적 합리성은 **개별 해석자와 무관한**,

81) 알로워츠 역시 동일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빗슨은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행위자에 대한 현재의 해석을 수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합리성의 **표준**을 바꾼다거나 합리성 개념 자체가 명료화될 수 없다는 얘기는 없다.” (Yalowitz, 2012)

82) McDowell, 1985, p.391

83) Davidson, 1974a, p.239(국역본 p.390)

84) Davidson, 1973a, p.259(국역본 p.418)

믿음, 욕구, 가치 등에 대한 그 자체로 이상적인 어떤 총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맥도웰의 이상적 합리성을 고려하더라도, 맥도웰은 데이빗슨의 합리성 개념을 정확하게 해석했다고 할 수 없다.⁸⁵⁾

결론적으로, 맥도웰의 해석은 성공적이지 않다. 맥도웰이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에 핵심적이라고 생각한 것인, 합리성이 개별 인간이 가지는 믿음과 태도의 총체로 예화되며, 이 예화된 합리성 개념은 언제나 수정 가능하다는 점은 데이빗슨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맥도웰의 이상적 합리성 개념 또한 해석자와 무관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데이빗슨의 합리성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데이빗슨에게 합리성은 타인이 일정 정도의 합리성을 가졌다고 가정해야 하는, 해석이 가능하기 위한 원리이며, 따라서 수정 가능한 대상도, 해석자와 무관한 이상적 총체도 아니다. 그러므로 데이빗슨이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을 어떻게 논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합리성의 이러한 특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3) 합리성의 법칙화 불가능성 : 차일드

앞 장에서 검토한 맥도웰의 실패로부터 합리성에 대한 한 가지 단서를 얻을 수 있다. 데이빗슨에게 합리성은 행위를 이해하기 위한, 해석의 전제

85) 이에 대해 데이빗슨의 합리성 개념 역시 일종의 보편적 기준을 가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해석자 본인이 자기 판단이 틀렸을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고, 해석자가 기준이 된다는 것이 해석자마다 고유의 기준을 가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석자들 사이에 공유될 수 있는 어떤 보편적 기준이 있음을 가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반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데이빗슨이 합리성과 이 주장들이 일관적인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설사 해석자 본인이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고, 해석자들끼리 공유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개별 해석자와 무관한 어떤 이상적인 합리성 개념이 있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반론은 추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두겠다.

조건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합리성이 행위를 어떻게 해석 가능하게 하는가, 행위의 이유가 되는 믿음이나 욕구를 행위자에게 어떻게 귀속시키는가를 확인해야 데이빗슨의 합리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차일드는 바로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안하고 있다.

차일드는 누군가에게 믿음, 욕구 등의 정신적 상태를 귀속시키는 일은 일종의 해석이며, 이 해석을 구성하는 원리가 합리성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데이빗슨은 신체적 움직임만으로는 그 사람이 특정한 정신적 상태에 있음을 도출해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둘 이상의 정신적 상태가 특정한 신체적 움직임과 일관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특정한 정신적 상태를 귀속시킬 때, 그 정신적 상태는 그의 신체적 움직임으로부터 연역적으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해석자가 그의 신체적 움직임을 해석한 것이다.⁸⁶⁾ 그리고 이 해석 작업은 합리성이라는 구성적 원리를 따라야 한다.

차일드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이 논변한다. 해석이 합리성이라는 구성적 원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은, 특정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이러저러한 정신적 상태에 있다는 해석이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특정한 물리적 상황⁸⁷⁾에 있는 행위자에 대해 우리가 다음과 같이 판단할 때,

(1) 상황이 *C*라면 사람 *S*가 정신적 상태 *m*을 가진다.

86) “그럼에도 물리적 작용에 대해 상세히 아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는 <아트>가 화가 났다거나 그는 베토벤이 반에서 죽었다고 믿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없다. 이런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아트>의 거시적 움직임을 관찰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간에 대해 결정내리는 그 방식이다.”(Davidson, 1973a, p.250(국역본 p.406)) (강조는 필자)

87) 다음 인용에서 차일드는 ‘상황’으로 그 시점에 사람 *S*가 가지는 물리적 속성을 의미함이 확인된다.

“... 다음이 따라나온다. 어떤 행위자의 물리적 속성에 대한 상세한 기술로부터 그 행위자의 정신적 속성에 대한 완전하고 상세한 기술을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일반 원리는 없다.”(Child, 1993, p.219)

이 판단은 다음 판단이 선행될 때에만 가능하다.

(2) 상황이 C 라면 사람 S 가 정신적 상태 m 을 가지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그러한 정신적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에만 비로소 우리는 그가 그 상황에서 바로 그 정신적 상태를 가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2)와 같은 판단은 합리성의 영역에 속해 있다. 따라서 만약 합리성이 법칙적으로 체계화될 수 없다면, (2)와 같은 판단을 연역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는 합리성의 법칙적 체계는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특정한 물리적 상황이 주어졌을 때 행위자가 가지기에 합당한 정신적 상태를 연역해낼 수 있는 합리성의 체계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특정한 상황에서 행위자가 어떤 정신적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법칙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면, 특정한 상황으로부터 그 행위자가 **가지는** 정신적 상태 또한 법칙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 즉, 합리성을 법칙적으로 체계화할 수 없다면, 물리적 상황으로부터 정신적 상태를 도출하는 법칙 역시 불가능하다. 이로부터 차일드는 다음과 같이 결론내린다. 합리성의 법칙화 불가능성은 심물 무법칙성을 함축한다. 정신적인 것은 닫힌 체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심물 무법칙성은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으로 귀결된다. 즉, 합리성이 법칙적으로 체계화될 수 없다면, 정신적인 것은 법칙에 의해 포착될 수 없다.

이제 차일드의 과제는 합리성의 법칙화 불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런데 차일드는 합리성의 법칙화 불가능성은 증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차일드에 따르면, 합리성이 법칙적으로 체계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이 합리성의 법칙화 불가능성은 증명의 여지가 없다는 데 동의”⁸⁸⁾하고 있으며, 합리성이 법칙적으로 체계화될 수 없다는

88) Child, 1993, p.220

것은 우리의 직관, 경험을 통해 지지되고 강화되는 주장이다. 이러한 까닭에 차일드의 목표는 이 입장에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증명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성이 법칙적으로 체계화될 수 없다는 주장이 우리의 경험과 직관에 비추어 상당히 그럴듯한 주장임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⁸⁹⁾

따라서 차일드는 합리성을 법칙적으로 체계화할 수 없다고 생각할 만한 그럴듯한 지지 근거를 보여주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가 **실제로** 합리성의 영역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우리는 결론을 법칙으로부터 연역적으로 도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저러한 상황일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증거가 이러저러하게 주어졌는데, 이 주장은 참인가?⁹⁰⁾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려면 우리는 다양한 욕구, 믿음, 증거 사이의 중요도를 비교해야 한다. 예컨대, 철수가 초콜릿을 먹을지 고민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이 고민에 영향을 미치는 욕구나 믿음, 증거는 다양하다. 철수는 단 것을 먹고 싶어하며, 체중을 줄이고 싶어하고, 초콜릿이 당뇨에 좋지 않다고 믿으며, 이 초콜릿을 지금 먹지 않으면 잠시 후에 동생이 와서 먹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 고민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고려들이 있을 것이다. 이들로부터 철수가 초콜릿을 먹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연역적으로 도출할 법칙을 구성하려면, 이 욕구나 믿음들의 크기나 중요도를 비교할 수 있는 **고정된** 기준이나 척도가 있어야 한다. 기준이 고정되었을 경우에만 그 기준을 기반으로 다양한 경우들에 적용 가능한 법칙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일드는 이러한 고정된 기준이나 척도는 없다고 말한다.

“두 경우 모두에서, 경쟁하는 고려들을 비교할 고정된 중요도나 순서, 확정적

89) “이러한 고려는 회의주의자들을 설득할 수는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중립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입증의 부담을 져야 하는 쪽은 합리성을 법칙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도록 설득할 수는 있을 것이다.” (Child, 1993, p.224)

90) 이 두 질문은 각각 합리성의 두 영역인 실천적 합리성과 이론적 합리성의 대표적인 질문이다.

인 규칙은 없다. 우리의 고려들은 원리들이나 경험적 규칙에 의해 인도될 것이지만, 이 원리나 규칙에 의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요컨대, 실천적 결정을 내리거나 판단이 전반적으로 그럴듯한가를 따지는 어떠한 과정도 연역적이지는 않다.”⁹¹⁾

차일드에 따르면 우리가 실천적 합리성이나 이론적 합리성의 영역에서 내리는 결정들은 일종의 원리나 경험적 규칙을 참고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원리나 규칙으로부터는 연역적 도출에 사용될 법칙을 구성할 수 없다. 우리가 합리성의 영역에서 참고하는 원리나 규칙은 대개 성립되는, 예외를 허용하는 규칙이지 예외 없는 엄격 법칙은 아니므로, 이들로부터 예외 없는 엄격 법칙을 확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일드는 합리성의 영역에서 우리는 경험적 규칙이나 원리를 참고하여 결정을 내리며, 법칙에 근거한 연역적 도출을 통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법칙으로부터 결론을 연역적으로 도출하지 않는 것과, 결론을 연역적으로 도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서, 전자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합리성이 법칙화될 수 없음을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차일드는 합리성의 법칙화 불가능성을 따로 보여주어야 한다. 이에 차일드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 개별 상황에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엄격 법칙이 가능하다면, 이 법칙은 ‘상황이 C 라면, 사람 S 는 명제 p 를 믿는 것이 합리적이다’와 같은 꼴의 문장일 것이다. 이 법칙은 엄격 법칙이므로, ‘ C ’를 대체할 기술은 이 법칙이 적용될 상황들에 대한 모든 고려를 다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특정한 상황을 총망라하는 구체적인 기술을 포함하는 문장은 보편 법칙이 될 수 없으며, 합리성을 법칙적으로 체계화하는 재료로 사용될 수도 없다. 이토록 상세하고 구체적인 조건을 기술하는 문장은, 새로운 상황에 적용 가능한 연역 도출의 전제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차일드는 바로 바로 이 점에서 합리성은 법칙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91) Child, 1993, p.222

“그 결과는, 취향에 관한 참된 일반 원리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개별 경우들의 모든 세부사항을 포함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형식의 원리는 개별 경우들에서 발생하는 미적 판단을 그저 합해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것들은 새로운 경우들에서 판단을 도출해낼 체계를 형성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원리들은 미적 체계의 법칙화를 위한 자원으로 사용될 수도 없다. 합리성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적이 적용된다.”⁹²⁾

여기서 차일드의 지적은 다음과 같다. 합리성에서 어떤 법칙이 적용되는 상황 $C_1, C_2, C_3 \dots$ 가 있다고 하자. 이 법칙이 이 상황들에 대한 예외 없는 법칙이라면, 이 법칙에는 각 상황들의 세부사항에 대한 기술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아마 개별 상황들의 세부사항을 선언으로 연결한 형태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법칙은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없다. 새로운 판단의 세부사항은 그 법칙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법칙은 가능하지 않고, 합리성은 법칙적으로 체계화될 수 없다.

그러나 차일드의 이러한 논변이 데이빗슨의 무법칙성 논의를 적절히 해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첫째, 차일드의 해석과 달리 데이빗슨은 합리성이 무법칙적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차일드는 합리성의 무법칙성으로부터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이 도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데이빗슨은 합리성의 원리들이 무법칙적이라는 것도, 합리성이 법칙적으로 체계화될 수 없다는 것도 주장하지 않는다. 데이빗슨에게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은 합리성의 무법칙성이 아니라 오히려 합리성이 적용되는 방식, 적용되는 대상, 그 적용의 근거와 관련되어 있다.

“핵심은 오히려 이것이다. 믿음이나 바람이나 그 밖의 개념들을 사용할 때 우리는, 증거가 축적됨에 따라 전체적인 설득력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이론

92) Child, 1993, p.224

을 조정한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한다: 합리성이라는 구성적 이상이, 진화 중에 있음이 틀림없는 한 이론의 진화의 매 국면을 부분적으로 제어한다.”⁹³⁾

이 인용문에서 데이빗슨이 주장하는 바는 이렇다. 합리성은 이론을 조정하는 기준이자 이상이며, 새로운 증거가 계속 축적되기 때문에 이 이상에 맞게 그 사람에 대한 해석이 수정된다. 이 주장의 핵심은 증거와 해석이다. 이 주장의 어디에서도 합리성의 원리들이 무법칙적이라거나 합리성이 법칙적으로 체계화될 수 없음을 찾아볼 수 없으며, 도출해낼 수도 없다.

차일드가 데이빗슨이 합리성이 법칙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하면서 인용한 구절을 검토해보자.

“예를 들어, 데이빗슨의 1970a⁹⁴⁾ 논문의 215쪽을 보라: “내가 **합리성의 환원불가능성**에 관해 말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증명이라고 부를 만하지 않다.”⁹⁵⁾

차일드는 데이빗슨이 합리성의 법칙화 불가능성을 주장하면서, 그 불가능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말하기 위해 위와 같이 이야기했다고 주장한다. 만약 데이빗슨이 이렇게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데이빗슨이 합리성의 무법칙성에 대해 뭔가 주장했다고 봐야할 것이다. 그러나 차일드가 인용한 부분에서 데이빗슨은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 내가 **정신적인 것의 환원 불가능성**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증명이라고 부를 만하지 않다.”⁹⁶⁾

즉, 데이빗슨이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에 대해 주장한 것을 합리성의 무법칙성에 대한 주장이라고 차일드가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구

93) Davidson, 1970a, pp.222-223(국역본 p.370)

94) 이 논문은 데이빗슨의 논문 “Mental Event(Davidson, 1970a)”를 가리킨다.

95) Child, 1993, p.220, 각주5. (강조는 필자)

96) Davidson, 1970a, p.215(국역본 p.359) (강조는 필자)

절은 데이빗슨이 합리성의 무법칙성을 주장했다는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

두 번째 문제는 합리성의 무법칙성에 대한 차일드의 지적이 물리 영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차일드가 합리성이 무법칙적임을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특정 상황에서 행위자가 어떤 정신적 상태를 가지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도출하려면 그 법칙은 물리적 상황에 대한 세부 사항을 총망라하는 기술을 포함해야 하며, 이러한 기술이 포함된 법칙은 엄격 법칙일 수 없다. 그러나 이 지적은 물리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⁹⁷⁾ 특정한 상황에 물리 법칙을 적용할 때도, 이 법칙이 그 상황에 대한 예외 없는 법칙이라면 그 상황의 세부 사항에 대한 기술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차일드의 지적에 따르면, 이렇게 상세한 기술을 포함하는 진술은 엄격 법칙이 될 수 없다. 요컨대, 무법칙성에 관한 차일드의 기준을 받아들이면 합리성 뿐 아니라, 물리계의 무법칙성 역시 도출되는 것이다.

게다가 차일드가 제시한 것과 같은 기준이 정신적 영역과 물리 영역을 구분하는 척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데이빗슨도 이미 고려한 바 있다.

“...일상에서 우리는 대략의 간략한 일반 규칙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정교한 법칙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설령 안다고 해도 우리가 관심을 갖는 특정한 사건을 그 법칙에 맞게끔 기술해내지를 못하기 때문이다.”⁹⁸⁾

97) 알로워츠도 동일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차일드의 제안에 관한 더 나아간, 그리고 아마 더 큰 문제는 그가 견지하고자 하는 주장, 위에서 말한 합리성은 ‘예외없음’ 원리에 반한다는 그 주장이 과학의 ‘법칙화된’ 원리들에는 왜 적용되지 않는가를 알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 예를 들어, 어떤 조건문의 전건을 찾지 못해 결론을 연역할 수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원리에도 참이고, 따라서 어떤 기본 물리 법칙에도 참이다. ‘심리적’이든 ‘물리적’이든 간에, 어떤 원리라도 차일드의 이전 논의와 연결시키면 동일한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그 논증은 물리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며, 따라서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 태제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 (Yalowitz, 1997, p.249)

98) Davidson, 1970a, p.219(국역본 p.364)

즉, 일상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규칙들은 그것이 정신적이든 물리적이든 모두 간략한 일반 규칙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처한 모든 물리적 상황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거나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일상적 규칙들은 영역에 무관하게 모두 상황에 대한 상세한 맥락 정보를 총망라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기준은 정신적 영역과 물리적 영역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없다.

합리성이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에 기여한다는 차일드의 해석은 옳다. 그러나 차일드가 제안한 방식으로는 기여하지 않는다. 차일드의 주장과 달리 데이빗슨의 무법칙성 논변에서 합리성의 무법칙성은 어떠한 역할도 담당하지 않으며, 차일드가 제안한 합리성의 기준은 정신적 영역과 물리적 영역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일드의 제안 역시 데이빗슨의 논의를 성공적으로 해석했다고 볼 수 없다.

2.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

앞 장에서 나는 데이빗슨의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에 관한 세 해석을 검토했다. 이들은 모두 나름의 이유에서 데이빗슨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의 잘못으로부터 우리는 데이빗슨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단서인, 합리성은 믿음의 내적 규제 원리가 아니라 정신적 상태의 귀속 원리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차일드의 말에 따르면, 누군가에게 정신적 상태를 귀속시키는 것이 해석 작업이며, 이 해석은 일종의 합리성을 가져야 한다. 즉, 합리성은 정신적 상태의 귀속에 관련된 원리인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단서에 불과하다. 데이빗슨이 심물 무법칙성을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해석하려면 여전히 다음 두 가지가 해명되어야 한다. 첫째, 합리성이 정신적 영역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해명되어야 하고, 둘째, 구성적 이상으로서의 합리성이라는 것이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을 어떻게 야기하는가가 해명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데이빗슨의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에 대한 나의 해석을 제안할 것이다. 먼저 (1)에서는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의 한 부분인, 정신적 술어만으로 이루어진 엄격 법칙은 불가능하다는 데이빗슨의 논변을, (2)에서는 자비의 원리를 고려할 때, 데이빗슨에게 정신적 술어와 물리적 술어를 모두 포함하는 엄격 법칙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어떻게 논증되는가를 재구성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3)에서는 데이빗슨에게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확보되는지를 보도록 한다.

(1) 심심 무법칙성

정신적 기술은 정신적 사건들이 속해 있는 특정한 사건 유형을 가리킨다. 따라서 특정한 정신적 사건 유형에 속해 있는 사건들이 다른 특정한 정신적 사건 유형에 속해 있는 사건들과 법칙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진술로서 표현한다면 이 진술은 둘 이상의 정신적 술어를 포함하는 진술이 될 것이다. 이러한 진술을 심심 법칙 진술이라고 하자. 그리고 이러한 법칙적 진술은 불가능하다는 주장, 다시 말해 정신적 술어만을 포함하는 엄격 법칙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심심 무법칙성이라고 하자. 이 장에서는 데이빗슨의 이 심심 무법칙성 논증에 대한 해석을 제안할 것이다.

다음에서 데이빗슨은 심심 무법칙성의 근거에 대해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다.

“물리 이론은 포괄적인 닫힌 체계를 제공한다고 약속한다. 그리고 그리하여 법칙에 맞는 어휘로 표현된 물리적 사건은 모두 표준에 맞는 유일한 기술을 반드시 갖도록 보증한다.

정신적인 개념들만으로는 그런 뼈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정신적인 것은 우리의 첫 원리에 의해 **닫힌 체계를 이루지 않기** 때문이다. 정신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지만 자신은 정신적인 것의 어떤 체계적인 부분도 아닌 것들이 너무도 많다.”⁹⁹⁾

여기서 데이빗슨은 정신적 영역과 물리 이론을 대비시킴으로써 심심 무법칙성을 확보하려 한다. 그 대비의 핵심은 해당 이론이 닫힌 체계, 즉 인과적으로 완결된 체계를 제공하는가이다. 물리 이론은 닫힌 체계를 제공한다. 물리 이론에서 언급되는 모든 사건의 인과 사슬은 물리적 언어만으로 기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정신적 영역은 인과적으로 완결된 체계를 줄 수 없다. 데이빗슨은 그 근거로 무법칙적 일원론의 첫 원리인 인과의 상호작용 원리를 제시한다. 즉, 정신적 사건은 물리적 사건과 인과적으로

99) Davidson, 1970a, pp.223-224(국역본 p.371, 강조는 필자)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정신적 영역은 닫힌 체계를 줄 수 없다는 것이다.¹⁰⁰⁾

정신적 영역과 물리 이론 사이의 이 비대칭성이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을 어떻게 도출하는지를 확인하려면, 법칙적 진술은 오직 닫힌 체계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는 데이빗슨의 주장이 무슨 의미인지 밝혀야 한다. 이를 데이빗슨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왜냐하면 한 법칙이 그 법칙에 포함된 개념을 어떤 포괄적인 닫힌 이론으로부터 이끌어낼 때만 그 법칙이 엄격하고, 명시적이며, 가능한 한 예외가 없기를 바랄 수 있기 때문이다.”¹⁰¹⁾

그러나 이는 문제 상황을 다시 한 번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포괄적인 닫힌 이론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이루어진 법칙만이 엄격 법칙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아니라 그 근거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데이빗슨의 다음 말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한 진술이 동질법칙적이며, 자신의 개념적 영역 안에서 교정될 수 있다고 확신하려면, 그 진술은 강한 구성적 요소를 지닌 이론으로부터 자신의 개념들을 이끌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¹⁰²⁾

이 인용문에 따르면, 한 진술이 그 개념적 영역 안에서 엄격 법칙으로 발전할 수 있으려면 그 진술은 강한 구성적 요소를 지닌 이론에서 비롯된 개념들만을 사용해야 한다. 여기서 포괄적인 닫힌 이론의 특징을 알 수 있다. 포괄적인 닫힌 이론은 강한 구성적 요소를 지닌 이론이다.

그러면 강한 구성적 요소는 어떤 것인가? 물리 이론과 정신적 영역을 대비시킴으로써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 물리 이론을 먼저 보자. 물리 이

100)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논의는 물리적 사건과 상호작용하는 정신적 사건에 한해서 진행된다.

101) Davidson, 1970a, p.219(국역본 p.365*)

102) Davidson, 1970a, p.220(국역본 p.365)

론은 물리적 대상을 관찰하여 이 물리적 대상의 변화, 즉 물리적 사건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이론이다. 즉, 물리 이론의 가장 기초적인 진술들은 물리 대상에 대한 관찰 진술일 것이다. 한 물리 대상이 특정 물리적 상태에 놓여있다는 진술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자. 우선 그 물리적 대상이 놓여 있는 시공간을 확인하고, 길이와 무게를 측정하며, 온도를 잴 것이다. 그리고 그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물리적 대상이 이러저러한 물리적 상태에 놓여 있다는 진술을 만들 수 있다. 물리 대상에 특정 물리적 상태를 귀속시키는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측정 기준과 측정 법칙은 모두 물리 이론에서 비롯된 것이다. 시간, 길이, 온도, 무게 등의 측정에 관련된 법칙들이 물리적 대상이라는 관념을 규정하고, 물리 이론은 물리적 대상을 시간, 길이, 온도, 무게 등의 관점에서 측정하여 그 관찰 결과를 토대로 물리 법칙을 구성한다. 요컨대, 시간, 길이, 온도, 무게 등을 측정하는 법칙들이 물리 이론의 구성적 법칙이라고 할 수 있다. 물리 이론의 모든 언어는 이런 구성적 법칙과 동일한 개념 영역을 공유하며, 바로 이러한 점에서 물리 이론은 강한 구성적 요소를 가진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신적 영역은 상황이 다르다. 행위자가 특정 정신적 상태에 놓여있다는 진술을 어떻게 구성하게 되는지 생각해보자. 믿음이나 욕구 등의 정신적 상태 그 자체는 관찰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누군가가 어떤 정신적 상태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표정이나 몸짓 등 신체적 움직임을 관찰해야 한다.¹⁰³⁾ 물론 신체적 움직임이 그 사람의 정신적 상태를 결정해주는 것은 아니다.

“데이터는 하나 이상의 해석에 열려 있다.”¹⁰⁴⁾

“이는 곧 그의 태도와 그의 말에 동시에 내용을 주는 것이다.…많은 이론

103) “우리가 <아트>의 물리적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이 움직임 중 특정한 하나가 행위나 반응으로 해석될 수 있을지 알고 싶다면 우리는 모든 물리적 측면을 상세히 조사한 다음, 인간의 움직임을 판단할 때처럼 그 경우를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Davidson, 1973a, p.251(국역본 p.407, 강조는 필자))

104) Davidson, 1974a, p.237(국역본 p.388)

이 결국 그럭저럭 받아들일 만한 타협안으로 끝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이론들 사이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해줄 객관적 근거 역시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¹⁰⁵⁾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 관찰되는 물리적 자료들만으로 단일한 정신적 상태를 도출할 수는 없다. 데이빗슨은 물리적 자료와 일관적인 다양한 정신적 상태 중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에 기여하는 원리가 바로 합리성의 원리라고 말한다. 합리성의 원리가 모종의 역할을 수행하면¹⁰⁶⁾ 우리는 신체적 움직임으로부터 그 사람이 이러저러한 믿음이나 욕구를 가졌다고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중요한 것은, 이 합리성의 원리가 행위자의 **물리적 상태와 일관적인** 정신적 상태를 그 행위자에게 귀속시킬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행위자에게 어떤 정신적 상태를 귀속시키려면 그의 물리적 상태를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특정 대상에게 정신적 상태를 귀속시키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판단 조건 중에는 정신적 영역에서 비롯되지 않은, 물리적 조건이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정신적 영역은 강한 구성적 요소를 가지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론이 강한 구성적 요소를 가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확인했다. 이제, 이론이 강한 구성적 요소를 가졌는지의 여부가 엄격법칙을 구성할 수 있는가를 어떻게 결정짓는지가 해명되어야 한다. 엄격법칙은 **사건에 대한** 예외 없는 설명과 예측이 가능한 법칙이다.¹⁰⁷⁾ 예외 없는 예측이나 설명이 가능하려면 엄격 법칙에 사용된 술어가 그 법칙이

105) Davidson, 1970a, p.222(국역본 p.369)

106) 합리성의 구체적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 장의 심물 무법칙성 논의에서 본격적으로 검토될 것이다.

107) “물리 과학 안에서 우리는 동질법칙적 일반 규칙을 실제로 발견한다. 여기서는, 만약 증거가 일반 규칙을 지지하면 우리는 그 일반 규칙이 더 나아간 물리적 개념들을 이용해 끝없이 선명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을 만한 이유를 갖는다: 즉 모든 증거와의 **완벽한 정합**, (그 체계의 용어들 하에서의) **완벽한 예측**, (다시 한번, 그 체계의 용어들 하에서의) 총체적 설명이라는 이상이 구현된 이론적 접근선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를 갖는다.”(Davidson, 1970a, p.219(국역본 p.365, 강조는 필자))

적용되는 사건을 예외 없이 지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 예외 없는 지시가 성립하려면, 엄격 법칙은 가장 기초적인 판단 조건을 상세하게 포함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예컨대, <야구공에 맞으면 유리창이 깨진다>와 같은 일반 규칙을 생각해보자. 이 일반 규칙은 그 자체로는 엄격 법칙이 아니다. 이 일반 규칙을 엄격 법칙으로 발전시키려면 이 규칙에 사용된 표현들을 수정해야 한다. 우선 ‘야구공’이나 ‘유리창’이라는 단어에 의해 어떤 대상이 지시되는가는 관습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¹⁰⁸⁾ 이 규칙을 말하면서 고려하는 대상들을 더 엄밀하게 지시할 수 있는 표현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이는 그 대상들을 해당 단어로 지칭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판단 조건, 예를 들어 색, 강도, 길이, 질량, 온도 등 물리 이론의 측정 기준에 의한 조건을 나타내는 기술이 될 것이다. ‘맞으면’이나 ‘깨진다’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따라서 어떤 일반 규칙이 엄격 법칙으로 수정되기 위해서는 그 규칙에 포함된 술어가 고려 대상에 귀속된다고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귀속 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앞에서 논의했듯 물리 이론은 강한 구성적 요소를 가진 이론이므로, 물리적 술어의 가장 기본적인 귀속 조건 또한 길이, 질량, 온도 등에 관한 물리적 조건이다. 따라서 물리적 술어만을 포함하는 일반 규칙을, 그 귀속 조건을 상세하게 덧붙임으로써 엄격 법칙으로 수정한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추가되는 언어는 모두 물리적 언어일 것이다. 즉, 물리 이론에서 사용되는 개념만을 사용한 엄격 법칙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정신적 영역은 강한 구성적 요소를 가진 이론이 아니어서 정신적 술어의 귀속 조건에는 물리적 조건이 포함된다. 따라서 정신적 술어만을 사용한 일반 규칙을 엄격 법칙으로 수정하기 위해 해당 술어의 귀속 조건을 상세히 추가하려면, 그 과정에서 물리적 조건에 대한 기술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 기술은 물리적 술어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즉, 정신적 영역에 관한 엄격 법칙에는 물리적 술어가 반드시 포함된다. 따라서 정신적 술어로만 이루어진

108) 예컨대 유리 회사에서 강도가 매우 높은 투명한 고체 물질을 개발하여 그 물질을 ‘유리’라고 명명하고 홍보한다면, ‘유리’라는 단어는 이 물질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것이다.

엄격 법칙은 불가능하다. 바로 이것이 데이빗슨이 주장한 심심 무법칙성이다.

(2) 심물 무법칙성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은 심심 무법칙성과 심물 무법칙성으로 구성된다. 심물 무법칙성은 정신적 사건 유형에 속하는 사건들과 물리적 사건 유형에 속하는 사건을 이어주는 엄격 법칙은 없다는 주장이다. 이 심물 무법칙성에 관한 데이빗슨의 논증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정신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 사이에 **엄격 법칙**이 성립할 수 없는 까닭은 정신적 영역에 **합리성**이라는 구성적 이상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데이빗슨의 심물 무법칙성 논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핵심 개념인 엄격 법칙과 합리성이 어떤 개념인지가 먼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이 핵심 개념들이 어떤 것인지 분석함으로써, 데이빗슨의 심물 무법칙성 논의를 재구성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i)에서는 엄격 법칙이 무엇인지 명료하게 밝히고, 그 기준에 물리 법칙이 어떻게 부합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ii)에서는 두 번째 핵심 개념인 합리성이 정신적 영역의 구성적 이상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석할 것이다. 바로 이 과정에서 데이빗슨의 해석 이론의 핵심 개념인 자비의 원리에 대한 이해가 합리성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 필수적임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iii)에서는 두 핵심 개념으로부터 심물 무법칙성이 어떻게 도출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i) 엄격 법칙: 지시의 고정성

우리는 이 세계의 구성원들이 어떠한 규칙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경험한다.¹⁰⁹⁾ 이 규칙은 때로 예외 없이 성립하는 규칙일 수도 있고, 때로는 예외를 다소 허용하는, 대부분의 경우에 성립하는 수준의 규칙일 수도 있다. 이 때, 예외 없이 성립하는 규칙은 엄격 법칙이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칙은 진술로서 표현되는데, 이러한 진술을 법칙적 진술이라 한다. 우리의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어떤 진술이 엄격 법칙적 진술이 될 수 있는가? 다시 말해, 어떤 진술이 엄격 법칙을 표현하는 진술이라고 기대되는가? 이 질문은 법칙적 진술의 참을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 것이 아니다. 개별 법칙적 진술의 진리치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질문은 어떤 진술이 참이든 거짓이든, 그 진술이 도대체 엄격 법칙을 표현하는 형태의 진술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를 묻는 것이다.

우선 법칙적 진술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자. 진술 S가 법칙적 진술이라면, S는 세계의 대상들이 반복적으로 따르는 엄격 법칙을 나타내는 진술일 것이다. 따라서 이 진술은 그 사례들에 의해 확인된다. 게다가 이 진술은 우리 세계와 법칙이 동일한 세계를 가정했을 때, 그 세계에서 대상들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되어줄 것이다. 즉, S는 특정한 반사실적 문장이 참이거나 거짓이라고 생각할 근거가 된다. 법칙적 진술의 이 두 가지 역할을 데이빗슨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법칙다운 진술은 반사실적이고 가정법적인 주장은 뒷받침해주고, 사례들로 부터는 뒷받침을 받는 일반 진술이다.”¹¹⁰⁾

109) 이는 법칙에 관한 카르납의 통찰을 반영한 것이다.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의 관찰뿐만 아니라 좀더 체계적인 과학적 관찰을 통해서 세계에는 어떤 반복과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학의 법칙은 이러한 규칙들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표현하는 진술에 지나지 않는다.”(Carnap, 1966, 국역본 p.17)

110) Davidson, 1970a, p.217(국역본 p.362*)

그런데 엄격 법칙은 예외 없이 성립한다. 따라서 엄격 법칙은 사례들이 예외 없이 그 법칙을 따르리라고 기대된다. 이 때문에 엄격 법칙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건을 예외 없이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이미 발생한 사건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엄격 법칙에 따르면 예외 없는 예측과 설명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런 예측이나 설명이 가능하려면 엄격 법칙이 적용되는 사건들이 엄격 법칙적 진술에서 기술된 그 사건 유형에 속하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어떤 사건 e_1 이 발생했을 때, 엄격 법칙적 진술 S 에 의거하여 e_2 가 발생하리라고 예외 없이 예측하려면, e_2 의 발생 전에 e_1 이 S 에서 언급된 사건 유형 E_1 에 속하는 사건임이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설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엄격 법칙적 진술 T 를 근거로 들어 사건 e_3 가 사건 e_4 를 야기했다고 예외 사항 없이 설명할 수 있으려면, 개별 사건 e_3 와 e_4 가 각각 T 에 언급된 사건 유형 E_3 과 E_4 에 포함되는 사건임이 설명하는 시점에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요컨대, 어떤 진술 S 가 엄격 법칙적 진술이라면, S 에 언급된 사건 유형 $E_1, E_2, E_3 \dots$ 에 대하여, 특정 개별 사건 e 가 각각의 사건 유형에 속하는지 아닌지가 S 를 가지고 설명이나 예측을 하려는 그 시점에 이미 고정적으로 결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데이빗슨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격을 갖춘 법칙이라면, 그 법칙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갖춰졌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미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물론 필요하다면 그 법칙의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단서를 달 수도 있다.”¹¹¹⁾

즉, 어떤 진술이 엄격 법칙적 진술이라면, 그 진술에 포함된 사건 기술구들이 어떤 사건 유형을 가리키는지,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이 사건이 해당 사건 기술구가 가리키는 바로 그 사건 유형에 포함되는지가 고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요컨대, 사건을 고정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술어로만

111) Davidson, 1974a, p.233(국역본 p.382)

구성된 진술만이 엄격 법칙적 진술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엄격 법칙적 진술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물리적 술어로 이루어진 법칙적 진술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가? 어떤 물리적 사건을 언어로 기술할 때, 우리는 관찰에 의존한다. 눈 앞의 컵이 1cm 움직였다면, 그 사건은 ‘컵이 1cm 움직임’, ‘눈 앞의 컵이 1cm 움직임’, ‘물체가 1cm 움직임’ 등의 기술구로 지칭될 것이다. 이 지칭은 물리적 관찰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개념 틀을 사용하여 그대로 기술하는 것 이외에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그 컵의 과거 이력이나 움직임 등을 추적하여 확인할 필요도, 그 컵이 그 움직임 이면에서 어떠한 다른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까닭에, 우리의 관찰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그 관찰을 그대로 기술한 물리적 사건 기술구는 그 사건을 **고정적으로 지시**한다. 그 물리적 사건 발생 이후에 그 컵이 다른 방식으로 변화하더라도 이 지시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물리적 사건이 발생했고, 관찰되어 어떠한 방식으로 기술되었다면, 그 사건은 그 물리적 기술에 의해 고정적으로 지칭되고, 그 기술에 포함된 물리적 술어가 지칭하는 물리적 사건 유형에 속하도록 고정된다. 그러므로 물리적 술어만을 포함하는 물리 법칙적 진술은 엄격 법칙적 진술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ii) 정신적 영역의 구성적 원리로서의 합리성

정신적 사건들(Mental Events)¹¹²⁾이라는 논문에서 데이빗슨은 심물 무법칙성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핵심은 오히려 이것이다. 믿음이나 바람이나 그밖의 개념들을 사용할 때 우

112) Davidson, 1970a.

리는, 증거가 축적됨에 따라 전체적인 설득력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이론을 조정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한다: **합리성이라는 구성적 이상**이, 진화 중에 있음이 틀림없는 한 이론의 진화의 매 국면을 부분적으로 제어한다. ...정신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 사이가 법칙적으로 느슨한 것은 우리가 인간을 **합리적인 동물**로 생각하는 한 피할 수 없다.”¹¹³⁾

이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 데이빗슨에게 합리성이 정신적 영역의 구성적 이상이며, 이것이 심물 무법칙성의 핵심을 이룬다. 따라서 심물 무법칙성 논증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합리성이 정신적 영역의 구성적 이상이라는 말이 명료하게 밝혀져야 한다.

위의 인용문에서 합리성에 대한 단서를 하나 찾을 수 있다. 합리성이라는 구성적 이상은 우리가 인간을 합리적인 동물로 생각하는 한 유지된다. 그렇다면 인간을 합리적인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정신적 영역을 구성하는 것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에 답하기 위해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신적 상태를 귀속시키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대화를 하던 중에 철수가 “신은 존재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우리는 철수가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다고 판단한다. 즉, 철수에게 <신이 존재한다고 믿음>이라는 정신적 상태를 귀속시킨다. 이때 우리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가장 쉬운 답은 철수가 신이 존재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보다 엄밀히 말하면, 철수는 “신은 존재해”라는 문장의 발음에 해당하는 소리를 냈다. **철수의 성대의 떨림으로부터 이 특정한 일련의 소리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철수가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하는가?** 이 소리가 철수의 믿음을 귀속시킬 근거로 사용되려면, 적어도 철수가 이 일련의 소리를 신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했다는 것이 필요하다.

이 상황에서 드러나는 가장 일반적인 문제는 철수가 “신은 존재해”라는 문장의 발음에 해당하는 소리로 도대체 <신은 존재한다>라는 명제를 의미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동일한 소리가 어떤 문화권에서는 이

113) Davidson, 1970a, pp.222-223(국역본 p370, 강조는 필자)

런 의미로, 또 다른 문화권에서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누군가가 “까까”라는 소리를 냈을 때, 한국어 사용자는 이 말을 과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프랑스어 사용자는 이 말을 똥이라는 의미¹¹⁴⁾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처럼 소리만으로는 발화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로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수가 “신은 존재해”라는 소리를 한국어 사용자처럼 사용했다고 판단할 근거가 필요하다. 철수가 한국어 외의 언어는 모른다거나, 그 대화 상황에서 한국어 사용자처럼 행동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제안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철수가 한국어 외의 언어는 모른다거나 그 상황에서 한국어 사용자처럼 행동했다는 물리적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어려울 뿐 아니라, 설사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철수가 그 발화로 신이 존재한다는 자신의 믿음을 표현했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철수가 한국어 사용자로서 “신은 존재해”라는 문장을 발화했다고 하자. 철수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논의를 빨리 종결하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말했을 수 있다. 혹은 철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눈앞에 보이는 글자를 읽은 것일 수도 있다. 아니면 철수는 신이 존재한다고 믿지는 않지만, 유신론자로서의 입장을 한번 개진해보는 것일 수도 있다. 이처럼 “신은 존재해”라는 소리를 한국어 사용자로서 발음하는 것과 일관적인 정신적 상태가 여럿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철수가 신이 존재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신은 존재해”라고 말했으리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지 한국어 사용자로서 발화했다는 것 이외에 다음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철수는 자신이 발화하는 문장이 참이라고 믿고 있는가? 혹은 적어도 참이기를 희망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철수의 발화로부터 철수가 의미하는 바를 해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철수가 자신이 말한 문장이 참이라고 여긴다고 해도, 여전히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114) 프랑스어로 ‘caca’는 똥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현 논의를 위해서 적어도 우리는 결정적 개념으로서, 문장을 향한 참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라는 것에 의지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태도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의 주요 논점이 순환논증이 아니라는 사실은 다음에서 볼 수 있다: 만일 우리가 그저, 어떤 사람이 어떤 문장을 참이라고 간주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문장에 의해서 그가 의미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가 참이라고 간주하고 있음이 어떤 믿음을 나타내는지도 알지 못할 것이다.”¹¹⁵⁾

이 인용문에서 데이빗슨이 지적한 것처럼, 철수가 자신이 발화한 문장을 참이라고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철수의 말을 해석할 수 없다. 그것만으로는 철수가 그 문장으로 무엇을 의미했는지, 그가 참이라고 여기는 것이 어떤 믿음인지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발화자가 의미한 것과 발화자의 해당 믿음을 알 수 없다면 우리는 해당 발화를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이 드러난다. 철수의 발화 행동으로부터 철수에게 어떤 믿음을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철수가 자신이 발화한 문장으로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알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철수가 기존에 어떤 믿음, 의도,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인간이 어떤 믿음, 의도, 욕망을 가지고 있는가는 대개의 경우 그 인간이 어떤 발화 행동을 했으며, 그 발화 행동으로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알아야만 확인이 가능하다.

정신적 상태를 귀속시키는 데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데이빗슨도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어떤 믿음을 정말 가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한 사람의 말을 해석하는 것보다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주장은 당연하다. 그러나 나는 더 나아가 그것은 결국 같은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믿음은 한 사람이 언어를 구사하지 않는 한 대개 확인이 안 된다; 그리고 한 사

115) Davidson, 1974b, pp.195-196(국역본 p.313*)

람의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그가 믿고 있는 많은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¹¹⁶⁾

즉, 많은 경우 언어의 의미를 해석하지 않고는 누군가에게 어떤 믿음을 귀속시킬 수 없으며, 그의 기존 믿음들을 알지 않고서는 그의 언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발화 행동이라는 단일한 물리적 증거로부터 그가 의미한 것과 그의 믿음을 동시에 추론해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문제는 그 단일한 물리적 증거와 일관적인 의미와 믿음의 순서쌍이 둘 이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에서 큰 문제없이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고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으리라고 안정적으로 추론하며 살아간다.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가능한가? 데이빗슨은 바로 **자비의 원리**가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자비의 원리란 발화자의 믿음 중 대부분이 나의 기준에서 볼 때 참이고 정합적이라고 전제하는, 다시 말해 발화자의 믿음 체계가 나의 기준에서 볼 때 대체로 합리적이라고 가정하는 원리다.

“이 방법은 의미의 문제를 풀어내는 동안 믿음을 최대한 고정시킴으로써 믿음과 의미 사이의 상호의존성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것은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우리 자신의 견해에 따라, 원주민 화자를 가능한 한 말이 되게 만들도록 낯선 문장들에 참 조건을 할당함으로써 성취된다.”¹¹⁷⁾

데이빗슨이 말하듯, 자비의 원리는 발화자의 믿음 대부분이 나의 관점에서 참이고 정합적일 것이라고 가정함으로써 발화자의 믿음을 최대한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는 해석 대상이 내가 이해 가능할 정도로 합리적이고 일관적일 것이라는 가정이다. 단일한 물리적 증거로부터 의미와 믿음을 모두 해석해내야 하는 상황에서, 자비의 원리는 믿음을 고정함으로써 의미를

116) Davidson, 1974a, p.238(국역본 p.389)

117) Davidson, 1973b, p.137(국역본 p.229)

해석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만약 자비의 원리가 없다면 우리는 물리적 조건과 일관적인 믿음과 의미의 순서쌍들 사이에서 헤매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누군가에게 어떤 믿음을 귀속시킬 수도, 그의 발화 행동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도 없을 것이다.

“자비는 선택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이론을 가지기 위한 조건이므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자비는 우리에게 불가결한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든 싫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대부분의 문제에서 옳다고 생각해야만 한다.”¹¹⁸⁾

요컨대, 자비의 원리는 단순한 관용이 아니라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위해서, 인간을 이해 가능한 존재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불가피한 원리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철수의 발화로부터 철수에게 신은 존재한다는 믿음을 귀속시킬 수 있다. 나는 철수를 해석 대상으로 간주함으로써 그를 이해가능한 사람으로 보고 있고, 이로써 철수의 믿음이나 욕구의 체계가 나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로는 합리적인 것이며, 그의 믿음 중 많은 부분이 나의 믿음과 일치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가정 하에서 볼 때, 철수는 자신이 발화한 문장이 참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그 문장으로 신이 존재한다고 의미했고, 따라서 철수는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자비의 원리는 신체적 움직임을 통해 그 사람에게 어떤 정신적 상태를 귀속시키려는 모든 작업에 전제되어 있다. 이러저러한 상황에서 철수가 헉헉거리며 냉장고로 걸어간다고 하자. 이때 <헉헉거리며 냉장고 쪽으로 걸어감>이라는 물리적 증거로부터, 그 행동의 의미와 철수의 믿음을 동시에 추론해내기 위해, 우리는 철수의 믿음 체계가 우리가 볼 때 대체로 합리적이라는 것을 가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보통 목이 마를 때 헉헉거리고,

118) Davidson, 1974b, p.197(국역본 p.315*)

물을 마시고 싶어하며, 냉장고에 물이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냉장고로 걸어가서 냉장고 문을 열면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헉헉거리며 냉장고로 갈 때는 대개 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경우다. 이렇듯 철수의 믿음이 나의 믿음과 광범위한 일치를 보인다고 가정해야만, 철수가 내가 이해 가능할 정도로는 일관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가정해야만, 철수의 신체적 움직임을 <물을 마시려고 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합리성이 정신적 영역의 구성적 이상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신적 상태를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자비의 원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자비의 원리는 해석 대상의 믿음이 해석자의 믿음과 광범위한 일치를 보인다고 전제하는 것, 다시 말해 해석 대상이 해석자가 보기에 이해 가능할 정도로는 일관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전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원리가 전제되지 않는 한, 우리는 누군가에게 특정한 정신적 상태를 귀속시킬 수 없다. 요컨대, 누군가가 특정한 믿음이나 욕구를 가졌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가 일정 정도로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가정해야만 한다. 이는 누군가가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상당한 정도의 일관성을 가졌다는 믿음을 단순히 자비로 치부할 수는 없다: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거나 뭔가 불합리하다고 우리가 의미 있게 비난할 수 있는 처지에 있으려면 그런 믿음은 불가피하다.”¹¹⁹⁾

요컨대, 자비의 원리는 누군가가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하기 위해서도 가정되어야만 한다. 누군가의 개별 믿음이 비합리적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의 믿음 체계의 많은 부분이 일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가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119) Davidson, 1970a, p.221(국역본 p.368)

iii) 심물 무법칙성

앞 장에서 우리는 합리성이 왜 정신적 영역에서의 구성적 이상인지 확인했다. 이제 남은 문제는 합리성이 정신적 영역의 구성적 원리라는 것이 왜 심물 무법칙성을 야기하는가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데이빗슨이 심물 무법칙성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다시 보자.

“핵심은 오히려 이것이다. 믿음이나 바람이나 그밖의 개념들을 사용할 때 우리는, 증거가 축적됨에 따라 전체적인 설득력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이론을 조정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한다: 합리성이라는 구성적 이상이, 진화 중에 있음이 틀림없는 한 이론의 진화의 매 국면을 부분적으로 제어한다. …정신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 사이가 법칙적으로 느슨한 것은 우리가 인간을 합리적인 동물로 생각하는 한 피할 수 없다.”¹²⁰⁾

이 인용문에서 심물 무법칙성의 핵심으로 지적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믿음, 욕구 등의 개념을 사용할 때, 다시 말해 누군가가 어떤 믿음을 가졌거나 어떤 욕구를 가졌다고 말할 때, 우리는 언제나 그 판단을 수정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 수정은 합리성이라는 구성적 이상에 의해 규제된다. 따라서 심물 무법칙성 논증을 구성하기 위해 해명되어야 할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 믿음, 욕구 등 정신적 상태에 대한 판단은 왜 항상 수정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 둘째, 합리성이 이 수정을 규제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 두 질문은 독립적으로 대답될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합리성이라는 구성적 이상이 바로 수정 가능성의 전제 조건이자 규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데이빗슨의 심물 무법칙성 논증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합리성이 이론의 수정 가능성의 전제 조건이자 규제 조건이라는 말의 의미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120) Davidson, 1970a, pp.222-223(국역본 p.370, 강조는 필자)

합리성이 수정 가능성의 전제 조건이자 규제 조건이라는 말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 정신적 상태를 귀속시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신입생 환영회에서 누군가가 “신은 존재하지 않아”라고 말하자 철수가 단호한 목소리로 “신은 존재해”라고 외쳤다고 하자. 나는 이 발화를 통해 철수는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다고 판단했다. 철수의 믿음 대다수가 나의 믿음과 일치한다고 전제했으며, 그런 전제 위에서 철수가 단호한 목소리로 “신은 존재해”라고 말하는 것은 신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후에 철수가 나에게 “사실 나는 신을 믿지 않아. 그때는 그 애가 너무 단호하게 말해서 반기를 들고 싶었던 것뿐이야”라고 말했다고 하자. 이 대화 이후에 나는 신입생 환영회에서 철수가 “신은 존재해”라고 말한 사건을 신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던 입장을 철회하고서, 그때 철수는 그냥 그 무신론자에게 반박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새로운 판단을 내렸다. 그리고 철수가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다는 예전의 판단을 철회했다.

정신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이런 수정이 어떻게 가능한가? 자비의 원리는 해석 대상이 해석자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로는 합리적이고 일관적일 것이라고 전제하는 원리이다. 따라서 해석 대상에게 정신적 상태를 귀속시키기 위해 해석자가 참이라고 간주하는 해석 대상의 믿음, 의도, 욕구의 많은 부분이 **가정된 것이다**. 이 가정 하에서 우리는 주어진 물리적 증거와 일관적인, 의미와 믿음의 순서쌍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새로운 물리적 증거가 주어지면¹²¹⁾ 그 새로운 증거만을 단일하게 고려할 수는 없다. 해석 대상이 어느 정도로는 일관적일 것이라는 자비의 원리에 따라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하여 축적된 모든 물리적 증거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축적된 모든 물리적 증거와 일관적인 순서쌍의 목록은 기존의 물리적 증거와 일관적인 순서쌍의 목록과 동일하지 않다. 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새로운 증거를 이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려면, 기존의 증거

121)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신적 상태를 귀속시키기 위하여 수집할 수 있는 관찰 가능한 증거는 오직 물리적 증거뿐이다.

에 대한 해석의 수정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요컨대, 자비의 원리에 의해 가정되는 해석 대상의 믿음 체계는 유동적이다. 해석 대상에 관한 새로운 물리적 증거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선다. 물리적 증거는 둘 이상의 정신적 상태와 일관적이고, 그 중 어떤 정신적 상태를 그에게 귀속시킬 것인가는 우리가 자비의 원리에 의해 형성한 그의 기존 믿음 체계에 근거한다. 한편으로, 우리가 그에게 귀속시킨 믿음 체계는 새로운 물리적 증거를 더 많이 되는 방식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다. 즉, 새로운 물리적 증거가 나올 때마다 해석 대상에 대한 우리의 이론 체계는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데이빗슨은 바로 이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믿음과 의미는 발언 행동으로부터 단 하나로 재구성될 수 없다. 남아 있는 미결정성은 해석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의미 이론의 본성이 갖는 논리적 귀결로 간주되어야 한다.(이는 영점과 단위가 임의로 선택되는 것이 온도를 재는 우리의 능력이 모자라는 표시가 아닌 것과 같다.)”¹²²⁾

요컨대, 정신적 상태의 귀속에 관한 이 수정 가능성은 정신적 영역에 대한 우리의 이론이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믿음, 의도, 욕망 등을 가졌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보자. 누군가가 시점 t 에 어떠한 정신적 상태를 가졌다고 판단할 때 우리는 시점 t 이후의 증거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시점의 증거도 고려해야 한다. 행위자가 특정 시점에 어떠한 정신적 상태를 가진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 판단 시점에 해석자가 가지는 관련된 모든 물리적 증거가 고려된다.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해석자 I 가 시점 t' 에 판단하기에, 행위자 S 가 시점 t 에 정신적 상태 m 을 가진다.

122) Davidson, 1973a, p.257(국역본 p.415)

iff

해석자 I 가 시점 t' 에 고려 가능한, S 에 대한 물리적 증거를 볼 때, S 에게 시점 t 에 정신적 상태 m 을 귀속시키는 것이 S 를 가장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제 정신적 영역의 특이성이 드러난다. 누군가가 특정 시점에 어떤 정신적 상태를 가졌다는 판단은 그 판단 시점에 따라 언제나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누군가에게 정신적 상태를 귀속시키는 것에 대한, 통시간적으로 고정되는 판단은 가능하지 않다. 새로운 증거는 언제나 가능하고,¹²³⁾ 새로운 증거가 축적되면 판단이 수정될 가능성도 언제나 존재한다. 즉, 어떤 정신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고려 가능한 물리적 증거가 다르면 그 사건을 어떠한 정신적 술어로 지칭할 것인가가 다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정신적 영역의 이 변화가능성이 심물 무법칙성의 핵심 근거가 된다. 엄격 법칙은 발생한 사건을 설명하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건을 예외 없이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예측이나 설명이 가능하려면 이미 발생한 사건에 어떠한 엄격 법칙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는 이미 발생한 사건이 어떠한 술어로서 지칭되는지가 고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보았듯 정신적 사건은 어떠한 술어로 지칭될 것인가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우리가 직접 관찰 가능한 사건들은 물리적 사건뿐이다. 우리는 물리적 사건을 토대로 누군가에게 정신적 사건이 일어났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그 정신적 사건이 어떤 정신적 사건 유형에 포함될 사건인지는, 그 정신적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다. 발생한 정신적 사건을 어떠한 정신적 술어로 지칭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증거는 언제나 해석자가 그 판단 시점에 고려 가능한 물리적 증거이기 때문이

123) 이 새로운 증거는 행위자에 대한, 과거에 이미 발생한 물리적 증거일 수도 있다. 해석자가 해석 시점까지의 해석 대상에 관한 모든 물리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새로운 증거의 발생 시점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전의 판단 시점에 고려하지 못했던 증거가 고려 대상이 되면 이전의 판단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 이러한 까닭에 정신적 사건 m 이 특정 시점에 정신적 술어 M 으로 지칭된다는 사실은, M 을 포함하는 법칙에 의해 사건 m 을 예외 없이 설명하거나, 다른 사건을 예외 없이 예측하는 근거로 사건 m 을 사용할 수 있음을 보장해주지 않는 것이다.

이제 정신적 술어의 이러한 특징이, 앞서 언급된 엄격 법칙의 기준을 왜 만족시키지 못하는지, 다시 말해 심물 엄격 법칙이 왜 불가능한지를 보도록 하자. 정신적 사건 유형 M 과 물리적 사건 유형 P 를 연결해주는 ‘특정 시점에 M 이 발생하면, 그로부터 30초 후에 P 가 발생한다’와 같은 엄격 법칙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 법칙은 엄격 법칙이므로 특정한 사건들을 예외 없이 설명하고 또 예측할 것이다. 이제 시점 t 에 정신적 사건 m 이 발생했고, 그 시점에 m 을 M 에 포함되는 사건이라고 판단했다고 하자. 그러면 이 판단으로부터 m 이 발생한 30초 뒤에 P 에 포함되는 어떤 물리적 사건이 발생하리라고 예측할 것이다. 그러나 이 예측이 예외 없이 성립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이 예측이 예외 없이 성립하려면 m 이 M 에 포함되는 사건임이 한번 결정되면 그 이후에도 이 포함 관계가 고정되어야 하지만, 정신적 영역에서는 이 관계가 고정되리라는 것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서 우리는 사건을 고정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술어들만이 엄격 법칙을 구성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정신적 영역과 물리적 영역을 연결해주는 엄격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¹²⁴⁾이 바로 데

124) 이 해석에 관하여 두 가지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주장된 것은 우리가 심물 엄격 법칙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지, 심물 엄격 법칙의 존재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 이 비판은 인식론과 형이상학을 넘나드는 오해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주장한 바에 따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신적 상태를 귀속시킬 때, 그 귀속이 고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반론이 일견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귀속의 문제는 인식론적 문제이고, 법칙의 불가능성 문제는 형이상학적 문제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데이빗슨에게 귀속의 문제는 온전히 인식론적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데이빗슨에게 법칙은 언어적인 문제이므로, 엄격 법칙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는, 그 법칙에 해당하는 속성 사이의 관계가 형이상학적으로 가능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옳이 그 법칙에 사용된 개념이나 술어의 특성이 어떠한가(Davidson, 1966)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신적 술어와 물리적 술어가 어떠한 방식으로 귀속되는지, 그리고 그 귀속이 고정적인가를 따져서 엄격 법칙의 불가능성을 검토하는 작업은, 데이빗슨이 받아들이는 형이상학 내에서는 인식론과 형이상학을 혼동하는 오해에 기반한 것이 아니다.

이빗슨의 심물 무법칙성 논증의 핵심이다.

(3)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

이제 우리는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을 논증할 수 있다. 심심 무법칙성을 먼저 보자. 누군가에게 정신적 상태를 귀속하려면 정신적 영역의 구성적 원리인 합리성뿐 아니라 그 사람의 물리적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신적 영역은 강한 구성적 원리를 가지지 못했다. 이 때문에 정신적 술어만으로 이루어진 일반 규칙을 엄격 법칙으로 수정하려면 그 정신적 술어의 귀속 근거인 물리적 특성이 언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까닭에 정신적 술어만으로 이루어진 엄격 법칙을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심물 무법칙성은 다음과 같이 확보된다. 엄격 법칙이 가능하려면 그 법

물론 다른 두 현상, 혹은 개별자를 동일한 술어로 지칭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또 반복적 술어 사용에 기반한 법칙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는 본문의 심물 무법칙성 논변에 한정된 문제라기보다 속성 유명론 전반에 제기될 수 있는 물음으로, 이 물음에 설득력 있는 답변을 제시하는 것은 속성 유명론의 과제라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는 속성 유명론이라는 형이상학적 입장에 대한 옹호가 아니라 데이빗슨이 제시한 심물 무법칙성 논변에 대한 일관적인 해석을 제안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이 물음은 추후의 작업으로 남겨두도록 하겠다.

이 해석에 관하여 제기될 수 있는 두 번째 반론은 다음과 같다. 타인의 정신적 상태에 관해서 우리는 직접적 지식을 가질 수 없으므로, 타인의 마음에 관해서는 데이빗슨의 해석적 귀속이 옳다고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일인칭적 마음에 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확실히 우리는 스스로가 무엇을 믿고 욕구하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 지식을 가진다. 나의 마음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별다른 증거가 필요없으며, 내 마음에 관한 지식은 오류가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 데이빗슨이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가는 아직 문제로 남아있다. 다만 데이빗슨이 이 여러 곳(Davidson, 1984b, 1987, 1988, 1991)에서, 내 주관에 관한 경우에도 오류가 가능할 뿐 아니라 증거에 기반한 경우가 있고, 주관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의 정신적 상태를 언어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일종의 해석이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데이빗슨은 주관에 관해서도 정신적 상태는 해석적으로 귀속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단서에 불과하며, 주관의 특수한 경우에 관한 지적일 뿐이다. 데이빗슨 역시 많은 부분에서 일인칭적 특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일인칭적 정신 상태에 대해 어떻게 술어를 귀속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나의 마음에 관한, 그 자체로 독립적인 하나의 큰 문제이므로, 여기서는 데이빗슨의 심물 무법칙성 논의에 관한 한계를 지적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추후의 작업으로 남겨두도록 하겠다.

칙에 사용되는 술어가 사건을 고정적으로 지칭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어떤 정신적 상태를 귀속시킬 것인가는 축적되는 물리적 증거에 따라 수정 가능하다. 즉, 판단 시점에 고려하는 증거에 따라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바뀔 수 있다. 따라서 개별 정신적 사건을 어떤 정신적 술어로 지칭할 것인가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까닭에 정신적 술어는 엄격 법칙에 포섭될 수 없고, 따라서 정신적 영역과 물리적 영역을 이어주는 엄격 법칙은 불가능하다.¹²⁵⁾

심심 무법칙성과 심물 무법칙성이 모두 확보되었으므로, 이제 우리는 정신적인 것은 무법칙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정신적인 것이 무법칙적인 것은 누군가가 어떤 믿음, 의도, 욕망 등을 가졌다고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를 어느 정도는 합리적이고 일관적인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에게 어떤 믿음, 의도, 욕망을 귀속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증거는 물리적 증거밖에 없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즉, 우리가 한정된 물리적 증거만 주어진다고 불구하고 사람을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말이 되는 존재로 보려는 태도를 견지하는 한, 그리고 사람을 통시간적인 일관성을 어느 정도는 지니는 존재로 보려는 한, 정신적인 것은 엄격 법칙에 의해 포섭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데이빗슨이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을 주장한 이유다.¹²⁶⁾

125) 정신적 술어가 엄격 법칙에 포섭될 수 없는 술어라는 점으로부터 정신적 술어만으로 이루어진 엄격 법칙 역시 불가능하다는 심심 무법칙성도 도출될 수 있다. 실제로 데이빗슨은 정신적 술어와 정신적 사건의 지칭 관계가 판단 시점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점이 정신적 술어가 엄격 법칙에 포섭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철학의 일종인 심리학(Davidson, 1974a)”이라는 논문에서 펼치고 있는데, 이 논문에서 데이빗슨은 심심 무법칙성과 심물 무법칙성을 분리해서 논파하고 있지는 않다. 심심 무법칙성과 심물 무법칙성을 나누어 논파했던 것은 이전(Davidson, 1970a)의 작업으로, 이 논문에 따르면 정신적 술어와 정신적 사건의 지칭 관계가 유동적이라는 점이 확보되기 전에도 심심 무법칙성은 확보될 수 있다. 심심 무법칙성을 독립적으로 확보하려는 이 시도는 유의미하며, 설득력을 지닌다. 이러한 까닭에 본고에서는 정신적 술어가 엄격 법칙에 포섭될 수 없는 술어라는 점으로부터 심물 무법칙성 뿐 아니라 심심 무법칙성 역시 도출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개로 심심 무법칙성이 확보될 수 있음을 논의한 것이다.

126) “따라서 사회과학이 지니는 한계는 자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의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목표와 목적을 가진 합리적 행위자로, 그리고 도덕적 평가를 받아야 할 존재로 보기로 마음먹는 바로 그 순간에 정해진다.”(Davidson, 1974a, p.239(국역본 p.391))

IV. 부수현상론 문제

III에서 우리는 무법칙적 일원론의 근거 중 하나인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이 데이빗슨에게 어떻게 확보되는지를 확인했다. 그러나 아직 무법칙적 일원론이 대답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다. 그것은 무법칙적 일원론이 정신적인 것에 관한 부수현상론이라는 비판이 과연 정당한가 하는 문제이다.

비판자들은 인과 관계의 법칙적 성격을 들어, 무법칙적 일원론에 따르면 정신적 속성이나 설명은 해당 인과 관계를 포섭하는 법칙과 무관하므로 해당 인과 관계와도 무관한 부수현상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고 비판한다. 이 비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로는 무법칙적 일원론이 정신적인 것에 관한 **형이상학적 부수현상론**에 불과하다는 비판으로, 이 비판에 따르면 무법칙적 일원론에서 정신적 속성은 해당 인과와 무관하다. 한편으로, 정신적인 것에 관한 **설명적 부수현상론**이라는 비판에 따르면, 무법칙적 일원론을 받아들일 경우 정신적 설명은 인과와 무관한 설명이 된다.

IV에서는 이 두 비판이 기인한 오해를 바로잡고, 이 비판으로부터 무법칙적 일원론을 옹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1에서는 형이상학적 부수현상론이라는 비판과 그에 대한 데이빗슨의 직접적 대응을, 그리고 데이빗슨의 대응으로 해결되지 않는 설명적 부수현상론이라는 비판을 정리한다. 이어 2에서는 설명적 부수현상론이라는 비판으로부터 무법칙적 일원론이 옹호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데이빗슨의 심신 이론은 그의 전체적 체계, 특히 그의 행위철학과 해석이론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더 완전하게 이해될 수 있음이 드러날 것이다. 만약 이 작업이 성공적이라면, 무법칙적 일원론은 심신 인과에 대한 후보 이론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1. 부수현상론이라는 비판

데이빗슨의 무법칙적 일원론은 정신적 사건이 물리적 사건과 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우리의 직관을 확보하기 위한 이론이다. 더 상세히 말하자면, 무법칙적 일원론은 정신적 술어가 물리적으로 환원되지 않으면서도 인과 문장에 유의미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우리의 직관을 지지하기 위한 형이상학이라 할 수 있다. 즉, 데이빗슨의 목표는 정신적 사건이 인과관계의 유효한 항이 될 수 있는 형이상학을 제공하는 것이다. 무법칙적 일원론에 대한 가장 중요한 비판은 바로 이 지점을 향하고 있다. 비판의 요지는, 무법칙적 일원론에 따르면 정신적인 것은 인과의 부수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만일 이 비판이 옳다면 무법칙적 일원론은 부수현상에 불과한 정신적인 것에 대한 제거주의이거나 혹은 심물 환원을 인정함으로써 정신적인 것이 인과의 부수현상이 아니라는 환원주의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초기의 부수현상론 비판인 형이상학적 부수현상론이라는 비판과 그에 대한 데이빗슨의 본인의 대응을 살펴보고, 이 대응으로 해결될 수 없는 설명적 부수현상론이라는 비판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1)에서는 정신적 속성을 인과의 부수현상으로 만든다는 비판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본다, (2)에서는 이 비판에 관한 데이빗슨이 대응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이 대응이 성공적임을 논증할 것이다. 그러나 이 대응에도 불구하고 무법칙적 일원론은 설명적 부수현상론이라는 비판으로부터는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3)장에서는 이 설명적 부수현상론이라는 비판이 무엇인지 해명하도록 한다.

(1) 형이상학적 부수현상론이라는 비판

무법칙적 일원론에 따르면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을 버리지 않고서도 법칙적 물리 세계 내에서 정신적인 것의 인과적 자리가 확보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¹²⁷⁾이 무법칙적 일원론이 정신적 사건의 인과적 자리는 확보하였으나 정작 정신적인 것의 인과적 유관성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무법칙적 일원론에 따르면 사건의 정신적 속성이 인과 관계와 무관해져 버린다고 지적한다. 요컨대, 무법칙적 일원론은 정신적인 것에 대한 부수현상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정신적 속성에 관한 부수현상론이므로, 이 비판은 **형이상학적 부수현상론**이라고 할 수 있다.

본격적 논의에 앞서, 이 형이상학적 부수현상론¹²⁸⁾에 관하여 더 엄밀하게 정의해둘 필요가 있다. 매크글린¹²⁹⁾은 브로드¹³⁰⁾의 구별을 받아들여 정신적인 것에 대한 부수현상론을 유형 부수현상론과 개별자 부수현상론으로 구분한다. 유형 부수현상론에서는 어떤 사건이 원인이 되려면 그 사건은 물리적 사건 유형에 속해야 한다. 반면 개별자 부수현상론은 오직 물리적이기만 한 사건만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사건이 정신적 사건일 경우에 그것이 물리적 사건 유형에 속하기도 한다면 유형 부수현상론에서는 그 사건이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신적 사건은 개별자 부수현상론에서는 결코 원인이 될 수 없다.

이와 같은 구분을 받아들이면 비판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무법칙적 일원론은 정신적 사건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자 부수현상론은 아니다. 그러나 무법칙적 일원론에서 해당 사건이 정신적 속성을 가졌다는 사실은 그 사건을 인과 관계의 항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무법칙적 일원론은 정신적 속성의 인과적 유관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유형 부수현상론¹³¹⁾에 불과하다.

127) 이러한 비판을 제기하는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Stoutland(1976, 1985), Honderich(1982, 1983), Kim(1984a, 1984b, 1989a), Sosa(1984), Johnston(1985), Dretske(1989) 등이 있다.

128) (1)과 (2)에서는 형이상학적 부수현상론이라는 비판만을 다루고 있으므로, (1)과 (2)에 한정하여, “부수현상론이라는 비판”, 혹은 “부수현상론 비판”을 형이상학적 부수현상론이라는 비판을 일컫는 표현으로 사용하겠다.

129) McLaughlin, 1989, pp.109-110

130) Broad, 1925

무법칙적 일원론에 대한 이런 비판은 사건이 가지는 여러 속성 중 어떤 속성은 그 사건이 맺는 인과 관계와 유관하고, 어떤 속성은 그 사건이 맺는 인과 관계와 무관하다는 직관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직관은 소사의 사례¹³²⁾에서 잘 드러난다.¹³³⁾ 사건 *c*가 원인이 되어 사건 *e*가 발생했고, 이 두 사건 사이의 인과 관계는 다음 문장에 의해 참되게 기술된다고 가정하자. (사건 *c*: 총이 발포된 사건, 사건 *e*: 그 사람이 죽은 사건)

① 총이 발포된 그 사건이 원인이 되어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런데 이때 총이 발포되면서 시끄러운 소리가 났다고 하자. 그렇다면 사건 *c*는 또한 시끄러운 소리가 난 사건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건 *c*와 사건 *e* 사이의 인과 관계는 다음 문장으로도 참되게 기술된다.

② 시끄러운 소리가 난 그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그 사람이 죽었다.

위의 두 인과 문장은 동일한 인과 관계를 기술하는 참인 인과 문장이다. 그러나 ①과 ②는 그 설명적 가치가 다르다. 사건 *c*가 총이 발포된 사건이기도 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난 사건이기도 하다는 것은, 사건 *c*가 총이 발포됨이라는 속성과 시끄러운 소리가 남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예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¹³⁴⁾

이제 누군가가 사건 *c*가 왜 사건 *e*를 야기하였는지를 물었다고 가정하자. 이는 사건 *c*의 어떤 속성이 이 인과에 기여하였느냐는 물음이며, 다음 두 물음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131) 다만 (1)과 (2)에서 다룰 부수현상론은 오직 유형 부수현상론이기 때문에, (1)과 (2)에 서는 ‘부수현상론’은 유형 부수현상론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겠다.

132) 아래의 사례는 소사(Sosa, 1984, p.277)의 사례를 재구성한 것이다.

133) 이와 비슷한 사례가 드레츠키(Dretske, 1989, p.1)에서도 언급된다.

134) 논의를 위해 사건 *c*가 예화했을 다른 속성들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 ③ 사건 c 가 총이 발포된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 c 가 사건 e 를 야기하였는가?
- ④ 사건 c 가 시끄러운 소리가 난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 c 가 사건 e 를 야기하였는가?

우리는 질문 ③에는 그렇다고 답하지만, ④에는 아니라고 답할 것이다. 그것은 만약 사건 c 가 총의 발포가 아니었더라면, 그 사람이 죽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사건 c 는 사건 e 의 원인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직관에 의존한다. 반면, 사건 c 가 시끄러운 소리가 남이라는 속성을 갖지 않았더라도 사건 c 는 여전히 총의 발포라는 속성은 가졌을 것이고, 총이 발포된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사람이 죽었을 것이다. 즉, 사건 c 는 여전히 사건 e 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요컨대, 질문 ③, ④에 대한 우리의 답에는 다음과 같은 직관이 전제되어 있다.

- ⑤ 사건 c 가 총이 발포됨이라는 속성을 예측하지 않았더라면, 사건 c 는 사건 e 를 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 ⑥ 사건 c 가 시끄러운 소리가 남이라는 속성을 예측하지 않았더라도, 사건 c 는 사건 e 를 야기하였을 것이다.

이 직관을 지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법칙이다. 총의 발포라는 사건 유형과 사람의 죽음이라는 사건 유형 사이에는 법칙적 연결이 있다. 우리는 (물론 세부사항이 덧붙여지겠지만.) 총의 발포로부터 사람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엄격 법칙이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바로 이 법칙 때문에 사건 c 가 사건 e 를 야기했다고 받아들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칙에 포섭되는 속성을 가지지 못하면 사건 c 는 더 이상 사건 e 를 야기할 수 없다. 반면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사건이라는 사건 유형과 사람의 죽음이라는 사건 유형은 법칙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즉, 시끄러운 소리가 남이라는 속성이 없더라도 이 인과 관계를 지지하는 법칙은 여전히 두 사건을

이어줄 것이다. 이 때문에 시끄러운 소리가 남이라는 속성을 가지지 않더라도 사건 *c*는 사건 *e*의 원인이 된다.

이제 사건이 가지는 모든 속성이 그 인과에 동일한 정도로 유관하지 않다는 말의 의미가 명료해진다. 사건의 어떤 속성은 인과 관계를 지지하는 법칙에 포섭된다. 그래서 그 속성이 없으면 해당 사건은 그 인과 관계에 놓일 수 없다. 바로 이러한 속성들이 인과에 유관한 속성이다. 반면 어떤 속성은 인과 관계를 지지하는 법칙과 무관하다. 그래서 그 속성이 없어도 그 인과 관계는 유지된다. 바로 이러한 속성들이 인과에 무관한 속성이다.

사건의 속성이 그 사건이 맺는 인과 관계와 유관하거나 무관하다는 직관은 무법칙적 일원론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한다. 사건의 정신적 속성이 그 사건이 맺는 인과 관계에 유관한가? 무법칙적 일원론에서 정신적인 것은 무법칙적이다. 따라서 정신적 술어는 법칙을 구성할 수 없으며, 그 술어로 지칭되는 정신적 속성 역시 법칙에 의해 포섭될 수 없다. 그런데 속성은 인과 관계를 지지하는 법칙에 포섭될 때만 그 인과에 유관하다. 따라서 무법칙적 일원론에 따르면 정신적 속성은 인과와 무관한 속성이다.¹³⁵⁾

물론 무법칙적 일원론이 **정신적 속성**에 관한 부수현상론이라고 하더라도, 무법칙적 일원론 내에서 **정신적 사건**은 여전히 인과 관계의 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신적 속성이 인과적으로 무관한 상황에서 정신적 사건이 다른 사건을 야기했다거나 다른 사건에 의해 야기되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심신 인과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확보하고자

135) 소사는 무법칙적 일원론이 다음 사태를 허용하기에, 정신에 관한 부수현상론이라고 지적한다.

“만약 나의 욕구인 그 사건이 내 욕구는 아니면서 특정한 신경생리학적 사건이라는 것은 유지되었더라면, 그것은 내 손의 뻗어나감을 지금과 동일하게 야기하였을 것이다.”(Sosa, 1984, p.278)

했던 것은 욕구, 믿음 등이 행위의 참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초기의 목표는 욕구, 믿음 등을 가졌기 때문에 행위가 발생한다는 일상적 직관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신적 속성이 인과와 무관하다면, 욕구, 믿음 등의 정신적 속성은 인과의 부수현상이 되어 해당 속성을 가진 사건의 인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스타우트랜드의 지적은 이 문제를 잘 보여준다.

“모든 인과적 법칙은 물리적이라는 그(데이빗슨)의 관점은 오직 물리적 속성만이 법칙적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유는 심리적 속성의 덕택으로는 행위를 야기할 수 없는데, 심리적 속성은 법칙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심리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 사이를 이어주는 어떠한 법칙적 관계도 없다. 그러나 만약 이유가, 물리적 속성의 덕택으로만 행위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심리적인 것으로서의 심리적인 것은 어떠한 인과적 효력도 갖지 못한다.”¹³⁶⁾

스타우트랜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정신적인 것이 무법칙적이라면, 정신적 속성은 인과적으로 무관하다. 특정 욕구를 속성으로 가지는 사건 c 가 어떤 행위 e 를 야기했다고 할 때, 사건 c 가 그 욕구를 속성으로 가지지 않았더라도 사건 c 는 사건 e 를 야기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그 욕구가 없었더라도 사건 e 인 그 행위는 여전히 발생했을 것이다. 반면 물리적인 것은 법칙적이므로 물리적 속성은 인과적으로 유관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속성을 가지지 않았더라도 사건 c 가 사건 e 를 야기하지 못했을 그런 속성은 오직 물리적 속성뿐이다. 즉, 사건 c 는 특정 물리적 속성을 가진 덕택에 사건 e 를 야기한 것이다. 그렇다면 욕구, 믿음 등은 어떤 행위를 야기하는 데 있어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한다. 그 욕구나 믿음을 가지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는 야기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원인 사건이 욕구나 믿음을 속성으로 가졌다는 사실은 결과인 행위와 무관한 일인 것이다. 이는 정신적인 것이 행위의 참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확보하려던 애초의

136) Stoutland, 1985, p.85 (괄호는 필자)

목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지점에서, 무법칙적 일원론이 비록 정신적 속성에 관한 부수현상론일 지라도 정신적 사건이 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은 확보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이 다시 한 번 제기될 수 있다. 요컨대, 무법칙적 일원론이 정신적 사건의 인과적 유관성은 확보하였고, 적어도 그 점에서 의의가 있지 않은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김재권은 이러한 의문에 다음과 같이 대응한다.

“그러므로, 무법칙적 일원론은 정신적 속성에 어떤 인과적 역할도 허용하지 않는다… 인과적 역할이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그것이 아예 존재하지를 않는다면 …정신적인 것을 세계의 부분으로 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기 어렵다.”¹³⁷⁾

김재권의 지적은 다음과 같다. 어떤 이론 하에서 특정 속성이 인과적 역할을 담당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존재한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세계 내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하나, 어떤 인과 관계와도 무관한 속성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알기 어렵다. 만약 무법칙적 일원론 내에서 정신적 속성이 인과적으로 무관한 속성이라면, 정신적 속성이 세계 내에 존재한다고 믿어야 할 다른 이유를 데이빗슨은 제시해주어야 할 것이다. 만약 데이빗슨이 이 요구에 답하지 못한다면, 정신적 속성이 존재한다고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없고, 따라서 그런 속성을 가지는 어떤 사건, 요컨대 정신적 사건이 존재한다고 받아들여야 할 이유도 없다.¹³⁸⁾

137) Kim, 1989a, p.35

138) 이러한 점에서 데이빗슨은 부수현상론이라는 비판이 무법칙적 일원론의 내적 비밀관성을 함축한다고 주장한다. 이 비판은 무법칙적 일원론 내에서 정신적 속성은 인과의 부수현상이라는 지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속성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때문이다.

“비판은 연결되어 있다. 만약 무법칙적 일원론이 정신적인 것을 인과적으로 무력하게 만들면, 무법칙적 일원론은 첫째 전제가 거짓임을 함축하고 따라서 세 전제의 비밀관성

요컨대, 부수현상론이라는 비판은 정신적 속성이 인과적으로 무력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건의 존재 자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비판이다. 이 비판은 일차적으로 정신적 사건이 정신적 속성을 가진 것은 인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 사건이 물리적 속성을 가진 덕택에만 인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법칙적 일원론을 정신적 속성이 인과적으로 무력한 이론으로 만든다. 그럼으로써 데이빗슨이 초기에 확보하고자 했던 정신적인 것이 인과의 참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목표를 무너지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 게다가, 김재권의 비판에 따르면 무법칙적 일원론 내에서 정신적 속성은 인과적으로 무력하다는 점에서 그 존재마저 위협받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이 성립한다면 데이빗슨이 확보하고자 했던 정신적 사건의 자리마저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무법칙적 일원론이 정신 인과에 대한 일상적 직관을 잘 해명하고 정신적인 것의 인과적 자리를 확보하는 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부수현상론이라는 비판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2) 데이빗슨의 대응

호건, 맥로글린, 르포어와 로어, 포더 등이 부수현상론이라는 비판으로부터 무법칙적 일원론을 옹호하기 위해 시도했다.¹³⁹⁾ 그러나 이 시도들은

을 함축한다.” (Davidson, 1993, p.3)

그러나 비판자들 스스로는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김재권(Kim, 1993a)은 부수현상론 비판이 무법칙적 일원론의 내적 모순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다.

139) Horgan(1989, 1997), LePore and Loewer(1987, 1989) 등은 정신적 속성과 물리적 속성 사이에 반사실적 의존관계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정신적 속성의 인과적 유관성을 확보하려고 시도한다. 반면 McLaughlin(1989), Fodor(1989, 1991) 등은 물리적 술어로만 구성 가능한 엄격 법칙이 아니라, 정신적 술어도 포함될 수 있는 느슨한 법칙에 의해서도 인과 관계가 토대지어질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정신적 속성의 유관성을 확보하려고 시도한다.

그 자체로 여러 비판에 직면해 있으며,¹⁴⁰⁾ 그 기본 전제가 데이빗슨의 대응과 양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¹⁴¹⁾ 그러한 까닭에 여기서는 데이빗슨 본인이 형이상학적 부수현상론이란 비판에 일차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다.

부수현상론 비판에 반박하면서, 데이빗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글에서 나는 세 가지를 시도하려 한다. 첫째, 무법칙적 일원론을 오해와 오역으로부터 변호할 것이다.”¹⁴²⁾

140) 이 시도들은 이미 여러 번 비판받은 바 있다. 느슨한 법칙에 의해 인과 관계가 토대지어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데이빗슨 본인이 다음과 같이 대응한다.

“포터와 김재권은 모두, 모종의 심물 법칙이 없다면 정신적인 것이 무력해질 것이라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 그러나 내 비판자들과 다르게, 나는 심물 법칙이 전혀 없어도 정신적인 것이 인과적으로 무력하다는 것이 증명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Davidson, 1993, pp.11-12)

그 외에 대해서는 김기현의 다음 평가를 볼 수 있다.

“반사실적 의존 관계를 통하여 토대지워진 정신적 속성의 인과 관계가 엄밀한 법칙에 의하여 포섭되는 관계와 그 외연이 우연적으로 일치되는 것으로 보면, …데이빗슨의 인과의 합법칙적 특성의 명제 자체와 어울리지 않으며, 물리계의 폐쇄성을 위배하고, 또한 포괄적 우연의 가정은 방법론적으로도 결함이 있다는 수많은 문제점을 안는다. 한편, 인과의 합법칙성의 원리를 인과 관계를 부여할 수 있는 외연을 필연적으로 제한하는 원리로 보면, 위와 같은 문제들을 벗어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반사실적 의존 관계를 통하여 정신적 속성이 갖는 인과적 효력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든다. 여기서 우리가 한가지 주목할 점은 위의 논의는 정신적 속성의 인과적 효력을 그를 구현하는 물리적 속성이 갖는 것 이외에서 찾으려는 모든 시도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반사실적 의존 관계든 다른 관계…든 그것이 엄밀한 법칙에서 제시되는 관계와 다른 것이라면…, 그렇게 정초된 인과 관계가 왜 엄밀한 법칙에 의하여 포섭되는 관계와 외연이 일치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되며, 이 문제가 제기되면 그 입장은 동일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기 때문이다.”(김기현, 2002, pp.50-51)

이 외의 비판에 대해서는 하종호(1994), 최훈(2004)을 보라.

141) 이 장의 뒷부분에서 설명되듯, 데이빗슨은 자신의 형이상학 내에서 속성은 인과적으로 무관하거나 유관할 수 있는 존재자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여 부수현상론이라는 비판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제시된 시도들은 모두 **정신적 속성의 인과적 유관성**을 확보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데이빗슨과 기본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142) Davidson, 1993, p.3

이 언급에 따르면, 데이빗슨은 부수현상론이라는 비판이 무법칙적 일원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나 해석에서 비롯된 비판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오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에 대한 데이빗슨 자신의 설명이 난해하여, 그 논증 구조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 할 작업은 두 가지다. 첫째, 데이빗슨이 보기에 부수현상론이라는 비판이 어떤 오해와 오역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둘째, 그 오해가 해소되면 무법칙적 일원론이 부수현상론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데이빗슨이 오해라고 주장하는 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수현상론이라는 비판이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앞서 6.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법칙적 일원론이 정신적인 것에 대한 부수현상론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사건이 가지는 속성 중 어떤 속성은 인과적으로 유관한 속성이고, 어떤 속성은 인과적으로 무관한 속성임을 전제하고 있다. 요컨대, 인과 관계를 맺는 사건의 속성이 모두 그 인과 관계와 유관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는 곧, 한 사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속성 덕택에¹⁴³⁾ 다른 사건의 원인이나 결과가 된다는 말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① 사건이 예화하는 속성은 그 사건이 맺는 인과 관계와 유관하거나 무관하다.¹⁴⁴⁾

비판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인과 관계를 포섭하는 엄격 법칙에 의해 포섭되는 속성만이 인과에 유관한 속성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이 전제와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을 결합하여, 오직 물리적 속성만이 인과적으로 유관한 속성임을 주장한다. 요컨대, 엄격 법칙에 의해 포섭된 그 속

143) 김재권은 이 관계를 'in virtue of'(Kim, 1989a, p.43)라고, 소사는 'as'(Sosa, 1984, p.277), 'qua'(Sosa, 1984, p.278)라 말한다.

144) 이는 배타적 선언 주장으로 봐야 한다.

성 덕택에 그 사건은 인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다. 이들의 이러한 주장에는 다음이 전제되어 있다.

② 인과 관계는 엄격 법칙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만약 이 두 전제가 거부된다면, 특정 속성이 인과적으로 유관한 속성인지 무관한 속성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②가 없다면 물리적 속성만이 인과적으로 유관한 속성이라고 주장하는 핵심적인 근거가 사라지며, ①이 없다면 사건의 어떤 속성이 인과적으로 유관하다거나 무관하다고 할 수 없어지기 때문이다.

①부터 보자. ①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사건은 속성을 예화하는 존재자다. 둘째, 사건이 예화하는 속성은 그 사건이 맺는 인과 관계와 유관하거나 무관하다.¹⁴⁵⁾ 바로 이 지점에 데이빗슨이 지적인 오해가 있다. 데이빗슨에게 사건은 속성을 예화하는 존재자라고 볼 수 없다. 데이빗슨의 이론에서 속성은 사건 규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도 없으며, 속성이 존재자라는 것조차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데이빗슨의 이론 체계 내에서 속성은 사건 규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도 담당하지 않는다.¹⁴⁶⁾ 우선, 사건의 동일성을 따질 때 속성은 고려 대

145) “비판자들이 논증해온 바는 인과 관계가 구체적 사건 사이의 이항적 외연 관계라는 것과 완전히 일관적이다. …우리는 구체적 사건 사이의 이항적 인과 관계를 만들어 내거나 근거 지어주는 속성의 인과적 역할, 혹은 사건 속성의 역할에 대해 말하는 방식도 필요로 한다.” (Kim, 1993a, p.21)

146) 백도형 역시 이 점을 지적한다.

“그에 반해 데이빗슨의 경우는 사건 개념에서 속성이 전혀 개입하지 않았듯이 개별 사건들 간의 외연적 관계인 인과성과 동일성 관계에서도 속성은 전혀 아무런 역할을 부여받지 못한다.”(백도형, 2014, p.95)

형이상학적 부수현상론이라는 비판이 보편자 실재론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는 데이빗슨이 유명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법칙적 일원론에 대한 결정적인 비판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백도형(1995)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백도형(2001, 2002, 2004a, 2004b)은 심신 문제 논의에 사실은 속성에 관한 다양한 존재론이 혼재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그 존재론적 전제를 명확히 하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데이빗슨이 취하고 있는 유명론적 입장을 발전시켜 유명론적 심신 이론을 확립하려는

상이 되지 않는다.¹⁴⁷⁾ 뿐만 아니라, 한 사건이 정신적 사건인가 물리적 사건인가를 판별하는 데 있어서도 속성은 어떠한 역할도 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흔히 간과된다. 예컨대, 부수현상론이라는 비판을 제기하면서 김재권은 무법칙적 일원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데이빗슨의 이론 내에서 모든 사건이 물리적이라는 것은 참이다. 다시 말해, 모든 사건은 물리적 속성을 가진다.”¹⁴⁸⁾

여기서 김재권이 데이빗슨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확인 가능하다. 김재권에 따르면, 데이빗슨에게 어떤 사건이 물리적이라는 것은 그 사건이 모종의 물리적 속성을 가진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인 것이다.

그러나 데이빗슨에게 어떤 사건이 정신적 사건이냐 물리적 사건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그 사건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다. 데이빗슨이 정신적 사건과 물리적 사건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보자.

“...다음 두 경우 중 한 가지가 만족될 때에만 한 사건은 정신적이다. 첫째, 그 사건이 정신적 기술을 가질 때 그리고 오직 그때만, 둘째, 그 사건에 대해서만 참인 정신적 열린 문장이 있을 때. 물리적 사건은 오직 물리적 어휘만을 본질적으로 포함하는 기술이나 열린 문장에 의해 골라지는 사건이다.”¹⁴⁹⁾

여기서 우리는 데이빗슨에게 어떤 사건이 정신적인가 물리적인가는 오직 그 사건에 대한 기술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다음 인용문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작업으로 이어진다. 다만 본고의 목표는 무법칙적 일원론에 전제된 데이빗슨의 형이상학을 발전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기되는 다양한 비판들에 맞서 무법칙적 일원론이 어떻게 방어될 수 있는가를 무법칙적 일원론에 대한 해석적 측면에서 고찰하는 것이므로, 본고에서 이 입장을 더 다루지는 않겠다. 백도형의 유명론적 심신 이론은 백도형(2001, 2005, 2012, 2014)을 참고하라.

147) 특수자의 동일성은 외연적 문제라는 것에 관해서는 Davidson(1969)을 보라.

148) Kim, 1989a, p.43

149) Davidson, 1970a, p.211(국역본 p.353*)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적 원리>는 정신적인 것으로 기술된 사건들에만 관계한다. 왜냐하면 사건이 정신적이려면 반드시 기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¹⁵⁰⁾

요컨대, 속성은 사건 규정에 어떠한 역할도 담당하지 않는다.

게다가 데이빗슨의 체계 내에서는 속성이 존재자라는 것조차 확보될 수 없다. 데이빗슨이 받아들이는 콰인의 존재론에 따르면¹⁵¹⁾ 우리는 문장을 그 논리적 구조가 가장 잘 드러나는 방식으로 분석했을 때 양화 가능한 대상을 존재자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데이빗슨이 제시한 행위, 인과, 설명 문장에 대한 어떤 분석에서도 속성은 양화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데이빗슨에게 속성을 존재자로 받아들여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데이빗슨에게 사건이 속성을 예화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그러나 사건이 속성을 예화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①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 ①이 성립하려면 인과 관계는 사건이 예화하고 있는 속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¹⁵²⁾ 예컨대, 사건이 가지는 특정 속성 덕택에 그 인과 관계가 성립되었다거나 혹은 다른 방식의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 하지만 데이빗슨에게 인과 관계는 속성과 무관한, 개별 사건 사이의 외연적 관계다.

“김재권이 ‘기억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법칙적 일원론 하에서 사건은 오직 법칙을 예화함으로써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나의 주장과 전혀 다르

150) Davidson, 1970a, p.215(국역본 p.359, 강조는 필자)

151) 데이빗슨이 콰인(Quine, 1960)의 존재론을 받아들이고 있음은 Davidson(1969)을 보라.

152) 물론 속성 예화 사건이론의 경우에는 인과 관계를 속성에 유관한 방식으로 정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인과 관계를 속성에 유관한 방식으로 정의하는 것이 속성 예화 사건이론의 경우에 일반적이거나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속성 예화 사건이론이라면 인과 관계를 속성에 유관한 방식으로 정의해야 함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본문의 작업은, 속성 예화 사건이론의 경우에도 인과 관계를 속성에 무관한 방식으로 정의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므로, 이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보자는 것이다.

다. 나의 사건 개념과 인과 개념을 고려한다면, 사건이 ‘로써’ 원인이 된다는 말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 사건은 비추상적 개별자이며, 인과관계는 그러한 사건들이 이루는 외연적 관계인 것이다.”¹⁵³⁾

인용에 따르면 인과 관계는 사건이 사건과 맺는, 개별자들 사이의 관계다. 사건 이외의 어떠한 것도 인과 관계의 항이 될 수 없으며, 영향을 미칠 수도 없다. 속성 또한 인과 관계에서 어떠한 역할도 담당할 수 없다. 즉, 사건이 속성을 예화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데이빗슨의 체계에서 그 속성은 인과 관계와 무관하다. 요컨대, 어떤 속성이 인과적으로 무관하다거나 유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데이빗슨에게는 무의미하다. 따라서 ①을 전제한 채로 무법칙적 일원론을 받아들이면 정신적 속성이 인과적으로 무관해진다는 주장은 무법칙적 일원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¹⁵⁴⁾

② 또한 문제다. 인과의 법칙성 원리를 설명하면서 데이빗슨 “인과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법칙도 있다”¹⁵⁵⁾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법칙이 인과 관계의 근거나 토대라는 주장이 아니다**. 여기서 데이빗슨이 지적하는 바는, 인과 관계를 맺는 두 사건은 어떤 법칙에 의해 포섭되는 방식으로 기술될 수 있다는 것뿐이다. 이는 이 두 번째 원칙에 대한 다음 설명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내가 무법칙적 일원론을 논증하면서 가정했던 두 번째 전제는, 만약 두 사건이 원인과 결과 관계에 있다면, 그 사례를 포섭하는 법칙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다. … (언어로 정식화된)어떤 법칙이, 발생한 그 사건(적절하게 기술된)을 언급하는 문장과 함께하여 (적절하게 기술된)결과 사건이 존재함을 단언할

153) Davidson, 1993, p.6

154) 이렇기 때문에, 앞서 언급된 옹호자들(Horgan, LePore and Loewer, Mclaughlin, Fodor)은 속성 인과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무법칙적 일원론을 성공적으로 옹호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55) Davidson, 1970a, p.208(국역본 p.349*)

수 있는 문장을 함축한다면, 그 법칙은 사례를 포섭한다.”¹⁵⁶⁾

요컨대, 인과의 법칙적 성격 원리는 인과 관계를 맺는 두 사건을 언어적으로 포섭하는 법칙이 있음을 의미하는 원리¹⁵⁷⁾이지, 인과의 존재론적 토대를 밝히는 원리가 아니다.

게다가 다음 인용문에 명시된 것처럼, 데이빗슨의 이론 체계에서 인과 관계는 개별 사건들 사이의 외연적 관계고, 법칙은 술어 사이의 관계다.¹⁵⁸⁾

“인과와 동일함은 어떻게 기술되든 개별 사건들 사이의 관계다. 그러나 법칙은 언어적이다. 따라서 사건은 이런저런 방식으로 기술되는 한에서만, 법칙의 한 예가 되고 그리하여 법칙에 비추어 설명되거나 예측될 수 있다.”¹⁵⁹⁾

156) Davidson, 1993, p.8

157) 그러나 이것이 어떤 단칭 인과 진술이 참임을 알기 위해 그 법칙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다수의 단칭 인과 진술들이 (C)가 (L)의 지원을 받는, 그런 법칙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일반적인 관계는 오히려 다음과 같다. 만약 ‘a가 b의 원인이 되었다’가 참이면 ‘a’와 ‘b’를 그것에 대한 기술로 대체하여 그 결과가 (L)과 (P) 형태의 참인 전제들에 의해 함축되게 할 수 있다. …만약 이것이 옳다면 우리가 한 단칭 인과 진술이 참이라는 것을 알더라도 우리가 어떤 법칙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게 된다. 그 관계를 포섭하는 법칙이 있다는 것만 알면 되는 것이다.”(Davidson, 1967a, pp.159-160(국역본 p.279*))

“…또 한 설명은 단칭 인과 진술은 어떤 법칙도 함축하지 않으며 또 관련된 법칙을 전혀 몰라도 그 진술이 참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내 생각에는 이 두 설명 다 내가 제시한 설명이 함축하며, 또한 서로 일관적이다.”(Davidson, 1967a, p.160(국역본 p.280))

이 인용문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 해당 인과 관계를 포섭하는 법칙을 알아야만 그 인과 관계를 표현하는 단칭 인과 진술이 참임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어떤 법칙이 있다고 믿을 수만 있으면, 그 법칙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더라도 그 단칭 인과 진술이 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해당 인과 관계를 포섭하는 법칙이 있다는 우리의 믿음은 틀릴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가 참이라고 믿는 단칭 인과 진술 역시 거짓일 수 있다. 데이빗슨은 우리의 믿음이 틀릴 이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적용되는 엄격 법칙을 알아야만 해당 단칭 인과 진술이 참임을 판단할 수 있다는 주장을 거부하는 것 뿐이다.

158) 법칙이 술어의 문제인 까닭에, 법칙은 인과 관계와 존재론적으로 관련되었다기보다 설명적으로 관련된다. 이에 대해서는 Davidson(1967a, pp.155-156)을 보라.

이는 법칙이 인과 관계의 토대가 아님을 분명히 한다. 어떤 존재론적 관계가 그 토대를 언어적 관계에 두고 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백도형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러나 이때 주의할 것은 데이빗슨의 경우 법칙은 언어적일 뿐 자연의 필연성과 같은 존재 차원은 아니라는 것이다. …인과성은 철저한 개별 인과로 그것이 어떻게 서술되는가와 전혀 상관없이 성립한다. 물리적인 서술이 법칙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때의 인과관계가 바로 그 물리적인 서술 때문에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¹⁶⁰⁾

백도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데이빗슨에게 법칙은 술어 사이의 관계로, 사건은 특정한 방식으로 기술되었을 때만 법칙에 포섭된다. 만약 법칙이 인과 관계의 토대라고 하면, 사건이 특정 방식으로 기술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 사건이 인과 관계를 맺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과 관계는 그 인과 관계를 맺는 사건이 어떻게 기술되는지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사건 사이의 외연적 관계다. 다시 말해, 인과 관계의 성립 여부는 그 사건의 기술과는 무관한 일이다. 따라서 데이빗슨의 이론 체계 내에서, 언어적 관계인 법칙은 사건들 사이의 외연적 관계인 인과 관계의 근거나 토대가 될 수 없고, 부수현상론이라는 비판의 공통된 전제인 ② 역시 데이빗슨의 체계와 비일관적이다.

그러므로 ①과 ②는 모두 무법칙적 일원론과 비일관적이다. 그런 까닭에 ①, ②를 전제했을 때 무법칙적 일원론이 부수현상론이 된다는 것은 무법칙적 일원론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아니다. 부수현상론이라는 비판은 무법칙적 일원론이 내적 비일관성을 보인다는 비판인데, 한 이론과 모순되는 존재론을 가정한 채로는 그 이론이 비일관적임을 논증할 수 없기 때문이

159) Davidson, 1970a, p.215(국역본 p.359)

160) 백도형, 2014, pp.102-103.

다. 따라서 부수현상론이라는 비판은 무법칙적 일원론에 대한 비판으로 성립할 수 없으며,¹⁶¹⁾ 이 비판은 무법칙적 일원론에 대한 오해로부터 비롯되었다는 데이빗슨의 대응은 성공적이다.¹⁶²⁾

(3) 설명적 부수현상론이라는 비판

형이상학적 부수현상론이라는 비판은, 무법칙적 일원론에 따르면 정신적 속성은 인과와 무관한 속성이 된다는 비판이다. 이 비판은, 무법칙적 일원론이 받아들이는 존재론 하에서 속성은 인과적 유관성이나 무관성을 따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데이빗슨의 대응에 의해 성공적으로 격파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형이상학적 부수현상론이라는 비판에 대한 데이빗슨의 대응이 충분치 않다는 비판이 여러 번 제기되었다.¹⁶³⁾ 이들의 논지를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과는 개별 사건 사이의 외연적 관계라는 대응으로는 비판을 제거할 수 없다. 속성이 이 단칭 인과 관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 ‘말하는 방식’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개별 단칭 인과 관계가 왜 성립하는가가 대답되어야 하며, 그

161) 데이빗슨은 부수현상론이라는 비판이 자신의 형이상학 내에서 무의미하다고 지적한다.

“내가 앞서 말했듯, 인과 관계에 대한 외재주의적 관점 하에서 어떤 사건이 심적인 것으로서, 혹은 그 심적 속성에 의해서, 혹은 특정 방식으로 기술된 것으로서 무언가를 야기한다는 말은 무의미하다.” (Davidson, 1993, p.13)

162) 데이빗슨의 대응은 속성 실재론을 전제하는 사람에게까지 무법칙적 일원론을 왜 받아들이야 하는지에 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 성공은 조건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물론 속성 실재론과 속성 유명론 가운데 무엇이 더 적절한 형이상학적 입장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이 논문의 목적은 데이빗슨의 무법칙적 일원론에 대한 전방위적 옹호가 아니라, 무법칙적 일원론이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주요한 비판들로부터 어떻게 방어될 수 있는지를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속성 실재론에 관한 개별적인 논의는 진행하지 않는다.

163) Kim(1993a), Sosa(1993), McLaughlin(1993), 선우환(2011)을 보라.

대답에서 사건의 심적 속성은 여전히 부수현상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캠벨은 이러한 비판을 데이빗슨의 무법칙적 일원론에 대한 ‘설명적 부수현상론’ 비판이라 명명한다. 설명적 부수현상론이라는 비판에 대한 캠벨의 설명을 보자.

“나는 새로운 형태의 부수현상론, ‘설명적 부수현상론’을 제안한다. 이것은 A의 정신적 속성을 밝히는 것이 A의 행동에 관한 인과적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¹⁶⁴⁾

“무법칙적 일원론이 강한 의미에서의 부수현상론을 함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부수현상론이라는 비판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나는 데이빗슨의 이론이 보다 약한 의미의 부수현상론, 즉 행위자가 행위한 일차적 이유에 대한 규정이 행위자의 행동을 인과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론으로 나아간다고 믿을 만한 좋은 이유들이 있다고 생각한다.”¹⁶⁵⁾

캠벨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무법칙적 일원론에 따르면 원인 사건의 정신적 측면을 밝히는 것, 다시 말해 정신적 설명은 결과에 대한 인과적 설명이 아니다. 그리고 정신적 설명이 인과적 설명이 아니라면 정신적 술어는 인과적 설명에서 어떠한 역할도 담당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정신적인 것은 인과적 설명의 영역에서 부수현상이 된다. 요컨대, 무법칙적 일원론은 정신적인 것에 대한 설명적 차원에서의 부수현상론이다.

무법칙적 일원론은 정신적인 것에 대한 설명적 부수현상론이라는 비판이 성립하려면, 무법칙적 일원론 하에서 정신적 설명은 인과적 설명이 아님을 확보해야 한다. 캠벨은 그 근거로 법칙을 제시한다. 무법칙적 일원론에 따르면 모든 단칭 인과 관계는 어떤 엄격 법칙에 의해 포섭되며, 이때 엄격 법칙은 오직 물리적 술어로만 이루어진다. 이는 물리적 술어만이

164) Campbell, 2005, p.437.

165) Campbell, 1998, p.25

그 단칭 관계를 포섭하는 엄격 법칙에 의거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것만이 인과적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¹⁶⁶⁾ 알로 위츠에 따르면, 여기에는 “진정한 설명은 법칙을 필요로 한다”¹⁶⁷⁾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만약 이 전제가 옳다면, 정신적 술어는 단칭 인과 관계가 포섭되는 그 법칙에 의거한 설명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정신적 설명은 인과적 설명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이 전제가 한 단칭 인과 관계가 포섭되는 그 엄격 법칙을 직접 기술하는 설명만이 인과적 설명이라는 의미라면 이 반론은 성립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라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설명은 인과적 설명이 아니다. 물리적 설명을 포함한 많은 설명이 해당 단칭 인과 관계를 포섭하는 특정 엄격 법칙을 기술하지 않고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데이빗슨 또한, 인과적 설명을 엄격 법칙을 기술하는 설명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이미 지적하고 있다.

“예측 능력이 탁월한 법칙들을 찾지 못한다고 해서 타당한 인과적 설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이루어질 수 있는 인과적 설명은 극히 소수에 불과할 것이다.”¹⁶⁸⁾

“예측하거나 이해해야 할 사건과 행위를 늘 만나는 일상에서, 우리는 대략적인 일반 규칙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더 정교한 법칙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명 안다고 해도 우리가 관심을 갖는 특정한 사건을 그 법칙에 관련된 것으로 기술할 수 없기 때문이다.”¹⁶⁹⁾

166) 험펠 역시 인과적 설명에 대해 이러한 입장에 있다.

“인과적 설명은 법칙 연역적 설명의 특수한 유형이다. 왜냐하면 특정한 사건, 또는 사건 집합이 구체적 ‘결과’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해당 사건들을 연결하는 일반 법칙이 있어서, 앞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기술이 주어지면 그 법칙을 통해 결과의 발생을 연역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Hempel, 1965, pp.300-301)

167) Yalowitz, 2012.

168) Davidson, 1963, p.16(국역본 p.69)

169) Davidson, 1970a, p.219(국역본 p.364*)

데이빗슨이 지적하듯, 이 전제를 한 단칭 인과 관계가 포섭되는 그 엄격 법칙을 직접 기술하는 설명만이 인과적 설명이라는 의미로 보는 것은, 인과적 설명의 범위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축소시키는, 수긍할 수 없는 해석이다.

캠벨에게 이 전제가 무슨 의미인지 알기 위해서는 캠벨의 논증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캠벨은 일반화에 대한 데이빗슨의 두 구분, 동질법적 일반 규칙과 이질법적 일반 규칙이라는 구분에 주목한다.

“한쪽에 있는 일반 규칙들의 경우에는 …원래의 일반 규칙 같은 종류의 일반 어휘로 더 나아간 단서 조항과 조건을 추가로 진술하면 그 일반 규칙 자체가 개선될 수 있다. …우리는 이를 **동질법적** 일반 규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 쪽에 있는 일반 규칙의 경우에는 …어떤 엄격한 법칙이 작동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법칙을 진술하려면 다른 어휘로 옮겨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그것을 **이질법적** 일반 규칙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¹⁷⁰⁾

요컨대, 동질법적 일반 규칙은, 비록 그 자체는 엄격 법칙이 아닐지라도, 그 규칙에 사용된 어휘와 같은 종류의 어휘를 사용하여 엄격 법칙으로 수정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되는 규칙이다. 반면, 이질법적 일반 규칙은, 그 자체로도 엄격 법칙이 아닐뿐더러, 그 규칙에 사용된 어휘와 같은 종류의 어휘만을 사용해서는 엄격 법칙으로 수정될 수 없는 규칙이다. 데이빗슨에 따르면 물리적 술어로 구성된 일반 규칙은 동질법적 일반 규칙이지만, 정신적 술어가 포함된 일반 규칙은 이질법적 일반 규칙이다.¹⁷¹⁾

캠벨은 이 구분을 받아들여 물리적 설명과 인과적 설명을 각각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 번째 사례(벽돌이 유리에 부딪친 것이 유리의 깨짐을 야기한 경우)에서

170) Davidson, 1970a, p.219(국역본 pp.364-365*)

171)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본고의 III을 보라.

우리는 관련된 사건 사이의 인과적 연결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과도 마주하지 않는다. …이러한 설명은 우리가 인과 관계 그 자체의 본성을 더 잘 알게 해주는 방식으로 다듬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 덕분에 이 설명들이 인과적인 것으로 분류된다는 것은 분명하다.”¹⁷²⁾

인과 관계에 대한 물리적 설명은 물리적 일반 규칙¹⁷³⁾을 사용한 설명이다. 그런데 물리적 일반 규칙은 동질법적이므로 물리적 어휘를 사용하여 엄격 법칙으로 수정될 수 있다. 사용된 일반 규칙을 ‘보다 상세한 설명’으로 만들면 엄격 법칙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물리적 설명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캠벨은 다음과 같이 결론내린다. 인과 관계를 포섭하는 그 엄격 법칙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물리적 설명은 인과적 설명이다.

반면, 캠벨에 따르면 정신적 설명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지 못한다.

“정신적 사건을 가리키는 설명의 경우에 우리는 전제된 인과적 작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을 제공한 어떠한 방법도 없다. …그러므로 이유 설명을 전제된 인과 과정에 연결하여 그 인과 과정을 이해하게 하는 수단이 없이는, 이유 설명이 인과 설명의 일종으로 받아들여졌을 경우, 그 설명적 힘을 인정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¹⁷⁴⁾

정신적 설명은 정신적 술어를 포함한 설명이다. 그런데 데이빗슨에 따르면 정신적 일반 규칙¹⁷⁵⁾은 이질법적이므로, 여기에 사용된 정신적 술어를 유

172) Campbell, 1998, p.28 (강조는 필자)

173) 이 일반 규칙은 “벽돌이 유리에 부딪힌다면 그 유리는 깨질 것이다”와 같은 일반 규칙이 될 것이다.

174) Campbell, 1998, p.29

175) 데이빗슨은 이러한 정신적 일반 규칙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 곳(Davidson(1963, 1970a, 1973a, 1973c, 1974a, 1993))에서 인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적 일반 규칙은 예외를 인정하는 규칙이며, ‘다른 조건이 같다면(ceteris paribus)’와 같은 구절이 포함된 규칙으로, 이를 법칙이라 부르더라도 이 법칙은 예외 없는 법칙인 엄격 법칙과는 다른 종류의 법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재권은 이러한 형태의 정신 법칙을 인

지한 채로는 엄격 법칙으로 수정될 수 없다. 다시 말해, 이 설명에 세부 사항을 덧붙이는 정도로는 엄격 법칙으로의 발전이 불가능하고, 엄격 법칙이 되려면 이 설명에 사용된 정신적 술어를 물리적 술어로 대체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캠벨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어떤 인과 관계에 대한 정신적 설명은, 그 설명에 세부 사항을 아무리 덧붙인다 하더라도 그 인과 관계를 포섭하는 엄격 법칙을 밝혀줄 수 없고, 바로 이 점에서 정신적 설명은 인과적 설명이라고 볼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인과적 설명은 법칙을 요구한다는 전제가 캠벨에게 무슨 의미인지 말할 수 있다. 이 전제는 해당 인과 관계가 포섭되는 엄격 법칙을 실제로 밝혀주는 설명만이 인과적 설명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설명에 엄격 법칙이 실제로 있는가가 아니라 설명에 포함된 일반 규칙이 엄격 법칙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이다. 즉, 캠벨에게 이 전제는 설명에 사용된 일반 규칙에 세부 사항을 덧붙임으로써 그 인과 관계를 포섭하

정하는 것이 결국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을 무너트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해석에 따르면, 엄격하지 않은 법칙은 단지 선행 조건 중 몇몇이 실제로 수량화된 엄격 법칙이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을 의미한다. 엄격하지 않은 심물 법칙이 있다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엄격한 심물 법칙이 반드시 존재한다**. 나는 무법칙적 일원론이 엄격하지 않은 법칙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Kim, 1993a, p.24)

여기서 김재권이 말하는 ‘이 해석’은 일반 규칙에 대한 포더(Fodor, 1989)의 제안으로, 포더는 일반 규칙이 모든 조건을 총망라하는 선행 조건을 포함하는 방식의 법칙으로 구성될 수 있으리라고 제안한다. 김재권은 데이빗슨이 바로 포더 식의 일반 규칙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러한 일반 규칙을 받아들이는 것은 엄격 법칙을 인정하는 귀결을 낳는다고 지적한다. 물론 이는 적절한 지적이다. 차일드(Child, 1993)가 논증한 것처럼 일반 규칙이 적용되는 조건을 유한한 기술을 통해 총망라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김재권이 지적한 논문(Davidson, 1993)에서 데이빗슨은 포더의 일반 규칙을 수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데이빗슨이 정신적 일반 규칙에 대한 포더의 그 구체적인 입장을 수용한 것인지, 단지 정신적 일반 규칙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포더의 입장을 수용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또 포더가 특정한 방식의 정신적 일반 규칙을 제안하기 이전에, 데이빗슨은 이미 다양한 논문들(Davidson(1963, 1970a, 1973a, 1973b, 1974a))에서 엄격 법칙을 반드시 함축하지는 않는 넓은 의미의 일반 규칙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따라서 데이빗슨이, 포더가 제안한 그대로의 정신적 일반 규칙을 받아들였다기보다, 엄격 법칙이 아니라 일반 규칙에 의해서도 인과적 설명이 성립할 가능성 자체에 주목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는 엄격 법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그 설명은 인과적 설명이라는 의미다.

만약 이 전제가 옳다면, 무법칙적 일원론 하에서 정신적 설명은 인과적 설명이 될 수 없다. 정신적 술어를 포함하는 일반 규칙은 이질법적이라 세부 사항을 덧붙이는 방식으로는 엄격 법칙으로 발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법칙적 일원론은 정신적인 것에 관한 설명적 부수현상론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데이빗슨에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데이빗슨은 속성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어떤 사건이 정신적 사건인가는 그 사건에 대한 정신적 기술이 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무법칙적 일원론이 정신적인 것에 관한 설명적 부수현상론이라면 정신적 기술은 인과적 설명에서 어떠한 역할도 담당하지 못한다. 인과 관계에도, 인과적 설명에서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술어를 우리는 왜 사용해야 하는가?

혹자는 이에 대해 정신적 설명은 행위의 합리화라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가치있다고 답할 수도 있다. 그러나 데이빗슨에게는 가능하지 않은 답이다. 데이빗슨은 행위에 관한 합리화는 인과적 설명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¹⁷⁶⁾ 즉, 인과적 설명이 아니라면 그 설명은 합리화도 될 수 없다. 따라서 설명적 부수현상론이라는 비판이 옳다면 정신적 술어는 인과적 설명에도, 합리화에도 사용될 수 없으며, 이는 정신적 술어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유의미한가라는 의심을 부른다. 요컨대, 이 비판은 정신적 사건의 존재 자체를 위협한다. 따라서 데이빗슨에게 설명적 부수현상론이라는 비판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176) Davidson(1963)을 보라.

2. 설명적 부수현상론 비판으로부터의 옹호

설명적 부수현상론이라는 비판은 무법칙적 일원론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만약 설명적 부수현상론이 옳다면 정신적 설명은 인과적 설명이 아니며, 따라서 정신적 술어는 인과와 무관하다. 뿐만 아니라, 이는 정신적 설명이 합리화라는 역할도 담당할 수 없게 만듦으로서 정신적 술어의 존재 자체를 위태롭게 만든다. 따라서 무법칙적 일원론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설명적 부수현상론이라는 비판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이런 까닭에 여기서는 무법칙적 일원론이 설명적 부수현상론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어떻게 방어될 수 있는가를 보인다. 물론 데이빗슨 본인이 캠벨의 비판에 직접 대응하지는 않았지만, (1)에서는 데이빗슨의 이전 논의들을 재구성함으로써 캠벨이 전제하는 인과적 설명의 기준이 부적절함을 보이고, 이를 통해 정신적 설명 또한 인과적 설명일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데이빗슨 본인이 인과적 설명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가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데이빗슨의 기준을 받아들여 정신적 설명을 인과적 설명이라고 하더라도, 물리적 설명이 여전히 더 완전하고 포괄적인 인과적 설명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쩌서 이러한 물리적 설명 이외의 다른 인과적 설명이 더 필요한가라는 비판이 여전히 가능하다. (2)에서는 이것이 어떤 비판인지를 보다 면밀히 따져보도록 한다. 내가 보기에 이 비판은 그동안 무법칙적 일원론 논의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데이빗슨의 행위철학과 해석이론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 따라서 (3)에서는 데이빗슨의 행위철학에 대한 나의 해석을 제시함으로써, 그로부터 정신적 설명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논증하고, 이로부터 데이빗슨에게 물리적 설명으로 대체불가능한 정신적 설명의 독자적 가치가 확보됨을 보이도록 하겠다.

(1) 인과적 설명

캠벨은 무법칙적 일원론이 정신적인 것에 대한 설명적 부수현상론이라고 주장한다. 만약 캠벨의 주장이 옳다면 무법칙적 일원론 하에서 정신적 설명은 인과적 설명이 될 수 없고, 이는 심각한 문제다. 데이빗슨의 이론 체계 내에서 정신적 설명이 인과적 설명이 될 수 없다면, 정신적 설명은 합리화도 될 수 없으며, 이는 정신적 술어를 왜 사용해야 하는가라는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법칙적 일원론이 정신적인 것에 대한 설명적 부수현상론이라는 캠벨의 비판에는 다음 주장이 전제되어 있다.

- * 물리적 일반 규칙은 세부 사항을 추가하면 엄격 법칙으로 발전 가능하지만 정신적 일반 규칙은 동일한 방식으로는 엄격 법칙으로 수정될 수 없다.

이 주장은 동질법적 일반 규칙과 이질법적 일반 규칙에 대한 데이빗슨의 구분에 의해 지지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전제가 무법칙적 일원론과 일관적이라면 무법칙적 일원론에 대한 캠벨의 비판은 정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전제가 무법칙적 일원론과 비일관적이라면 캠벨의 비판은 성립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캠벨의 비판이 성립하려면 위의 전제가 무법칙적 일원론과 일관적임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캠벨의 비판은 성공적이지 않다. 캠벨의 전제는 데이빗슨의 체계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데이빗슨의 저작들에서 확인¹⁷⁷⁾되는 이론 체계가 이 전제와 왜 비일관적인지 해명함으로써 설명적 부수현상론

177) 데이빗슨 본인은 캠벨의 비판에 직접 대응하지 않았다. 이는 캠벨의 비판 논문 중 하나가 데이빗슨의 사후에 출판된 까닭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데이빗슨의 이전 저작들을 통해 캠벨의 비판이 데이빗슨이 수용 불가능한 전제를 가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캠벨에 대한 반박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구성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이라는 비판으로부터 무법칙적 일원론을 옹호할 것이다.

위 전제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캠벨의 논의를 보자. 캠벨은 물리적 일반 규칙에 세부 사항을 더하면 엄격 법칙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 사례(벽돌이 유리에 부딪친 것이 유리의 깨짐을 야기한 경우)에서 우리는 관련된 사건 사이의 인과적 연결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과도 마주하지 않는다. 벽돌이 특정한 크기의 힘을 가했고, 창문은 깨지기 쉬운 이러저러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식으로 말할 수 있고, 물리학에 정통한 사람이라면 더 정확하게 만들 수 있을 이런 방식의 관찰은 이 인과 관계에 포함된 상당히 복잡한 매커니즘을 가리킨다. 이러한 설명은 우리가 인과 관계 그 자체의 본성을 더 잘 알게 해주는 방식으로 다듬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 덕분에 이 설명들은 인과적인 것으로 분류된다는 것은 분명하다.”¹⁷⁸⁾

이 인용문에서 캠벨은 물리적 일반 규칙을 사용한 물리적 설명이 엄격 법칙으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특정 인과 관계에 대해 ‘벽돌이 유리에 부딪친 것이 유리가 깨지는 것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고 하자. 이 물리적 설명에 사용된 것은 <벽돌이 유리에 부딪히면 그 유리는 깨질 것이다>와 같은 형태의 일반 규칙으로, 엄격 법칙은 아니다. 그러나 벽돌이 어느 정도의 힘을 유리에 가했는가, 유리는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강도는 어떠하였는가 등을 관찰하여 이 규칙은 보다 상세해질 수 있다. 예컨대, <벽돌이 이러저러한 정도의 힘을 가하면서 이러저러한 강도로 이루어진 유리에 부딪히면, 그 유리는 깨질 것이다>와 같은 방식으로 수정될 수 있고, 이러한 수정이 거듭되면 이 일반 규칙은 해당 인과 관계를 포섭하는 엄격 법칙으로 다듬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캠벨은 정신적 설명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식의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178) Campbell, 1998, p.28

“정신적 사건을 가리키는 설명의 경우에 우리는 전제된 인과적 작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을 제공한 어떠한 방법도 없다. …데이빗슨은 정신적인 것이 무법칙적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민간 심리학적 일반화로부터 다른 인과 관계에서 가능했던 것처럼 그 인과 관계의 기저에 있는 물리적 매커니즘의 세부사항을 밝혀줄 물리적으로 보다 정확한 어휘로 나아갈 수 없다.”¹⁷⁹⁾

<밥을 먹고 싶은 철수의 욕망이 철수가 밥을 먹는 것을 야기했다>는 설명을 생각해보자. 이 설명에는 <철수는 밥을 먹고 싶으면 밥을 먹는다>거나 <밥을 먹고 싶은 사람은 밥을 먹는다>와 같은 형태의 일반 규칙이 사용되고 있고, 이 규칙은 정신적 일반 규칙이다. 물리적 일반 규칙처럼 정신적 일반 규칙 역시 세부 사항을 추가하여 더욱 상세하게 만들 수는 있다.¹⁸⁰⁾ 그러나 정신적 일반 규칙에 세부 사항을 아무리 많이 추가하더라도 엄격 법칙이 될 수는 없다. 정신적인 것은 무법칙적이므로 정신적 술어는 엄격 법칙을 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정신적 설명에 사용된 정신적 일반 규칙은 그 설명에 사용된 술어를 버리기 전에는 엄격 법칙으로 발전할 수 없다.

정신적인 것은 무법칙적이므로 정신적 설명에 사용된 일반 규칙은 그 설명에 사용된 술어를 버리기 전에는 엄격 법칙으로 발전할 수 없다는 캠벨의 지적은 옳다. 그러나 물리적 설명에 사용된 일반 규칙은 그 설명에 사용된 술어를 버리지 않고도 세부 사항을 덧붙여서 엄격 법칙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캠벨의 주장은 과연 정당한가?

내가 보기에 캠벨은 자신의 기준이 일상적으로 주어지는 물리적 설명을 인과적 설명에서 배제하고 있음을 놓치고 있다. 벽돌이 유리에 부딪힌 것이 유리가 깨진 사건을 야기했다는 설명을 다시 생각해보자. 캠벨이 제안

179) Campbell, 1998, p.29

180) 예컨대, <이러저러한 상황에서 밥을 먹고 싶은 욕망이 있는 사람은 밥을 먹는다>와 같은 방식으로 세부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한 대로 이 설명에 사용된 물리적 일반 규칙에 세부 사항을 추가하여 보다 상세한 일반 규칙으로 수정한다면 <벽돌이 이러저러한 정도의 힘을 가 하면서 이러저러한 강도로 이루어진 유리에 부딪히면, 그 유리는 깨질 것이다>와 같은 규칙이 된다. 그러나 이 규칙은 그 자체로는 엄격 법칙이 아니다. 기압이나 여타의 다른 조건 때문에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규칙이 더 엄격해지기 위해서는 주변 상황에 대한 세부 사항이 더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벽돌이 유리에 특정한 힘을 가했을 때, 특정한 강도의 유리가 깨지는 것을 막을 상황들의 유한한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규칙에 세부 사항을 덧붙이는 방식으로는 엄격 법칙을 만들 수 없다.

문제는 더 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리적 설명에서 사용되는 개념들은 엄격 법칙에서 사용되는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 즉, 일상의 물리적 설명에서 사용되는 개념들을 유지하면서 세부 사항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엄격 법칙을 구성할 수는 없다. 엄격 법칙을 구성하려면 전혀 다른 개념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엄격 법칙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인과적 설명의 조건으로 제시한다면, 일상의 물리적 설명마저 인과적 설명으로부터 배제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에 관해서는 데이빗슨 본 인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예측 능력이 탁월한 법칙들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타당한 인과적 설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이루어질 수 있는 인과적 설명은 극히 소수에 불과한 것이다. 나는 유리창이 깨진 것이 돌에 맞았기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 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모두 보았다; 그러나 어느 유리창에 어떻게 맞아야 유리창이 깨지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법칙을 내놓을 처지에 있지는 않다. (누군들 그걸 할 수 있을까?) “유리창은 깨지기 쉬우며, 깨지기 쉬운 것들은 다른 조건이 맞는 상황에서 충분히 강하게 부딪히면 깨지는 경향이 있다” 같은 일반 규칙은 엉성하게라도 예측적 법칙이 아니다 - 만약 우리가 예측적 법칙을 가진다면 그것은 양적인 것일 것이고 또 아주 다른 개념

들을 사용할 것이다.”¹⁸¹⁾

이 인용문에서 데이빗슨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단칭 인과 관계에 대해 일상에서 주어지는 물리적 설명에 사용되는 물리적 일반 규칙은 엄격 법칙이 아니다. 게다가 이 일반 규칙을 상세하게 수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엄격 법칙으로 발전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엄격 법칙은 일상에서 사용되는 물리적 일반 규칙과는 아예 다른 개념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동일한 주장이 다음 인용문에서도 확인된다.

“엄청난 재해를 정밀하게 예측하는 데 필요한 법칙들은 당연히 허리케인이나 엄청난 재해니 하는 개념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다. 날씨를 예측하면서 골치가 아픈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갖는 사건 기술들 - ‘춡고 흐리며 오후에 비가 옵’ - 이 알려진 보다 정밀한 법칙들에서 채택되는 개념들과는 거리가 먼 연관만을 갖는다는 것이다.”¹⁸²⁾

“예측하거나 이해해야 할 사건과 행위에 늘 부닥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대략의 간략한 일반 규칙들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정교한 법칙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령 안다고 해도 우리가 관심을 갖는 특정한 사건을 그 법칙에 맞게끔 기술할 수 없기 때문이다.”¹⁸³⁾

이 인용들에서 데이빗슨이 동일하게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 설명 상황에서 사용하는 일반 규칙들은, 설사 물리적 일반 규칙이라 하더라도 엄격 법칙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나 용어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나 용어를 사용하여 기술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성냥을 그었기 때문에 그 성냥에 불이 붙었다는 설명을 생각해보자. 이 설명에 사용된 일반 규칙은 <성냥을 그으면 불이 붙는다>일 것이다. 이 일반 규칙을 보다 상세하게 만든

181) Davidson, 1963, p.16(국역본 p.69, 강조는 필자)

182) Davidson, 1963, p.17(국역본 pp.70-71, 강조는 필자)

183) Davidson, 1970a, p.219(국역본 pp.364-365*, 강조는 필자)

다고 해도, 그 설명은 엄격 법칙이 될 수 없다. 이 설명의 대상이 되는 단칭 인과 관계를 포섭하는 엄격 법칙에는 ‘성냥’이라거나 ‘긋는다’거나 ‘불이 붙는다’와 같은 방식의 개념은 사용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상의 물리적 설명에서 사용되는 물리적 일반 규칙은 세부 사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엄격 법칙으로 발전할 수 없다.

요컨대, 일상의 물리적 설명에서 사용되는 물리적 일반 규칙은 세부 사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엄격 법칙으로 발전할 수 없다. 데이빗슨에 따르면, 그 설명에는 아주 양적인 개념들, 예컨대 질량, 크기, 길이, 속도, 온도 등의 개념들만이 포함¹⁸⁴⁾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리적 일반 규칙은 세부 사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엄격 법칙으로 수정 가능하다는 캠벨의 주장은 옳지 않다. 만약 인과적 설명에 대한 캠벨의 기준을 받아들인다면 인과 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일상적 설명은 인과적 설명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어떠한 설명도 인과적 설명이 될 수 없을 수도 있다. 인과적 설명에 대한 특정 기준을 받아들이기 위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설명을 인과적 설명이 아닌 것으로 배제하라는 요구는 너무 과하다. 게다가 이는 캠벨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이다. 캠벨은 일상의 물리적 설명이 인과적 설명이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다음과 같이 반론할 수도 있다. 세부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엄격 법칙이 될 수 있는 일반 규칙을 사용한 설명만이 인과적 설명이라는 요구가 너무 과하다는 지적은 옳다. 그러나 물리적 설명과 정신적 설명은 여전히 다르다. 물리적 일반 규칙은 비록 그 개념이 모두 대체되어야만 엄격 법칙이 될 수는 있으나, 그 일반 규칙에 의해 설명되는 단칭 인과 사례들을 모두 포섭할 수 있는 하나의 엄격 법칙이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정

184) 물론 이러한 개념들이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은 예상에 불과하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어떠한 물리 법칙도 예외 없는 엄격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완성된 형태의 엄격 법칙이 무엇인지는 오직 예상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데이빗슨 스스로도 예외 없는 엄격 법칙에 사용될 양적 개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데이빗슨은 우리가 엄격 법칙을 아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Davidson(1967a, 1970a)을 참고하라.

신적 일반 규칙은, 그 규칙에 의해 설명되는 사례들이 하나의 엄격 법칙에 의해 포섭된다는 것조차 보장해주지 못한다. 바로 이 점에서 물리적 설명은 인과적 설명이고 정신적 설명은 인과적 설명이 아니다.

그러나 이 반론은 쉽게 무너진다. 어떤 단칭 인과 사례들이 물리적 일반 규칙에 의해 설명된다고 해서 그 사례들이 모두 하나의 엄격 법칙에 의해 포섭될 것이라는 기대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성냥을 그으면 불이 붙는다>와 같은 물리적 일반 규칙을 생각해 보자. 이 규칙은 안전성냥과 황화인성냥의 사례를 모두 설명할 것이다. 그러나 적린을 이용한 안전성냥을 적린을 이용한 성냥갑에 그어서 불이 붙는 경우와 삼황화인을 이용한 황화인성냥을 마찰시켜 불이 붙는 경우는 서로 다른 엄격 법칙에 의해 포섭될 것이다. 이제 반론자는 다음과 같이 물을 수 있다. 당면한 사례들을 설명하는 모든 엄격 법칙을 선언지로 만들어 선언문 형태의 엄격 법칙을 만든다면 하나의 엄격 법칙이 모든 사례를 포섭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것은, 만약 가능하다면, 정신적 일반 규칙에 의해 설명되는 사례에도 적용 가능한 방법이며, 따라서 물리적 일반 규칙과 정신적 일반 규칙의 차이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캠벨의 제안이 직면한 두 번째 문제점은, 인과적 설명에 대한 캠벨의 기준은 데이빗슨의 기준과도 충돌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데이빗슨은 인과적 설명에 대해 어떤 기준을 제안하는가? 인과적 설명의 기준으로 데이빗슨이 주목하는 것은 엄격 법칙이 아니라 **일반 규칙**이다.¹⁸⁵⁾ 초기 논문¹⁸⁶⁾에서 데이빗슨은 인과적 설명에 관한 다양한 입장에 논박하면서 인과적 설명에 관한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85) 여기에서 인과에 관한 데이빗슨의 입장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첫째, 데이빗슨에게 인과는 그 자체로 성립하는 기본적 관계이다. 둘째, 본고의 IV.1에서 보았듯 인과의 법칙적 성격 원리는 법칙에 의해 인과 관계가 근거지워지거나 법칙이 해당 인과 관계의 토대가 됨을 의미하는 원리가 아니다. 셋째, 어떤 설명이 인과적 설명이라는 것은, 그 설명이 일종의 일반 규칙에 의거해 있고, 원인이 되는 사건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186) Davidson, 1963, pp.11-19.

설명 E 가 사건 e 에 대한 인과적 설명이다.

iff

설명 E 는 사건 e 의 원인 사건 c 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고, c 와 e 를 포섭하는 일반 규칙(혹은 엄격 법칙)을 포함한다.

요컨대, 어떤 사건에 대한 인과적 설명이란, 그 사건의 원인이 되는 사건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고, 그 기술을 포섭하는 일반 규칙을 제시하면 되는 것이다. 이 기준을 받아들일 경우 정신적 설명은 인과적 설명에 포함되는가? 정신적 설명은 피설명항이 되는 사건의 **원인 사건**을 정신적으로 기술한 설명으로, 원인 사건에 대한 기술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한다. 두 번째 조건은 어떠한가?

“누군가가 왜 그렇게 행위했는지를 물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의 해석이다. …그의 이유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그가 했던 것에 대한 하나의 해석, 하나의 새로운 기술을 갖는데, 그런 해석이나 기술은 그가 했던 것을 낫익은 그림에 들어맞게 해준다. …곧 그 행위의 핵심을 규칙, 습관, 관습 …속에서 파악한다는 것이다.”¹⁸⁷⁾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 행위에 대한 이유 설명, 다시 말해 정신적 설명이 주어질 때 우리는 그 행위를 익숙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방식으로 이해하게 해준다는 것이고, 이는 곧 기존에 파악하고 있던 모종의 규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재기술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정신적 설명은 이유와 행위를 포섭하는 일반 규칙을 포함하는 설명이다. 이로써 정신적 설명은 인과적 설명의 두 번째 조건도 충족하므로, 데이빗슨의 기준에 따르면 정신적 설명은 인과적 설명이 된다.

187) Davidson, 1963, pp.9-10(국역본 pp.59-60)

정리하자면, 무법칙적 일원론에 대한 캠벨의 비판은 성공적이지 않다. 캠벨은 세부 사항을 추가하더라도 정신적 일반 규칙은 엄격 법칙으로 발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신적 설명은 인과적 설명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리적 설명 역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인과적 설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캠벨이 주장한 바와 다르게, 일상에서 사용하는 정신적 설명과 물리적 설명은 법칙과의 관계에서 차이가 아니라 유사성을 보인다. 일상의 정신적 일반 규칙과 물리적 일반 규칙은 모두 그 규칙에 사용된 개념이 대체되기 전에는 엄격 법칙으로 발전할 수 없다. 또, 두 규칙은 모두 그 규칙이 설명하는 모든 인과 관계가 하나의 엄격 법칙에 의해 포섭된다는 것조차 보장하지 못한다. 즉, 정신적 설명을 인과적 설명에서 배제시키는 기준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리적 설명도 함께 배제시킨다. 따라서 캠벨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은 일상적 직관에 어긋난다.

반면 일반 규칙에 근거한 데이빗슨의 인과적 설명 기준에 따르면 법칙적 물리 설명 뿐 아니라 일상적 물리적 설명 또한 인과적 설명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 기준에 따르면 정신적 설명 역시 인과적 설명에 포함된다. 정신적 설명은 원인 사건에 대한 기술을 포함할 뿐 아니라, 일반 규칙에 의거한 설명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캠벨의 제안은 일상적 직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데이빗슨의 인과적 설명 기준과도 비일관적이다. 게다가 캠벨은 데이빗슨의 기준이 아니라 왜 자신의 기준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설득력 있는 논의를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적 설명이 인과적 설명이 아니라는 캠벨의 비판은 설득력이 없다.

(2) 물리적 인과 폐쇄성의 원리

앞 장에서 우리는 일상의 물리적 설명을 인과적 설명으로 받아들이려면 정신적 설명 또한 인과적 설명이라고 받아들여야 함을 확인했다. 정신적

설명 역시 인과적 설명에 대한 두 가지 기준을 만족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신적 설명이 인과적 설명임을 확보했다고 해도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인과적으로 닫힌 물리적 세계 속에서 물리적 사건의 인과 사슬은 물리적 사건으로 완전하게 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물리적 설명이 세계에 대한 충분한 설명처럼 보이기 때문에, 인과적 설명으로서 정신적 설명이 왜 필요한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¹⁸⁸⁾ 다시 말해, 인과적 설명에 대한 캠벨의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적 부수현상론이라는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장은 무법칙적 일원론이 왜 여전히 설명적 부수현상론이라는 위기에 처하고 있는지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데이빗슨에 따르면 물리계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한 법칙이 자신의 개념을 어떤 포괄적인 닫힌 이론으로부터 끌어낼 때만 그 법칙이 엄격하며, 숨겨진 것이 없으며, 가능한 한 예외가 없기를 바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물리 과학에서 동질법적인 일반 규칙을 실제로 발견한다.”¹⁸⁹⁾

이 인용문에서 데이빗슨은 물리학이 닫힌 이론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물리학의 대상이 되는 물리적 세계가 인과적으로 닫혀 있어서, 모든 물리적 사건의 인과적 사슬에는 물리적 사건만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의 직관과 잘 부합한다. 우리는 어떤 물리적 사건은 반드시 다른 물리적 사건을 원인으로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미 정신적 설명이 주어진 물리적 사건에 대해서도, 그 물리적 사건을 야기한 어떤 물리적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188) “문제는, 이유를 주는 설명과 그 외의 설명, 즉 주체의 내적 사건과 상태의 고유한 물리적 속성만을 제시하는 설명 사이의 설명적 경쟁에 있다.” (Macdonald & Macdonald, 1996b, p.87)

189) Davidson, 1970a, p.219(국역본 p.365*, 강조는 필자)

앞서 언급된, 물리계가 인과적으로 닫혀 있다는 주장을 물리적 인과 폐쇄성의 원리라고 한다.¹⁹⁰⁾ 김기현과 김재권은 각각 이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정식화한다.

“물리적 인과 폐쇄성의 원리: 어떠한 물리적 사건을 선택하여 그것의 선행 원인을 추적하여도, 그 과정은 물리계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¹⁹¹⁾

“폐쇄 원리 : 어떤 물리적 사건이, t시점에서 발생한 원인을 갖는다면, 그것은 t시점에서 발생한 물리적 원인을 갖는다.”¹⁹²⁾

그러나 이 규정은 모두 애매하다. 데이빗슨에게 사건은 물리적 기술을 갖는 바로 그 경우에만 물리적 사건일 수 있음을 감안하면, 물리적 사건이 물리적 원인을 갖는다는 말은 다음의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 ① 물리적 사건의 원인이 되는 사건은 오직 물리적 기술만 가진다.
- ② 물리적 사건의 원인이 되는 사건은 반드시 물리적 기술을 가진다.

①에 따르면 물리적 사건의 원인이 되는 사건은 정신적 기술을 가질 수 없다. 물리적 인과 폐쇄성의 원리가 ①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 원리는 정신적인 것에 대한 제거주의나 부수현상론으로 가졌다는 선언에 다름없다. 물리적 사건의 원인이 되는 사건은 정신적 기술을 가질 수 없다는 말은, 정신적 사건은 물리적 사건을 야기할 수 없음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리를 제거주의나 부수현상론을 받아들여야 하는 다른 논증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이는 데이빗슨의 이론과도 모순된다. 따라서 물리적 인과 폐쇄성의 원리가 ①을 의미하는 원리라고 할 수

190) 물리계의 인과적 배제 원리는 물리주의자라면 받아들여야 하는 원리라는 입장은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Kim(1984b, 1988, 1989b, 1995, 1998, 2005), McLaughlin(1989), Pollock(1988), Campbell(1998) 등을 보라.

191) 김기현, 2002, p.52

192) Kim, 2005, p.71(국역본)

는 없다.

②에 따르면 물리적 사건의 원인이 되는 사건은 물리적 기술을 가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정신적 기술을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때 물리계가 인과적으로 닫혀 있다는 것은 물리적 사건의 원인이 되는 사건은 반드시 물리적으로 기술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 원인 사건이 정신적 기술을 가지더라도 이는 물리적 인과 폐쇄성의 원리와 모순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②는 그 자체로는 제거주의나 부수현상론을 함축하지 않으며, 무법칙적 일원론과도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 김재권 역시 물리적 인과 폐쇄성의 원리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이제 사건 B는 물리적 사건이므로 물리적 용어들만을 가지고 인과적으로 설명 가능해야 한다. 다시 말해, B의 충분한 물리적 원인을 나타내는 물리적 설명(가정컨대 신경학적인 설명)이 있어야만 한다. 이는 우리가 그 설명을 알거나, 혹은 미래에 알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와는 무관하다.”¹⁹³⁾

따라서 물리적 인과 폐쇄성의 원리는 ②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물리적 인과 폐쇄성의 원리에 따르면 모든 물리적 사건의 원인은 반드시 물리적 기술을 갖는다. 따라서 물리적 사건의 인과 사슬에 있는 모든 사건은 물리적 사건이며, 이는 물리적 사건이 포함된 모든 인과는 물리적 설명을 가진다는 것을 함축한다. 그리고 이때 물리적 사건의 원인인 사건은 정신적 기술을 가질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물리적 사건이 포함된 인과에 대한 정신적 설명 역시 가능하다.

물리적 인과 폐쇄성의 원리는 그 자체로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무법칙적 일원론이 유물론이라는 사실이 더해지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193) Kim, 1995, p.124.

“무법칙적 일원론은 모든 사건은 물리적이라고 주장하는 점에서 유물론을 닮았다. …무법칙적 일원론도 존재론적 편향을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그 편향은 모든 사건이 다 정신적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사건이 물리적이라는 것은 고수한다는 점에서의 편향일 뿐이다.”¹⁹⁴⁾

이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 무법칙적 일원론은 사건에 관한 유물론이다. 즉, 무법칙적 일원론 하에서 모든 사건은 물리적 사건인 것이다. 그런데 물리적 인과 폐쇄성의 원리에 따르면 물리적 사건이 포함된 모든 인과는 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로부터 **모든 단칭 인과 관계에 대하여 물리적 설명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 결론에 따르면 물리적 설명은 세계에 대한 포괄적이고 충분한 설명인 것처럼 보인다. 요컨대, 물리적 설명만으로도 발생하는 모든 인과 관계가 빠짐없이 설명되는 것이다.

문제는 다음과 같다. 한 인과 관계에 물리적 설명과 정신적 설명이 모두 주어졌을 때, 이 두 설명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¹⁹⁵⁾ 이미 모든 인과 관계가 인과적 설명으로서 물리적 설명을 가질 수 있는데, 정신적 설명이 또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무법칙적 일원론

194) Davidson, 1970a, p.215(국역본 p.357)

195) 이 문제를 김재권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사건 *B*에 대한 두 인과적 주장을 가지고 있다. …이 두 인과적 주장의 전제들은 상호 일관적이다. 그러나 두 설명이 서로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알지 않는다면, 두 설명이 모두 조지의 행동을 야기한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준다고 받아들이기에는 뭔가 당혹스럽고, 심지어 비일관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다. 각각의 설명은 모두 조지의 행동의 원인을 특정해준다. 그러나 두 가정된 원인들은 서로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Kim, 1995, p.124-5)

“한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인과적으로 설명한다고 자처하는 두 개의 인과적 설명들이 있게 되면, 어떻게 그 두 원인들이 상호 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설명을 찾아야 하는 불안정한 상황이 벌어진다. 이것이 바로 인과적/설명적 배제의 문제다.” (Kim, 1998, p.65 (국역본 p.126))

그러나 여기서 김재권은 사건에 대한 기술과 사건 그 자체를 혼동하고 있다. 인과적 설명이 두 개라는 것은 원인 사건에 대한 기술이 두 개라는 것이지 원인이 둘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내에서 정신적 설명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심각하다. 정신적 설명이 불필요하다면 정신적 술어가 불필요하고, 이는 정신적 사건의 존재를 위협하기 때문이다.¹⁹⁶⁾ 게다가 김재권이 받아들이는 다음 원리는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다.

“어떤 사건도 완전하고 독립적인 설명을 하나를 초과하여 가질 수 없다.”¹⁹⁷⁾

이는 설명적 배제의 원리¹⁹⁸⁾다. 김재권은 법칙적 물리 설명이 ‘완전하고 독립적인 설명’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¹⁹⁹⁾ 물론 일상의 물리적 설명은 사건에 대한 완전하고 독립적인 설명이 아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엄격 법칙을 기술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법칙에 맞게 해당 사건을 기술할 수 있다면 그때의 물리적 설명은 완전하고 충분한 설명이 될 것이다. 그런데 정신적인 것은 무법칙적이므로, 정신적 설명은 완전하고 충분한 설명이 될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이 원리가 옳다면 정신적 설명의 존재가 위협받고, 무법칙적 일원론은 정신적 설명에 대한 제거주의가 될 것처럼 보인다. 모든 인과 관계에 대한 충분하고 완전한 설명의 후보로서 물리적 설명이 이미 있으므로, 이 원리에 따르면 완전한 설명이 될 수 없는 정신적 설명은 인과 관계에 대한 설명의 후보로 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무법칙적 일원론이 처한 이 어려움을 캠벨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데이빗슨처럼, 물리주의자가 되고자 하면서도 정신적인 것의 설명적 역할을 보존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앞서 말한 물리주의자의 직관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다수의 설명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식을 보여주어야만 한다.”²⁰⁰⁾

196) 김재권(Kim, 1989a) 또한 이 점을 지적했다.

197) Kim, 1989b, p.239.

198) 이 원리는 Malcolm(1968)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다.

199) 김재권의 논의에 대해서는 Kim(1989b, pp.239-243)을 보라.

200) Campbell, 1998, p.32

따라서 정신 인과를 확보하려는 무법칙적 일원론의 목표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인과적으로 닫혀 있는 물리적 세계 내에서 물리적 설명과 더불어 정신적 설명이 왜 필요한지,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확보해야만 한다.

(3) 관심과 정신적 설명: 비판으로부터의 옹호

앞 장에서 제기된 비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모든 인과 관계에 대하여 물리적 설명이 포괄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왜 정신적 설명이 굳이 있어야 하는가? 인과적 설명으로서 정신적 설명을 남겨야 하는 정신적 설명만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간 이 질문에 답하려는 다양한 시도²⁰¹⁾가 있었으나, 여러 문제²⁰²⁾에 직면한 실정이다. 나는 그 패인이 데이빗슨의 행위철학과 해석이론을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의 마음에 관한 데이빗슨의 이론은 궁극적으로 행위가 무엇이고, 의미의 가능 조건이 무엇인가에 관한 데이빗슨의 철학을 통해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데이빗슨의 행위철학과 해석이론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통해 정신적 설명의 가치를 확보할 것이다.

김재권에 따르면, “어떤 사건도 완전하고 독립적인 설명을 하나를 초과하여 가질 수 없다.”²⁰³⁾ 그러나 이 원리는 그 자체로는 애매하다. 다음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 ① 한 사건이라는 **개별자**가 완전하고 독립적인 설명을 오직 하나만 가진다.
- ② 한 사건이 특정한 방식으로 기술되었을 때 그 **기술**에 대한 완전하고 독립적인 설명은 오직 하나뿐이다.

201) McDonald&McDonald(1995), Gibbons(2006) 등이 있다.

202) 대표적으로 ‘배출(outlet)’ 문제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Gibbons(2006)을 보라.

203) Kim, 1989b, p.239.

만약 이 원리가 ②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 원리는 정신적인 것의 설명적 역할을 크게 위협하지는 않는다. ②에 따르면 물리적 설명이 완전하고 독립적인 설명이 될 수 있다고 해도, 그 설명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특정한 방식의 사건 기술에 대한 단 하나의 설명이다. 그러므로 그 사건이 다른 방식으로 기술되었을 때는 그 기술에 적합한 다른 설명이 있을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해석되었을 경우에 설명적 배제의 원리는 무법칙적 일원론에 대한 결정적인 비판이 될 수는 없다.

반면 이 원리가 ①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 원리는 정신적인 것의 설명적 역할을 크게 위협한다.²⁰⁴⁾ 한 사건이라는 개별자에 완전하고 독립적인 설명이 오직 하나만 주어진다면, 그리고 물리적 설명이 이 완전하고 독립적인 설명이라면 정신적 설명은 결과 사건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신적인 것은 인과적 설명에서 어떠한 역할도 담당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는 무법칙적 일원론에 대한 심각한 비판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①은 받아들이기에 너무 강한 원리다. 특정한 방식의 완전하고 충분한 설명을 가졌다는 것이 왜 한 사건에 대한 다른 설명을 배제할 근거가 되는가? 이 의심을 데이빗슨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옳은 물리 법칙을 가진다면, 한 사건에 대한 적절한 물리적 기술...을 안다면, 우리는 두 번째 사건에 대한 완전하고 충분한 설명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다른 종류의 설명을 어떻게 배제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설명은 덜 완전한 물리적 설명을 배제할 수는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 설명들에 관심을 잃었다는 점에서 말이다. 그러나 만약 정신적 개념이 물리적 개념으로 환원 불가능하다면, 단지 완전한 물리적 설명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정신적 용어로 이루어진 설명에 우리가 관심을 잃을 것이라고 가정할 이유는

204) 설명의 대상이 되는 결과 사건의 기술과 기술 상대적 측면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김재권은 설명적 배제의 원리를 ①로 받아들이고 있다. 구체적 논의를 위해서는 Kim(1989b, pp.239-243, pp.250-252)를 보라.

없다.”²⁰⁵⁾

이 인용문에서 데이빗슨은 ①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설사 완전하고 충분한 물리적 설명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종류의 설명을 배제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데이빗슨은 그 이유로, 완전하고 충분한 물리적 설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이 정신적 설명에 대한 관심을 잃게 하지는 않을 것임을 지적한다. 물리적 설명으로 충족될 수 없는, 정신적 설명에 관한 특정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음 인용문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우리는 행위의 이유, 그리고 다른 심리적 현상에 예민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관심**에 대해 우리는 물리 법칙에 완벽하게 맞출 수 없는 설명을 기꺼이 받아들인다.”²⁰⁶⁾

요컨대 정신적 설명만이 충족시킬 수 있는 관심이 있다.²⁰⁷⁾

그렇다면 정신적 설명만이 충족시킬 수 있는 고유한 관심을 데이빗슨의

205) Davidson, 1993, p.16 (강조는 필자)

206) Davidson, 1991, p.163 (강조는 필자)

207) 알로위츠 역시 데이빗슨의 이 대응에 주목하고 있으나, 알로위츠는 정신적 설명의 가치가 심물 환원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근거한다고 보고 있다.

“우리는 그 행위자가 왜 **자기 손을 흔들었는가**-왜 그 결과가 ‘누군가의 손을 흔들’이라는 정신적 종류의 사건인가-를, 원인 사건의 **정신적** 속성, 예컨대 그 행위자가 친구에게 인사를 하고 싶었다는 것과 같은 설명을 제시했을 때만 이해할 수 있다. 원인 사건의 물리적 속성이나 관련된 신체적 움직임만을 제시하는 것은 그런 이해를 주지 않을 것이다. 무법칙적 일원론을 전제한다면, 원인의 물리적 속성들과 행위자의 이유 간에, 혹은 결과의 물리적 속성과 행위자의 행위 간에 어떤 환원적 관계도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Yalowitz, 2012)

그러나 이 전략에는 문제가 있다. 심물 환원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정신적 설명이 물리적 설명으로 대체될 수 없음에 대한 근거는 될 수 있으나, 정신적 설명의 설명적 가치에 대한 근거는 될 수 없다. 심물 환원이 불가능하므로 정신적 설명은 인과에 대한 설명적 부수현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명적 부수현상을 해결하려면 정신적 사건만이 충족시킬 수 있는 관심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거나 적어도 그 관심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보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철학 체계 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가가 핵심적인 문제가 된다. 결론을 선점하자면, 이러한 관심이 확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데이빗슨의 심리 철학만이 아니라, 데이빗슨의 총체적인 이론 체계, 특히 행위 철학과 해석 이론의 핵심적인 테제를 고려할 때에 비로소 확보될 수 있다.

이제 데이빗슨의 철학 내에서 이 관심이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자. 철수의 손이 올라갔고, 이 사태를 보고 두 사람이 각각 다음 질문을 던졌다.

영희: 철수의 손이 왜 올라갔는가?

정아: 철수는 왜 손을 들었는가?

이때 영희와 정아의 관심이 다르다는 것은 분명하다. 영희는 철수의 신체가 그렇게 움직이게 된 물리적 매커니즘, 물리적 충분 조건을 묻고 있으며, 이때 영희는 철수의 움직임이 행위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러므로 영희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은 종류의 물리적 설명일 것이다.

A1: 철수의 뇌에 있는 N2 신경세포에 전기 자극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반면 정아는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다. 정아는 철수가 왜 손을 들었는지, 다시 말해 철수가 손을 들어올린 의도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 즉, 정아는 철수의 움직임을 행위라고 보고²⁰⁸⁾ 질문한 것이다. 따라서 정아에 대한

208) 의도와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한 사람이 어떤 사건의 행위자인 경우는, 그가 한 것을 그가 의도적으로 했다고 말하는 어떤 문장이 참이 되게끔 그가 한 것을 기술해주는 것이 있을 때이며 그리고 그때만이다.”(Davidson, 1971, p.46(국역본 p.114))

“그러나 어쨌든 행동이 있는 곳에는 의도가 관련된다. 행위의 경우 그 관계는 이렇게 표현될 것이다: 한 사건이 행위가 되는 때는 그 사건을 의도적인 것으로 만드는 기술 방식이 있을 때 그리고 오직 그때뿐이다.”(Davidson, 1974a, p.229(국역본 p.377))

이 외에도 Davidson(1973c, 1991)에 동일한 논지의 언급이 있다.

답은 다음과 같은 종류의 설명이 된다.

A2: 철수가 찬장에서 컵을 꺼내고 싶어했기 때문이다.

이때 A2는 정신적 설명이다. 정아는 철수가 그런 행위를 왜 했는가를 묻고 있으며, 이때 정아의 요구는 철수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런 행위를 했는가를 아는 것이다. 데이빗슨은 이러한 질문이 ‘일차적 이유’를 요구하는 질문이라고 본다.²⁰⁹⁾ A2는 바로 이 일차적 이유를 제시한 것이다.²¹⁰⁾ 이는 철수의 의도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철수의 행위에 대한 합리화로 일종의 일반 규칙에 의거한 설명이며, 철수 행위의 원인인 정신적 사건을 지칭하는 설명이라는 점에서 앞서²¹¹⁾ 제기된 인과적 설명의 두 기준을 만족한다.

물리적 설명은 이러한 관심에 답할 수 없는가? 대화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하자.

정아: 철수는 왜 손을 들었지?

현수: 철수의 뇌에 있는 N2 신경세포에 전기 자극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 대화상황에서 현수의 답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현수는 질문자의 관심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이 경우 대화는 실패하였으며, 정아는 대화를 중단하거나 자신의 인식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시 질문할 것이다. 어쩌면 정아가 대화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추가적 질문도 던지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상황은 현수의 물리적 설명이 정아의 관심을 충족시켰음을 보여주는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이 상황은 때로 물리적 설명마저도 정신적 설명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

209) 일차적 이유에 대해서는 Davidson(1963)을 보라.

210) 일차적 이유는 긍정적 태도와 믿음의 쌍이라는 점에서 A2의 대답은 생략된 형태의 일차적 이유다. 그러나 일상적인 상황에서 일차적 이유는 흔히 생략된 형태로 제시되므로(Davidson, 1963, pp.6-7) 여기서도 맥락상 자연스러운 생략된 형태를 선택했다.

211) VI.2.(1)을 보라.

준다. 왜냐하면 이 경우 정아는 현수의 말이 특정한 함의²¹²⁾를 가졌다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아가 무엇을 알고 싶어하는지 현수가 이해했으며, 현수가 이해했다는 사실을 정아도 안 경우에, 그런 상황에서 현수의 대답은 <철수는 손을 의도적으로 들어올린 것이 아니다>라는 함의를 갖는다. 그리고 이 함의는 철수의 의도에 관해 설명하는 정신적 설명이다. 요컨대, 현수의 답은 표면적으로는 물리적 설명임에도 불구하고 그 함의는 일종의 정신적 설명이었기 때문에 정아의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특정 신체적 움직임을 두고 그 이유를 묻는 것은 그 사람이 신체를 그렇게 움직이게 된 믿음과 긍정적 태도를 묻는 것으로, 해당 신체적 움직임을 인간에 대한 익숙한 설명에 맞추려는 시도이다.

“그의 이유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그가 했던 것에 대해 하나의 해석, 하나의 새로운 기술을 갖는데, 그런 해석이나 기술은 그가 했던 것을 낫익은 그림에 들어맞게 해준다.”²¹³⁾

“한 이유에 의해 한 행위가 재기술되면 그 행위는 좀 더 넓은 사회적, 경제적, 언어적, 평가적 맥락 속에 자리잡게 된다. …이유를 댄으로써 어떤 행위를 설명할 때 우리는 그 행위를 재기술하고 있다; 행위를 재기술하는 것은 어떤 유형 속에 그 행위의 자리를 잡아주는 것이며, 행위는 이런 식으로 설명된다.”²¹⁴⁾

즉, 이유를 물음으로써 우리는 그 행위를 재기술할 수 있게 되고, 이 재기술은 그 행위를 인간에 관한 우리의 그림에 맞추어 이해하게 해준다. 그렇다면 누군가의 신체적 움직임을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고 그 이유를 통해 재기술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

212) 함의에 관해서는 Grice(1975)를 보라.

213) Davidson, 1963, p.10(국역본 p.59)

214) Davidson, 1963, p.10(국역본 pp.59-60)

“일차적 이유에 비춰진 행위는 행위자의 장기적, 단기적, 특유하거나 그렇지 않은 특성들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며, 행위자는 ‘합리적 동물’ 역으로 출현하고 있다.”²¹⁵⁾

요컨대, 이유를 통한 설명에는 인간을 합리적인 존재자로 보려는 기대²¹⁶⁾가 있는 것이다. 즉, 우리가 인간을 행위자로 본다는 것은, 적어도 스스로의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합리성을 지닌 존재자로 보고 있다는 것이며, 그를 의도적으로 행위하고, 책임을 지고, 도덕적 비판이나 칭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존재자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데이빗슨 행위 이론의 핵심이다.

정신적 설명만이 충족 가능한 이러한 기대, 관심은 인간의 신체적 움직임 뿐 아니라 신체적 움직임의 결과로 발생한 물리적 사건들에게도 확장된다. 특정한 물리적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그 사건이 **누구의** 탓인지, **누구** 때문인지를 묻는 것은, 그 사건이 **누구의 행위의** 결과로써 발생한 사건인지를 묻는 것이다.²¹⁷⁾ 이 질문은, 그 사건이 발생한 책임, 혹은 발생한 덕을 누구에게 돌려야 하는지와 관련된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질문으로, 그 관심은 물리적 매커니즘에 대한 설명으로는 충족될 수 없다. 이때 이런 물리적 사건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적용되는 방식은 신체적 움직임의 경우와는 다소 다르다. 누군가의 신체적 움직임을 행위로 볼 때 우리는 그 움직임을 **재기술**한다. 이는 그 움직임의 주체를 행위자로 보기 때문이다. 반면 신체적 움직임의 결과로 발생한, 신체적 움직임이 아닌 물리적 사건들에 대해 물을 때는, 그 물리적 사건들을 굳이 재기술할 필요가 없다.²¹⁸⁾

215) Davidson, 1963, p.8(국역본 p.58, 강조는 필자)

216) 물론 이때의 ‘합리성’은, 행위자는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든 할 말이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스스로의 관점에서는 그 행위가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의 약한 합리성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논의는 Davidson(1963, pp.8-9)을 보라.

217) 행위와 그 결과인 물리적 사건에 대해서는 Davidson(1971)을 보라.

218) 물론 아코디언 효과(Davidson, 1971, pp.58-59)에 의해, 물리적 사건들을 재기술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리적 사건들이 물리적으로 기술되더라도 정신적 설명만이 충족시킬 수 있는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

이때 우리의 관심은 그 물리적 사건의 책임, 덕을 누구에게 돌릴 것인가 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그 물리적 사건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행위의 방식으로, 다시 말해 지향적 태도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기술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 입장을 더 발전시켜보자. 누군가의 신체적 움직임을 이유를 통해 설명하려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해당 신체적 움직임을 합리화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 그 사람을 합리화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이유를 통한 설명에는 인간을 합리적인 존재자로 보려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어떤 물리적 사건을, 그 원인이 되는 누군가의 신체적 움직임을 그 사람의 행위로 봄으로써 설명하려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으로, 이유를 통한 설명이 가능하려면 우리는 그 인간이 상당한 정도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가졌으며, 그 사람이 가지는 많은 믿음이 나와 일치할 것이라고 전제해야 한다.²¹⁹⁾ 다만 그 사람이 가졌을 것이라고 전제되는 믿음, 욕구 등의 체계는, 그 사람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경우 그 증거를 그 사람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기 위해 수정될 수 있다. 요컨대, **정신적 설명은 행위의 주체인 인간을 이해 가능한 존재로 볼 때만 가능한 설명이며, 동시에 이해 가능한 존재로 보기 위한 설명인 것이다.**

능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데이빗슨은 정신적 설명은 오직 정신적으로 기술된 사건에만 주어질 수 있다는 이중 피설명항 전략을 취하는 Mcdonald & Mcdonald(1995)나 Gibbons(2006)와는 입장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219) 데이빗슨은 이 점을 그의 해석 이론과 심신 이론의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다.

“자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운용할 수 있는 이론을 가지기 위한 조건이므로, ...자비는 우리에게 불가결한 것이다. 우리가 그 원리를 좋아하든 아니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들이 대부분의 문제에서 옳다고 생각해야만 한다.” (Davidson, 1974b, p.197(국역본 p.315*))

“누군가가 어떤 태도와 믿음을 가졌다고 이해가 가게 말하거나, 움직임을 행동으로 쓸모 있게 기술하려면, 우리는 꼼짝없이 행동, 믿음, 바람의 유형 속에서 상당한 정도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Davidson, 1974a, p.237(국역본 p.388))

그 외에는 Davidson(1970a, 1973a, 1973b, 1974b)이 있다. 보다 상세한 논의는 본고의 III을 참고하라.

아직 한 가지를 더 물어야 한다. 이러한 합리화는 인간을 이해 가능한 존재로 보려는 관심, 인간이 어느 정도로는 일관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기대를 전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데이빗슨의 해석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

“사람들이 상당한 정도의 일관성을 가졌다는 믿음을 단순히 자비로 치부할 수는 없다: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거나 뭔가 불합리하다고 우리가 의미 있게 비난할 수 있는 처지에 있으려면 그런 믿음은 불가피하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태도와 행위에서 정합적이고 그럴듯한 유형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만큼, 우리는 그들을 사람으로 취급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²²⁰⁾

이 인용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누군가를 행위자로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체적 움직임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²²¹⁾ 행위란 그 사람이 한 일이며, 우리는 오직 누군가가 한 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우거나 비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거나 칭찬을 하거나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우리는 사람을 행위자로 봐야 하며, 그렇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적어도 어느 정도의 합리성은 지닌 존재라는 관점을 포기할 수 없다.²²²⁾

220) Davidson, 1970a, pp.221-222(국역본 p.368)

221) 행위와 책임에 관해서는 Davidson(1971)을 참고하라.

222) 이는 인간에게 정신적 체계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김재권의 다음 대답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가능한 답이 하나 있다. 물론 이것은 데이빗슨의 답은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속고와 가치평가가 가능한 반성적 행위자로 스스로를 바라보는 한, 즉 우리가 규범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행위자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한, 우리는 믿음, 욕구, 의지라는 지향적 틀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지향적 틀을 받아들이는 것은 합리적 행위자라는 우리의 본성을 반영하는 것이다.”(Kim, 1985, p.386)”

김재권은 이것이 데이빗슨의 입장임은 모르고 있으나, 이러한 지적은 인간을 합리적 행위자로 보는 한 인간에게 정신적 영역은 배제될 수 없다는 점에서 데이빗슨 본인의 답

혹자는 이 또한 충분한 대답이 될 수 없다고 다음과 같이 반론할 수도 있다. 우리는 왜 인간을 행위자로 보아야 하는가? 인간을 도덕적 평가의 대상으로, 행위의 주체로, 합리적 판단의 주체로, 이해 가능한 대상으로 간주해야 하는 개별적인 이유가 없다면, 이는 인간에 대한 하나의 주장에 불과할 뿐이며, 따라서 하나의 입장에 불과하다. 이 비판은 정당하다. 물론 우리가 인간을 행위자로 보려면 인간에게 정신적 영역이 있음을 가정해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인간을 행위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함축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나는 이 비판에 대한 답을 데이빗슨의 해석 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²²³⁾ 바로 이 지점에 우리가 인간을 왜 행위자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있다. 데이빗슨은 의미에 관한 그의 많은 논문²²⁴⁾에서 자비의 원리(the Principle of Charity)에 관해 언급한다. 다른 사람들이 내뱉는 특정한 소리가 무엇인가를 의미한다고 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이 자비의 원리를 가정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타인의 말과 사고를 해석하는 데 있어 자비는 다른 방향에서도 마찬가지로 피할 수 없는 것이다.”²²⁵⁾

“그러나 …출발부터 자비가 요구된다. 누군가의 말을 의미가 다른 여러 문장

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223) 우리가 인간을 왜 행위자로 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언어 사용자가 제시되었다는 것이, 데이빗슨에게 인간이 언어 사용자라는 것이 행위자라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규정임을 함축하는 것은 아니다. 데이빗슨에게 인간이 행위자라는 것은 때로 인간을 언어 사용자로 보기 위한 기본 원리로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는 정신적 설명만이 충족시키는 관심을 우리가 왜 버리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두 단계로 제시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서 설명적 효율성을 위해 언어사용자라는 것을 최종적 답으로 배치하였다. 우리가 언어사용자라는 것은, 지금 이 문장을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며, 이 주장에 대해 반박하거나 동의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가장 쉽게 확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24) Davidson(1967c, 1968, 1973b, 1974b, 1974c)

225) Davidson, 1967c, p.27(국역본 p.73*)

중 어느 것으로 번역할지 망설이는 것은 정보의 부족 때문이 아니다. 타인이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같은 말을 사용하지만 믿음이 다소 다르다는 것과, 우리가 그의 말을 잘못 번역했다는 것 사이에서, 원리상 이를 결정할 어떤 근거도 없다. 한 화자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과 그의 믿음패턴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가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치를 극대화하는 번역이론을 선택하는 것이다.”²²⁶⁾

여기서 자비의 원리란, 타인이 나 자신과 그 믿음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동일성을 가졌다는 것, 그들의 믿음이나 욕구가 상당한 부분에서 나 자신과 일치한다는 것에 대한 해석자의 믿음이다. 이 인용문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타인의 말을, 언어를 해석하는 데에 자비의 원리가 필요조건이라는 것이다²²⁷⁾. 즉, 자비의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타인이 내는 특정한 소리를 내가 쓰는 방식으로 해석할 어떠한 이유도 가지지 못한다. 요컨대,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서 자비의 원리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자비의 원리는 사람들이 믿음을, 욕구를, 의도를 가졌으며 그 믿음이 상당 부분 나와 일치하고, 그 믿음과 욕구의 체계가 상당한 정도로 합리성을 지녔다는 원리이다. 다시 말하면, 자비의 원리는 사람을 일종의 행위자로 보라는 요구인 셈이다. 그리고 데이빗슨에 따르면 이 요구는 인간을 언어 사용자로 보는 한 포기할 수 없는 원리이다. 이로부터 다음 결론이 도출된다. **인간을 언어를 통해 소통 가능한 존재로 보는 한 우리는 인간을 행위자로 볼 수밖에 없다.** 나는 이것이 왜 인간을 행위자로 보아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한다. 요컨대, 우리가 언어의 유

226) Davidson, 1968, p.101(국역본 pp.178-179*)

227) 이는 다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운용할 수 있는 이론을 가지기 위한 조건이므로, …자비는 우리에게 불가결한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대부분의 문제에서 옳다고 생각해야만 한다.”(Davidson, 1974b, p.197(국역본 p.315*))

의미성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인간을 언어 사용자로 보는 한 우리는 인간을 행위자로 봐야 하며,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인간의 정신적 영역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인간에게서 정신적 영역을 배제하고자 한다면, 그는 인간의 정신적 영역을 가정하지 않는 의미 이론이 어떻게 가능한지 보여주거나, 혹은 인간에게서 언어 사용까지 제거할 수 있음을 논증해야 하는 부담을 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비판자들은 물리적 설명이 충분한 설명을 줄 수 있으므로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충분하다’는 말은 언제나 ‘무엇에 관해 충분하다’고 말해져야 한다. 따라서 물리적 설명이 충분한 설명을 줄 수 있다는 말은 그 자체로는 불투명하다. 그 말은 다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물리적 설명은 물리적 관심, 세계의 물리적 매커니즘을 알고자 하는 그 관심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줄 수 있다. 그렇다면 정신적 설명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데이빗슨의 행위철학의 핵심 테제를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답은 다음과 같다. **정신적 설명만이 충족시킬 수 있는 관심이 존재한다.** 정신적 설명이란 인간의 신체적 움직임을 행위로 보고 그 원인이 되는 일차적 이유를 대는 설명이다. 이러한 설명은 인간을 행위자로 보고 그의 움직임을 특정한 방식으로 기술하여 합리화하려는 우리의 관심을 만족시키는 설명이며, 이러한 관심은 물리적 설명으로는 결코 충족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은 단순히 한 행위나 한 정신적 사건에 국한된 관심이 아니라 인간을 칭찬이나 비난이 가능한 대상으로, 도덕적으로 옳거나 그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어떤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을 수 있는 존재로 보려는 관심이다. 그렇기에 정신적 설명은 궁극적으로 한 인간을 이해 가능한 존재로 구성하려는 시도다.

여기서 다시 질문이 제기된다. 우리가 왜 인간을 이해 가능한 존재로 구성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데이빗슨의 해석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 인간을 이해 가능한 존재로, 최소한의 합리성을 가진 존

재로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간을 언어 사용자로 볼 수 없다. 요컨대, 인간을 합리적인 존재로 보는 것은, 언어 의미의 가능 조건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 한, 인간을 합리적인 존재로 가정하지 않고서 어떻게 인간의 언어 사용이 가능한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인간을 이해 가능한 존재로, 최소한의 합리성을 가진 존재로 봐야 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데이빗슨에게 정신적 설명의 가치를 확보하는 것은 무법칙적 일원론이라는 단일한 이론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데이빗슨의 행위철학과 해석이론 전반에 걸친 인간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염두에 두었을 때에야 비로소 정신적 설명만의 고유한 가치가 확보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데이빗슨의 무법칙적 일원론은 그의 행위철학과 해석이론과 함께, 인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관한 총체적 그림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V. 결 론

이 글에서 나는 무법칙적 일원론에 제기되는 주요한 두 비판인,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과 부수현상론 비판은 많은 부분 무법칙적 일원론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하였으며, 따라서 무법칙적 일원론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통해 무법칙적 일원론은 두 비판으로부터 옹호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법칙적 일원론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위 철학과 해석 이론을 포함한 데이빗슨의 철학 전체에 대한 폭넓은 고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법칙적 일원론을 옹호하려는 기존의 시도들이 성공하지 못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데이빗슨의 무법칙적 일원론은, 인간 행위가 의도적이라는 것, 그 의도적인 인간 행위는 자유롭다는 것을, 이 법칙을 따르는 물리적 세계 속에서 어떻게 해명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다. 따라서 무법칙적 일원론은 행위 철학이나 해석 이론과 함께, 인간이란 어떠한 존재자인가, 인간의 정신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인간은 어떻게 자유로운가라는 데이빗슨의 큰 문제의식 하에서 구성된 이론이며, 다른 이론에 대한 고려 없이 심리철학만을 논의해서는 무법칙적 일원론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데이빗슨의 전체 철학 체계 내에서 무법칙적 일원론을 옹호하려는 나의 작업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III에서는 데이빗슨의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 논증이 재구성되었는데, 이 논증의 핵심 개념인 합리성은 데이빗슨 해석 이론의 핵심 개념인 자비의 원리라는 것이 III의 요지이다. 합리성을 자비의 원리로 이해할 때, 정신적 영역은 일종의 해석적 상태가 되며, 이로부터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은 쉽게 귀결됨이 논증되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해석들이 데이빗슨의 무법칙성 논의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던 것은 정신적 영역의 구성적 이상인 합리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 그의 심리철학 내에 논의를 한정된 탓이라 할 수 있다.

IV에서는 부수현상론이라는 비판으로부터 무법칙적 일원론이 옹호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형이상학적 부수현상론에 대해서는 데이빗슨의 대응이 유효하나, 이 대응은 설명적 부수현상론으로부터 무법칙적 일원론을 방어 해주지는 못한다. 설명적 부수현상론으로부터 제기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정신적 설명이 인과적 설명이 아니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신적 설명이 인과적 설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수적 설명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데이빗슨의 행위 철학을 통해 우리는 데이빗슨의 인과적 설명 기준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으며, 비판자들은 이 기준이 부적절함을 보이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정신적 설명을 인과적 설명이라고 보는 것은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설명은 언제나 관심 상대적이며, 인간의 행위와 그 인과에 관해 우리는 물리적 설명이 결코 충족시킬 수 없는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통하여, 정신적 설명은 단지 부수적인 설명이 아니라 세계에 관한 주요 설명이 될 수 있음이 논증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데이빗슨은 그의 철학 전반에 걸쳐, 정신적 설명으로만 충족 가능한 이 관심이, 인간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관심임을 주장했음을 확인했다.

무법칙적 일원론을 데이빗슨 전체 철학에 대한 고려 하에서 보려는 나의 시도가 성공적이라면, 무법칙적 일원론은 그 토대와 유효성에 관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물론 이 두 비판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곧 무법칙적 일원론이 심신 인과에 관한 참된 이론임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두 문제가 해결된다면, 무법칙적 일원론은 적어도 정신 인과에 대한 유효한 이론으로 재평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법칙적 일원론이 정신 인과의 유효한 이론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면, 데이빗슨의 철학 전반에 관한 폭넓은 이해를 기반으로, 무법칙적 일원론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 또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기현, 2002, “의식의 인과적 기능,” 철학적 분석 제5호, pp.35-62
- 김영정, 1996, 『심리철학과 인지과학』, 철학과 현실사.
- 백도형, 1995, “환원, 속성, 실재론”, 철학, 43, pp.77-124.
- _____, 2001, “심신 유명론”, 철학연구, 54, pp.295-313.
- _____, 2002, “참을 수 없는 존재론의 가벼움”, 철학적분석, 6, pp.1-27.
- _____, 2004a, “물리주의와 보편자”, 철학적분석, 10, pp.51-78.
- _____, 2004b, “기능적 환원주의와 인과적 세계관:김재권과 암스트롱의 실재론”, 철학적분석, 9, pp.1-31.
- _____, 2005, “4차원 개별자론”, 철학연구, 68, pp.285-308.
- _____, 2012, “심신 유명론으로서의 4차원 개별자론”, 철학탐구 32, pp.197-226.
- _____, 2014, 『심신 문제』, 아카넷.
- 선우환, 2011, “심적 인과와 반사실 조건문적 인과 개념,” 철학논총, 64:2, pp.363-388.
- 최훈, 2004, “도움 안 되는 반사실적 논변”, 철학탐구, 16, pp.205-236.
- 하종호, 1994, “무법칙적 일원론과 심성 인과”, 철학연구, 34, pp.71-85.
- Bennett, 2003, “Why the Exclusion Problem Seems Intractable, and How, Just Maybe, to Tract It”, *Noûs*, 37:3, pp. 471-497.
- _____, 2008, “Exclusion Again”, in Hohwy and Kallestrup 2008.
- Broad, 1925, *The Mind and Its Place in Nature*, London.
- Campbell, 1998, “Anomalous Monism and the Charge of

- Epiphenomenalism”, *Dialectica*, 52:1, pp.23-39.
- _____, 2005, “Explanatory Epiphenomenalism”, *Philosophical Quarterly*, 55, pp.437-451.
- Carnap, 1966,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Science*, Basic Books:New York. (윤용택 역, 1993, 『과학철학입문』, 서광사)
- Child, 1993, “Anomalism, Uncodifiability and Psychophysical Relations”, *The Philosophical Review*, 102:2, pp.215-245.
- Chisholm, 1964, “Human Freedom and the Self”, in Watson 2003.
- Christensen and Kallestrup, 2012, “Counterfactuals and downward causation: a reply to Zhong”, *Analysis*, 72:3, pp. 513-517.
- Davidson, 1963, “Actions, Reasons and Causes”, in Davidson 1980.
- _____, 1966, “Appendix: Emeroses by Other Names”, in Davidson 1980.
- _____, 1967a, “Causal Relations”, in Davidson 1980.
- _____, 1967b, “The Logical Form of Action Sentences”, in Davidson 1980.
- _____, 1967c, “Truth and Meaning”, in Davidson 1984.
- _____, 1968, “On Saying That”, in Davidson 1984.
- _____, 1969, “The Individuation of Events”, in Davidson 1980.
- _____, 1970a, “Mental Events”, in Davidson 1980.
- _____, 1970b, “Events as Particulars”, in Davidson 1980,

- _____. 1971, "Agency", in Davidson 1980.
- _____. 1973a, "The Material Mind", in Davidson 1980.
- _____. 1973b, "Radical Interpretation", in Davidson 1984.
- _____. 1973c, "Freedom to Act", in Davidson 1980.
- _____. 1974a, "Psychology as Philosophy", in Davidson 1980.
- _____. 1974b, "On the Very Idea of a Conceptual Scheme", in Davidson 1984.
- _____. 1974c, "Reply to Solomon", in Davidson 1980.
- _____. 1980, *Essays on Actions and Events*, Oxford: Clarendon Press.(배식한 역, 2012, 『행위와 사건』, 한길사)
- _____. 1984, *Inquiries into Truth and Interpretation*, Oxford: Clarendon Press. (이윤일 역, 2011, 『진리와 해석에 관한 탐구』, 나남)
- _____. 1984b, "First Person Authority", in Davidson 2001.
- _____. 1987, "Knowing One's Own Mind", in Davidson 2001.
- _____. 1988, "The Myth of the Subjective", in Davidson 2001.
- _____. 1991, "Three Varieties of Knowledge", in Griffiths 1991.
- _____. 1993, "Thinking Causes", in Heil and Mele 1993.
- _____. 2001, *Subjective, Intersubjective, Objective*, Oxford: Clarendon Press.(김동현 역, 2018, 『주관, 상호주관, 객관』, 느린생각)
- Dretske, 1989, "Reasons and Causes", *Philosophical Perspectives*, 3, pp.1-15.
- Fodor, 1989, "Making Mind Matter More", *Philosophical Topics*, 17, pp.59-80.

- _____, 1991, "You Can Fool Some of the People All of the Time, Everyting Else Being Equal:Hedged Laws and Psychological Explanations", *Mind*, 100, pp.19-34.
- Gibbons, 2006, "Mental Causation without Downward Causation", *Philosophical Review*, 115:1, pp.79-103.
- Grice,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Grice 1989
- _____, 1989, *Studies in the Way of Word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riffiths, 1991, *A.J. Ayer: Memorial Essay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il, and Mele, 1993, *Mental Causation*, Oxford: Clarendon Press.
- Hempel, 1965, *Aspects of Scientific Explanation*, Free Press, New York.
- Hohwy and Kallestrup, 2008, *Being Reduced: New Essays on Reduction, Explanation, and Caus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Horgan, 1989, "Mental Quasation", *Philosophical Perspectives*, 3, pp.47-76
- _____, 1997, "Kim on Mental Causation and Causal Exclusion", *Philosophical Perspectives*, 11, pp.165-184.
- Honderich, 1982, "The Argument for Anomalous Monism", *Analysis*, 42, pp.59-64,
- _____, 1983, "Anomalous Monism: A Reply to Smith," *Analysis*, 43:3, pp.147-149.
- Johnston, 1985, "Why Having a Mind Matters," in Lepore and

McLaughlin 1985.

Kim, 1966, "On the Psycho-Physical Identity Theory,"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3, pp.277-285.

_____, 1984a, "Concepts of Supervenience,"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45, pp.153-176.

_____, 1984b, "Epiphenomenal and Supervenient Causation," *Midwest Studies in Philosophy*, 9:1, pp.257-270.

_____, 1985, "Psychophysical Laws", in LePore and McLaughlin 1985.

_____, 1988, "Explanatory Realism, Causal Realism, and Explanatory Exclusion," *Midwest Studies in Philosophy*, 12:1, pp.225-239.

_____, 1989a, "The Myth of Nonreductive Materialism," *Proceedings and Addresse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Association*, 63:3, pp.31-47.

_____, 1989b, "Mechanism, Purpose and Explanatory Exclusion," in Kim 1993b.

_____, 1993a, "Can Supervenience and 'Non-Strict Laws' Save Anomalous Monism?", in Heil and Mele 1993.

_____, 1993b, *Supervenience and Mi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_____, 1995, "Explanatory Exclusion and the Problem of Mental Causation", in Macdonald and Macdonald 1996a.

_____, 1998, *Mind in a Physical World*, The MIT Press. (하종호 역, 1999, 『물리계 안에서의 마음』, 철학과 현실사)

- _____, 2005, *Physicalism, Or Something Near Enough*,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하종호 역, 2007, 『물리주의』, 아카넷)
- Kroedel, 2008, “Mental Causation as Multiple Causation”, *Philosophical Studies: An International Journal for Philosophy in the Analytic Tradition*, 139:1, pp. 125-143
- LePore and Loewer, 1987, “Mind Matters”, *Journal of Philosophy* 93, pp.630-642.
- _____, 1989, “More on Making Mind Matter”, *Journal of Philosophy*, 84, pp.630-642.
- LePore and McLaughlin, 1985, *Actions and Events*, Blackwell.
- Lewis. 1973a. *Caunterfactuals*. Cambridge: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1973b, “Causation”, in Lewis 1986a.
- _____, 1986a, *Philosophical Paper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86b, “Postscripts to ‘Causation’”, in Lewis 1986a.
- List and Menzies, 2009, “Nonreductive Physicalism and the Limits of the Exclusion Principle”, *The Journal of Philosophy*, 106:9, pp. 475-502.
- Loar, 1981, *Mind and Meaning*, Cambridge: Canbridge University Press.
- Loux, 2006, *Metaphysics 3rd ed.*, Routledge. (박제철 역, 2010, 『형

이상학 강의』, 아카넷)

Marcus, 2005, "Mental Causation in a Physical World",
*Philosophical Studies: An International Journal
for Philosophy in the Analytic Tradition*, 122:1,
pp. 27-50.

Malcolm, 1968, "The Conceivability of Mechanism," *Philosophical
Review*, 77, pp.45-72.

Macdonald and Macdonald, 1995, "How to be Psychologically
Relevant", in Macdonald and
Macdonald 1996.

_____, 1996a, *Philosophy of Psychology*, Blackwell.

_____, 1996b, "Introduction: Causal Relevance and
Explanatory Exclusion", in Macdonald and
Macdonald 1996.

McDowell, 1985, "Functionalism and Anomalous Monism," in
Lepore and McLaughlin 1985.

McLaughlin, 1989, "Type Epiphenomenalism, Type Dualism, and
the Causal Priority of the Physical,"
Philosophical Perspectives, 3, pp.109-135

_____, 1993, "On Davidson's Response to the Charge of
Epiphenomenalism." in Heil and Mele 1993.

O'Connor, 2000, *Persons and Caus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ollock, 1988, "My Brother, the Machine," *Nous*, 22, pp.173-212

Quine, 1960, *World and Object*, M.I.T.Press, Cambridge Mass.

- Sosa, 1984, "Mind-Body Interaction and Supervenient Causation," *Midwest Studies in Philosophy*, 9:1, pp.271-281
- _____, 1993, "Davidson's Thinking Causes," in Heil and Mele 1993.
- Stoutland, 1976. "The causation of behavior". *Acta Philosophica Fennica: Essays on Wittgenstein in Honour of GH von Wright*, 28, pp.286-325.
- _____, 1985, "Davidson on Intentional Behavior," in Lepore and McLaughlin 1985.
- Talyor, 1966, *Action and Purpose*, Englewood Cliffee, NJ: Prentice-Hall.
- Watson, 2003, *Free Wil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Won, 2014, "Overdetermination, Counterfactuals, and Mental Causation", *The Philosophical Review*, 123:2. pp.205-229.
- Yalowitz, 1997, "Rationality and the Argument for Anomalous Monism", *Philosophical Studies*, 87:3, pp.235-58.
- _____, 2012, "Anomalous Monism",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 Zhong, 2011, "Can Counterfactuals Solve the Exclusion Problem?",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83:1, pp. 129-147.
- _____, 2012, "Counterfactuals, regularity and the autonomy approach", *Analysis*, 72:1, pp.75-85.

Abstract

A Defense of Anomalous Monism of Davidson

- On the Anomalous of Mental and the
Epiphenomenalism Problem -

Lim Yein

Department of Philosoph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swer the question of whether Donald Davidson's 'anomalous monism' can be a valid analysis of mental causation. Despite its various advantages, there are difficulties for the anomalous monism to be considered a valid analysis of mental causation in the present situation. It is because seemingly conclusive criticisms have been raised. Therefore, the question to be answered by this thesis is restated as follows: Can anomalous monism be defended from the main criticisms with which it is currently confronted?

To answer this question, first of all, those major criticisms must be made explicit. There are two main criticisms of the anomalous monism. First, it is not clear how the anomalism of the mental, one of the main premises of the argument for

anomalous monism, can be secured. Second, the anomalous monism seems to be an epiphenomenalism about the mental. The first criticism is that the foundation of anomalous monism is unstable, and the second criticism is that anomalous monism can not guarantee the causal effectiveness of the mental. In short, the anomalous monism is criticized in the respects of its foundation and its validity.

In this thesis, I argue that the anomalous monism can be defended from these two main criticisms. I try to show that both of these criticisms stem from the misunderstanding of the anomalous monism, and therefore, if this misunderstanding is corrected, the two criticisms can no longer be relevant to anomalous monism. Of course, Davidson's discussions are complicated, so it's not easy to interpret them correctly and reconstruct precisely. Moreover, the core concepts of anomalous monism are not limited to Davidson's philosophy of mind, so a full understanding of anomalous monism requires extensive investigations of his philosophy of action and interpretation theory. Therefore, I proposes more accurate interpretation of the anomalous monism on the basis of an understanding of Davidson's philosophy of mind, philosophy of action, and interpretation theory, and thereby eliminating the misunderstanding caused by the criticism.

My defenses of the anomalous monism against two main criticisms consist largely of three parts. First of all, I briefly describes the basic concepts and the main arguments and thesis of the anomalous monism.(II) I do not aim to defend all metaphysics presupposed by the anomalous monism, so I will not try for justification or defense but elucidation.

I will then show how the anomalism of the mental, the foundation of Davidson's mental theory, can be secured. To do

this, after identifying and analyzing the main existing interpretations(1 of III), I propose my interpretation of Davidson's discussion of anomalism(2 of III). Here, the anomalism of mental proves to be only understood correctly through the principle of charity in interpretation, a key concept in Davidson's semantics.

Finally, I discuss the criticism that the anomalous monism is a epiphenomenalism about the mental,(IV) To do this, I examine whether Davidson's direct response to the early criticism on epiphenomenalism is successful, and argue that the criticism of explanatory epiphenomenalism may still be valid in spite of Davidson's response.(1 of IV) I will then show how anomalous monism can respond to the criticism that it is just an explanatory epiphenomenalism.(2 of IV) And in doing this, I make it clear that more complete understanding of Davidson's anomalous monism will be possible when considering the whole of Davidson's philosophical theory, including his philosophy of action and interpretation theory.

Key words : philosophy of mind, mental causation, mind-body identity, anomalous monism, epiphenomenalism, anomalism of the mental, Davidson.

Student Number : 2011-30860